



제2장 발전 및 확장기(1968. 1. 1 ~ 1989. 3. 21)

개 관

1968년 1월 강진형 총장의 후임으로 대학원장인 김영목 박사가 총장에 취임하였다. 김영목 총장은 취임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역사적인 요청에 충분히 보답할 대학인이 되어 학문 연구에 있어서 성실성과 윤리성과 사명을 다할 것”을 역설하였다. 1968년 3월에는 처음으로 의예과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1968년 4월 24일에는 그동안 숙원 사업이던 박물관을 도서관 내에 설립하고 신라 토기와 중국제 근대 자기, 각종 회화 등을 전시하였다. 신설된 의과 대학의 업무는 차질없이 진척되어 1969년 4월에는 충남의료원 대여문제가 일단락되고 9월에는 교사의 신축 기공을 보게 되었다. 1969년 12월 신설된 교양과정부는 1970년 3월부터 교양과정부로 법제화되어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운영되었으며, 경영대학원도 개원하였다. 본교의 상징인 교표가 새로이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이다.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교목·교화 및 교수(校獸, 백마) 등의 제정과 함께 백제문화의 옛 터전에 세워진 충남대학의 영원한 상징들이 총대인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였다. 김영목 총장이 1972년 1월 제5대 총장으로 연임되었다. 취임 후 유성의 덕명리로 캠퍼스를 이전할 것을 최대 과업으로 추진하였다. 이전 사업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면학풍토 조성과 대학의 전통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충남대학교의 면모 쇄신을 위하여 오랜 심의와 연구 끝에 교시를 창의·개발·봉사로 수정 제정하였다. 교시를 수정하면서 “저마다 타고난 창의력을 유감없이 개발하고 발휘하여 그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우며, 탐구하고 실천한다는 것을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인 동시에 가장 중대한 교육의 지표”라고 하여 교시의 정신을 밝혔다.

한편 1969년에는 3선 개헌을 반대하는 전국적인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정부에서는 대학에 대하여 임시휴교 조치를 내렸다. 전국 대학에서 교련 반대 시위가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마침내 학원 질서 확립을 위한다며 위수령을 공포하고, 1972년 10월유신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5·16이후 위축된 교권과 학원 자율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에서는 1973년 2월 문교부 차관을 역임한 전서울대 박희범 교수를 충남대학의 총장으로 파견하였다.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근대화의 도정에서 우리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질서의 창조를 강조하였다. 이는 유신체제하의 질서 유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총장은 학생의 민주화운동을 철저히 금지하여 오원진을 비롯한 6명을 제적시키는 등



강경하게 대처했다.¹⁾ 이에 대응하여 학생들은 11월 29일부터 도서관을 점거하고 박총장의 사퇴를 최후 통첩하였다. 학교 측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학생들은 도서관 출입문을 차단하고 1주일에 걸쳐 단식투쟁을 전개하면서 총장 퇴진과 제적 학생의 구제 등을 요구하였다.²⁾

이 시기 학사 개편을 단행하고 새로운 대학발전계획이 추진된 바도 있다. 그 중에 중추를 이룬 사업은 대덕연구단지로의 대학 이전 계획이었다.³⁾ 이 외에도 직업기술교육연구소의 부설, 각종 부설연구소의 법제화, 의대 교사의 준공, 중앙도서관 신설, 영자신문사의 출범 등이 이루어졌다. 1974년부터는 실험대학으로 지정되어 능력별 졸업제가 도입되어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1975년 3월 교육대학원이 신설되어 대학원 정원이 증원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 밖의 정치 상황이 학원에 밀어닥쳐 국민윤리 교과를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국적 있는 교육의 신장 등을 내세워 대학 교육을 변질시켰다. 1976년에는 교수재임용제가 실시되어 적지 않은 교수들이 본교를 떠나기도 하였다.

1977년 제8대 총장으로 서명원 총장이 부임하면서 대덕캠퍼스로의 이전 및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서명원 총장은 서울대학교 부총장 재직시 서울대학교의 관악 캠퍼스 이전 사업에 관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교의 대덕캠퍼스 이전 사업을 추진하였다. 1977년 6월 전체 교직원과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합캠퍼스의 건설공사 기공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로써 한국 대학사에 각인될 충남대학교의 도약의 새 장이 열리게 되었다. 계룡산 기슭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약 100만평의 부지 위에 6만 7천여 평의 교육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78년 8월 공업교육대학의 이전을 시작으로 1979년에는 문리과대학이 이전하였다. 1979년에는 10·26사태가 일어나고 이어서 12·12사태마저 일어나 군부가 정권을 잡은 5·16이후 일찍이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따랐다.

1980년 5월 1일 총학생회를 주축으로 한 충남대학교사상 최대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대운동장에 모인 5천여 명의 학생들은 ‘계엄령 해제’, ‘언론자유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대전역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학생 시위대는 출동한 경찰대의 최루탄에 투석으로 맞섰다. 잠시 후퇴한 시위대는 4진으로 나누어 각각 대전역에 집결하였다. 대전역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후 문화동 캠퍼스까지 약 2km의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의 시위는 7일까지 철야농성과 연좌시위로 이어졌다.⁴⁾ 학생회에서는 5월 1일과 5월 6일의 2차에 걸쳐 시국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

1) 《경향신문》 1974년 10월 5일, 「충남대 6명 제적」.

2) 《경향신문》 1974년 11월 29일, 「충남대생들 총장사퇴 요구 성토, 농성 벌여」.

3) 이를 위하여 발전계획기획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위원장으로 김영래 교무처장, 상임위원에 이창갑 교수를 임명하였다(《충대신문》 1973년 7월 23일, 「본교 발전계획기획위원회 결성」).

4) 《경향신문》 1980년 5월 7일, 「대학가 시위 ‘시국’ 성토 열기」.



으며⁵⁾, 교수협의회에서도 5월 6일 ‘정의에 입각한 민주화작업이 조속히 성취되기를 희망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⁶⁾

충남대학은 정치적인 혼란의 와중에도 대덕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캠퍼스 이전 사업은 대학의 시대적 사명과 지방 국립대학의 육성이라는 국가 시책에 따라 계획·추진된 대 프로젝트였다. 서명원 총장은 1981년 3월 제9대 총장으로 연임되면서 대학 이전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1981년에는 대학 본부와 법경대학이 대덕캠퍼스로 이전하였다. 이듬해인 1982년은 농과대학이 마지막으로 이전하였고, 대학의 중추 시설인 중앙도서관이 신축 개관되었다. 초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도서관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로 대덕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체육관·기숙사·실험실 습실·공장동 등과 같은 부속 시설이 계속 신축 개관되어 대학의 시설 및 기능이 대폭 확장되었다. 보운캠퍼스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신축하였다. 1984년 10월 개원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대지 26,128평, 연건평 1,270평,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 2층에 499개의 병상과 각종 현대 특수설비를 갖추어 중부권 최대의 메디컬 센터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서 대학의 규모는 1985년 당시 40만평의 대지 위에 4만 5천여 평 규모의 강의실·교수연구실·공장동·실험실 습실·중앙도서관 등을 구비하여 전국 어느 대학 캠퍼스보다 훌륭한 시설과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거기에 1978년에는 전자계산소·어학연구소·공업교육연구소, 1979년에는 화학분광학연구소가 설치되는 등 연구하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더 새로이 하게 되었다. 특히 1979년도에는 문리대가 문과대와 이과대로, 법경대가 법과대와 경상대로 분리되었다. 1979년에는 종합의료기관 설립의 추진도 특기할 만하다. 대덕캠퍼스의 성립과 함께 때를 맞추어 학생정원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으며, 그에 따른 교수 정원도 대대적으로 증가하여 명실 공히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되었다.

대덕캠퍼스로의 이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캠퍼스의 조경 사업과 교목·교화 선정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1982년 5월 23일 학교의 상징물인 백마상의 준공도 이루어졌다. 곳곳에 연결된 가로 이름 짓기 사업도 학교 신문사 주관으로 전개되었다. 대학 캠퍼스 조경 사업의 기본 목표는 자연 경관과 건축 공간을 기본적으로 연결시켜 대학인에게 쾌적한 활동을 제공하고, 시각적으로도 조화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1984년 11월 14일에는 보운캠퍼스에 의대 부속병

5) 《경향신문》 1980년 5월 2일, 「과격화 학원농성 교외로」.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1980년 5월 1일, 「학생총회에 부치는 성명서」. 5월 6일, 「시국에 관한 2차 성명서」 (《충대신문》 1980년 5월 12일).

6) 《충대신문》 1980년 5월 12일, 「민주화를 위한 충대인의 절규」, 「교수협 결의문 채택, 긍정적인 학생의견 반영 희망」.



원이 개원하여 지역 사회의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⁷⁾

1985년 3월 제10대 총장으로 건축공학과 이창갑 교수가 취임하였다. 이창갑 총장은 ‘명문 충남대학교’ 건설을 목표로 본교의 양적 발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 공헌하였다. 이창갑 총장은 재임 기간 동안 대덕캠퍼스의 정비 및 시설 확충에 주력하였다. 캠퍼스 이전은 완료되었지만, 교내 제반 부속 시설 및 편의 시설들, 학교 주변 환경 등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 많은 불편과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운동장을 건설하였으며 기초과학관·생명공학과·미술관·음악관·전자계산소·기숙사 제2동·가축병원 등과 같은 새로운 건물들을 신축 개관하였다. 농과대학의 실습지가 확정되어 대덕캠퍼스의 교지가 45만평으로 확장되었고, 본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정문 건립을 시작하였으며,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1970년대 기초 과학 분야 중점 육성 대학으로 지정된 후 1987년 2차 연도에는 생물공학 분야의 육성에 힘을 기울여 교육과 연구에 내실화를 기하였다. 또한 종합발전계획 제6차 5개년 계획(1987~1991)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시설을 수용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당시 교지 면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가 교지를 확보하였고, 기초 과학 특성화 계획에 따라 기초과학관을 따로 건립하였다. 또한 새로운 학과를 신설, 분리하여 1991년도 13개 단과대학, 92개학과, 5개 대학원으로 확대·발전시키고, 학교 행정을 개선하여 질적 발전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 교육과 행정면에서도 변화와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의 개선은 물론, 입시 제도의 변화와 졸업 정원제의 실시, 그리고 교수 임용 제도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8년까지 본교는 교무처·학생처·사무국·건설 본부 등의 2처 1국 1본부의 직제였다. 1978년 8월 건설 본부의 직제가 축소되었고 기획담당관도 폐지되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전 사업을 위해 1980년에 건설본부장 산하에 행정·건축·토목·전기 담당관제를 설치 운영하여 오다가, 1981년 2월 28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사무국에 시설과가 공식 기구로 설치됨으로써 학교 이전 사업을 총괄하였던 건설 본부는 해체되었다. 따라서 교학 기구는 2처 1국의 직제를 갖게 되었다.

1980년 4월 개정 학칙에 의하여 학생 자치 활동이 학도호국단에서 학생회로 이양됨에 따라 그 동안 학도호국단을 관장하고 학생 상담을 지도하여 왔던 상담지도실이 폐지되었다. 1980년 5월 학생 수가 대폭 증가되고 내외의 장학금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를 관리 지도하기 위한 기구로 장학담당관이 학생처에 설치되었다. 1984년에는 지방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 기숙사가 건립되었으며, 1985년에는 국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제

7) 《충대신문》 1984년 11월 19일, 「부속 병원 신축 이전 개원식」.



교류부가 설치되었다.

교수의 학술연구와 권익보호 및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1971년 교수협의회가 창설되었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신년교례회와 답사 등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을 하였으며, 학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학교 운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980년 전국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교수협의회에서는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방안을 협의했으나, 이 일로 많은 교수들이 신군부의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에 교수들의 적극적인 현실 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민주화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시기에 교수의 연구 업적과 연구 활동은 초창기에 비해 활발하였다. 대내외에서 수주한 연구비 역시 이전 시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는 학교의 외적 성장과 함께 내적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활동도 크게 발전하였다. 대학원 원우회도 조직되었는데, 원우회의 조직과 활발한 활동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발전하는 대학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학생의 장학 제도 역시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확대되었고, 학생들의 후생 복지도 넓어졌다. 이에 따라 대학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학생들 본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초 유신 체제의 종말과 광주민주화운동, 제5공화국의 수립과 폭거 등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전이 심했다. 이에 따라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시위는 더욱 격해졌고, 군사 정권의 몰상식적 정국 주도 역시 강하게 표출되었다. 계엄과 긴급조치 등으로 정권을 연장하던 박정희 정권의 몰락으로 민주화의 봄을 열망하던 시민과 학생들은 또 다시 군사 정권의 출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민주정부의 탄생은 다음 시기를 기다려야 했다. 본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학생들은 몸으로 군사 정권의 탄생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 시기 학도호국단이 폐지되었고, 총학생회가 부활되었다. 그리고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발족하면서 학생들의 소리를 대변했고, 학생 운동의 방향도 새롭게 정비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군사 정권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학생회관을 준공하면서도 군사 안보의 정착이라는 미명하에 학생 병영 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당근과 채찍 양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1980년대 후반도 학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다. 사회적으로 민주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민주화 운동이 크게 발전되어 결국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은 학내적으로도 대학 자율화와 학원 민주화를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본교에서도 1987년 체육교육학과 사건·1988년의 미술학과의 총장실 점거 사건·사회과학대학 문제 등 많은 진통을 겪었다. 특히 1987년과 1988년에 걸쳐 법과대학·문



과대학·경상대학 일부 관련 학과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사회과학대학 신설요청이 부결되면서 관련 학과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1988년 11월 8일 이창갑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이 사건은 본교의 신설 승인요청 과정과 문교부의 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문교부 당국의 행정적 권력의 남용과 대학 자율화를 무시한 처사였다.⁸⁾

제1절 교무(학사)

1. 교학기구와 학사운영의 변화

1) 교학기구의 개편

1969년 8월 11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방대해진 교육·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본부 기구의 일대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제까지 교무·학생의 업무를 관장했던 교학처를 교무처와 학생처로 분리하여 교무, 학생 사무를 각기 분장토록 하였다.

교무처는 교무, 학적과, 학생처에는 학생 1과, 학생 2과를 두고 초대 교무처장은 공과대학 이창갑 교수, 학생처장은 법경대학 김용무 교수가 임명되었다.

교세 확장에 따라 업무량이 많아져 기존의 기구로는 방대해진 학교업무의 원활한 소화가 어려웠다. 1975년 문교부는 국립대학 설치령에 대해 개정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교의 개편된 기구 내용에서도 학생들의 수업 조정과 상담 지도에 미흡한 점은 여전히 많았다. 또한 부속 도서관의 직제 역시 법제화되지 못하여 사서 전문직을 배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교무처에 수업과, 학생처에 상담지도관, 도서관에 수서과와 열람과를 신설하게 되었다. 사무국은 종전과 같았으나, 교무처는 3개과, 학생처는 학생과와 후생과, 상담 지도관으로 나누어 운영하였고, 도서관은 2개과 등으로 기구의 대폭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

1978년에는 교무처(교무과·학적과·수업과), 학생처(학생과·후생과·상담지도관), 사무국(총무과·경리과), 건설본부(기획담당관·행정담당관·공사담당관) 등의 2처 1국 1본부의 직제를 가지고 있었다. 1978년 8월에는 건설본부의 직제가 축소되었고 기획담당관이 폐지되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전 사업을 위해 1980년에 설치된 건설본부장 산하의 행정, 건축, 토목, 전기담당관

8) 《충대신문》 1988년 11월 14일, 「이 총장 문교부에 사의 표명」, 「문교부의 부당한 행정이 학원 민주화 막아」.



제를 운영하여 오다가 1981년 2월 28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에 따라 사무국에 시설과가 공식 기구로 설치됨으로써 본교의 이전 사업을 총괄하였던 건설본부는 해체되었고 교학 기구는 2차 1국의 직제를 갖게 되었다.

1980년 4월 개정 학칙(훈령 제332호)에 의하여 학생 자치 활동이 학도호국단에서 학생회로 이양됨에 따라 그동안 학도호국단의 단비를 관장하고 학생 상담을 지도하여 왔던 상담지도실이 폐지되었다. 1980년 5월에는 본교의 학생수가 대폭 증가되고 내외의 장학금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를 관리·지도하기 위한 기구로 장학담당관이 학생처에 설치되었다. 1984년에는 지방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학생 기숙사가 설치되었으며, 1985년에는 국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 국제교육부를 설치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본교는 5개 단과대학, 39개 학과에서 1988년 3월에는 10개 단과대학, 79개 학과로 대폭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2) 학사 제도의 강화

문교부는 1970년대 초부터 대학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실험대학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실험대학의 중요한 내용은 졸업 학점의 인하, 계열별 학생 모집, 부전공 및 복수전공제 도입, 능력별 학점 취득제, 졸업 제도 개선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본교는 1974학년도부터 실험대학 제도를 도입 실시하게 되었다.

실험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이 기간 중의 특이한 사항은 실험대학 운영 개선의 일환으로 교양 과정부를 폐지하고(1978. 3. 1) 소속 학생들은 각 대학으로 보낸 뒤 교양 교육을 관장하기 위한 「교양교과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들 수 있다. 교양교과운영위원회는 교양 교육 과정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교양 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였다.

1979년에 문리과대학이 문과대학과 이과대학으로, 법경대학이 법과대학과 경상대학으로 분리 신설됨에 따른 계열의 세분화가 이루어졌으며, 1981년에는 졸업정원제로 대표되는 대학 입학 시험의 대폭적인 개혁에 따라 계열의 세분화가 이루어졌다. 1984년부터는 실험대학의 상징과 같은 계열별 모집에서 학과별 모집으로 환원됨으로써 실험대학의 운영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부전공 제도도 1979년부터는 일정 자격 이상의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부전공 이수 규정을 개정하였고 복수전공 제도는 1976년도에 문교부의 인가를 받아 1978년도부터 시행되었다.

1975년 12월 22일부터 영어 및 제2외국어 과목부터 시행한 학점 취득 특별 시험 제도는 교과목 중 이수 면제가 가능한 과목을 미리 대학에서 결정하여 고시하면, 규정이 정한 응시 자격



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에 응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적을 얻었을 경우에는 응시 과목수와 학점 상한에 구애됨이 없이 해당 과목의 이수를 면제하고, 해당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범계열의 공업교육대학,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와 의예과는 제외되었다.

1976년도부터 실시되어 온 학점 초과 취득 제도는 일반적으로 학생은 매 학기 1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전 학기 평균 평점이 A0급 이상인 자는 24학점까지, 전 학기 평균 평점이 B0급인 자는 21학점까지 초과 취득을 인정하여 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졸업 제도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을 썼다. 학칙에도 졸업 논문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그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1976년 6월에 학칙을 개정하여 1977년도에 졸업 논문 시행 규정을 공포하였다. 졸업 논문 제도의 실시 후 면학 풍토의 변화, 전공 지식의 종합, 교수와 학생 간의 학문적 접촉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종합 시험이란 교양 및 전공 과목 이수 과정 중에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평가하고 학생들에게 교양 과정 및 전공 기초를 확고히 구축하게 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1974년부터는 외국어 검정고시로 시행하여 오다가 1976년부터 졸업 논문의 실시와 더불어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시행하던 종합시험은 문교부의 대학별 자율 시행 방침에 따라 1982년에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1981년도에 불합격을 하였던 학생도 졸업 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년 종합시험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3) 학칙 및 제 규정의 개정과 교육내용 개선

1968년 시설과 기구의 확장이 본격화되었다. 학사 제도가 변동 내지는 확대됨에 따라 학칙은 물론 제 규정의 제정 혹은 개정이 불가피하였다. 이 시기의 여러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양학부의 강화였다. 즉 교양과정부의 법제화와 대학생의 국가관 확립, 실험대학 실시를 위한 준비 및 기타 제 연구소의 설치 등이 중요한 현안이었다.

(1) 학칙 및 제 규정의 개정

① 학칙 및 교무 규정

1969년 3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된 학칙 및 교무 규정을 보면 학칙 제33조 교양과목 조항에서 공통필수 과목 중 외국어를 영어로 하고 체육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렸다. 남학생은 체육과 교련, 여학생에게는 체육을 이수하도록 제정했다.



1970년 3월 1일 개정 공포된 내용은 주로 교양과정부 설치 관계 조문과 공업교육학과 및 간호학과 신설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70년 9월 개정 학칙에서는 학업 성적 산정시 시험 성적 40%, 출석 30%, 예습·복습 30%의 비율로 되어 있던 것이 시험 성적 70%, 예습·복습 30%의 비율로 바뀌었다. 또한 교양 필수 36학점을 35학점으로, 교련 7학점을 6학점으로, 군사학(ROTC) 6학점을 선택 과목으로 돌렸다.

1973년 3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학칙은 문교부의 권장 사항인 국사 과목의 필수화를 비롯하여 선택 과목을 확충할 목적으로 전공 필수 과목을 총 85학점에서 72학점 기준으로 인하하였다.

1975년 3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된 학칙은 본교가 실험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를 비롯하여 대학 교과 운영에 있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 과정, 교양 교육의 강화, 교과 이수 문제, 유급 제도의 실시 등을 골자로 개정되었다.

② 기타 제 규정

학칙 및 교무규정 이외에 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교과 과정 연구위원회 규정

본 규정은 1972년 12월 18일 제정, 훈령 제128호로 공포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동 위원회는 해마다 변경을 거듭하는 교과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교과 과정에 관한 전반 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한 동 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양과정부장을 포함하여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 1인씩 추천하면 총장이 위촉하였는데 임기는 2년이었다. 교과 과정의 제정, 개편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나. 교련 성적 평가 규정

교련 성적 평가규정은 학칙 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교련(군사교육)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1971년 12월 7일 훈령 제97호로 공포되었다. 교련 성적은 출석 40%, 시험 성적 60%로 하며, 시험 성적은 이론 30%, 실기 30%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교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었다. 이외에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2) 교육 내용 개선

1981년 본교에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각 학문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비·개편하였음은 물론, 강의 위주의 교육 과정을 도서와 시설의 확충에 의한 실험 실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면학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개편하였다.

개편된 교육 과정의 기본 구조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과 부전공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학과목 운영은 3학점 제도로 되어있다. 그에 따른 편성은 교육 과정의 지나친 세분화와 중복 및 유사 과목을 통합 조정, 사회적·시대적 적합성에 부응하는 과목의 신설 및 재편성, 교수 위주의 교육 과정 편성의 지양, 전공 필수 과목의 최대한의 축소 및 선택 과목의 확대, 학과 및 대학 간의 장벽 제거, 학부와 대학원 교육과의 연계성 확립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교육 과정 이수 학점상의 특징은 실험대학 운영의 일환으로 계열별 학생 모집이 실시되던 시기와 학과별 모집이 실시된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계열별 학생 모집이 실시된 시기에는 교육 과정 학점 이수는 기초과목, 전공과목, 부전공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학과별 모집이 실시된 이후에는 교양과목, 전공과목, 부전공 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 기간 중에 특기할 사항은 1980년도에는 약학과, 원예과, 공업교육학과, 의학과 및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부전공 이수를 허용하였으나, 부전공 이수를 제한하는 학과에 체육교육과, 가정교육과가 추가되었다. 그 후 공과대학의 공업교육학과는 1983년도부터, 가정교육과는 1989년도부터 부전공 이수를 허용하였으며, 1988년도부터는 사범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사범계 학과의 이수학점 수를 상향조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교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83년에는 종전의 일방적 주입식 강의 위주의 교수 방법에서 교수와 학생 간에 양방향 강의 방식인 토론식 수업 또는 세미나 방식으로의 개선 노력이 있었다. 1984년 3월에 본교의 교무 규정 및 학업 성적 평가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과 조건을 「직전 학년도 성적 평균이 C+급 이상」에서 「직전 2개 학기 성적 평점 C+급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이수 학점 규정을 위반한 초과 이수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졸업정원제 실시에 따라 학업 성적 평가를 A급 20%, B급과 C급은 각각 30%, D급은 20% 이내로 부여하도록 하였다.

1988년에는 복수전공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학칙에 정기시험 조항을 삭제하고 수시시험 3회 이상의 필기시험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 산출 방식도 시험 성적 80%, 기타 20%이던 것을 시험 성적, 과제물, 출결 및 기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학사 경고 3회시 제적 처리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재학 연한인 6년을 초과한 자에 대해 제적한다고 규정하였으



며, 의과대학의 동일 학년에서 2번 유급시 제적한다는 조항도 삭제되었다. 8월에는 현행 시험이 3회 이상의 필기시험을 실시할 것을 원칙적으로 하던 것을 정기로 중간, 기말시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다만 교과목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다. 이로써 학생들의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은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3월에 공포된 학칙에서는 재입학 대상을 퇴학 또는 제적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1회에 한해서 학생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빈자리)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련의 삭제, 명칭 변경, 신설된 학과 삽입 등에 따라 학칙이 개정되었다. 재이수 과목도 F학점이 아니더라도 성적 향상 등의 이유로 재이수 할 경우, 먼저 이수한 과목은 취소되고 재이수한 학점으로 성적표에 표기되도록 개정하였다.

4) 입시 제도의 변천

(1) 대학 입학 예비고사 제도

1962년 처음으로 국가가 대학 입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출현하였다. 성적과 신체검사 및 면접을 담당하는 전형 제도였다. 그러나 1963년에는 자격 정도만을 부여하는 제도로 바뀌었다가 다음 해 그마저 폐지되었다. 그 후 문교부는 국가고시제도를 연구하고 검토한 끝에 대학 입학에 위한 예비고사를 치르되, 대학 지망생들의 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로 변경하면서 국가가 다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3637호로 대학 입학 예비고사령을 제정 공포하고, 고사는 선다형 필기 고사 방법을 따랐다. 고사 과목은 교육법 시행령 제118조에 규정된 고등학교 교과 중 전 과목에서 대학 입학 예비고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내용을 보면 합격자는 고사 과목 총 점수의 순위로 결정하고, 합격자 수는 전국 대학 입학생 정원(예능, 체육계열 제외)의 약 150%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실행으로 1969년부터 대학을 지망하는 자는 국가가 실시하는 고사에 합격해야 한다는 법적 자격이 요구되었다. 이 제도를 몇 년 동안 실시해 오다가 1972년 재검토되었다. 검토 후에는 지방 학생들의 서울 집중을 억제할 목적으로, 1973년부터 대입 예비고사를 시·도 단위로 조정하고, 합격자는 예시를 치른 시도 내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교부의 입시 제도의 개선 방안에 따라 1973년부터는 대학 입시 예비고사 성적을 입학 시험 성적에 반영시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본교에서도 1973년에 총점 550점 중 50점인 10%를 입학 점수에 반영한데 이어, 1976년에는 총점 800점 가운데 340점인 42.5%를 반영하였다. 이렇듯 예비고사 성적의 비중이 점차 높아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학 본고사의 중요성이 감소되었



다. 문교부는 여러 가지 묘책을 강구한 끝에 예비고사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성적의 신빙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는 ‘7월 30일 교육개혁조치’로 본고사를 폐지함으로써, 예비고사와 내신성적만으로 대학입학제도가 실시되었고, 전적으로 국가가 시험을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1981년도 신입생은 본고사 없이 예비고사 성적만으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간 단점이 많다고 폐지한 바 있었던 1962년의 대학 입학 자격 국가고시제로 되돌아간 결과가 되었다. 이후 1985~87년에 교육개혁심의회는 대학입시의 관리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대학별 독자적인 입학시험운영은 1990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2) 입시 본고사 제도

학생 정원의 증가와 더불어 본교 지망 학생의 대폭적인 증가, 그리고 지원 학교의 다양성 등으로 입학시험 본고사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1971년 2월에 이창갑 교무처장은 1971학년도 입시 문제를 분석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본교 신문사에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에서는 본교 출제 문제가 국가 예비고사에 비하여 어렵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주·객관식 출제 비율은 60% 대 40%였고, 채점 결과 합격선이 예년에는 100점 만점에 평균 40점이었으나, 이 해에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72학년도부터는 교수회의를 통해 출제 방향을 수험생들에게 미리 주지시키자는 것과 출제위원을 과목당 2명에서 4~5명으로 늘리자는 안이 논의되었다.

고사 과목을 살펴보면 국어, 영어, 수학 등 필수 과목에는 변함이 없었다. 1967년부터 대학에 따라 물리, 화학, 생물, 일반사회, 국사 등이 별도로 추가되어 오다가 1973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국사가 추가되었다. 1974년에는 과학 또는 외국어가 추가되어 과학에는 물리, 화학, 생물이 포함되고 외국어에는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1974년에는 제2외국어에 들어가, 1976년에는 에스파니아어가 추가되기도 하였다. 종전에는 면접을 A, B, C, D로 구분하여 C급 이상은 합격이고, D급은 불합격으로 판정하였는데, 1976년도의 배점표에서 보인 특색은 면접 점수가 29점이나 배정되었다는 사실이었다.

(3) 입시 본고사 폐지

1980년 7월 30일에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입시 제도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81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기존의 대학별로 치렀던 본고사 제도를



폐지하고 예비고사 성적과 고등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 전형을 하게 되었다. 1981년도 신입생 전형 방법은 일반 계열의 경우 예비고사 성적 340점 만점에 내신 성적 85점(반영율 20%)을 합한 425점이 만점이었으며, 예비고사와 동일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수 20점이 주어지는 점수 가산제를 시행하였다.

1982년도에는 모집 단위가 학과와 계열 혼합 방식을 채택하여 12계열 17학과로 모집을 했다. 국어국문학과와 도서관학과는 학과별로, 축산학과·낙농학과는 축산계열로 조정되었다. 복수 지원의 범위는 3지망까지 허용하였으며, 1지망자 중에서 졸업 정원의 해당 인원을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1지망 탈락자와 2지망·3지망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였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타 종합대학교보다 높은 비율인 34.5%(180점)를 반영하고, 학력고사점수는 65.4%(340점)를 반영하여 총점은 520점이었다. 자연계에 합격 후 자연계로 지망할 경우 25점이 가산되는 점, 동일계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이 전년도(1981년도)의 367명에서 109명으로 대폭 줄어든 점, 그리고 수학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장의 재량으로 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1982년도부터 음악, 미술, 수의학과가 신설되어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으며, 실기시험 30%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음악학과는 4개 전공 분야별로 실기를 치루며, 미술학과는 공통 실기와 전공 실기를 치르도록 하였다. 또한 합격자의 성적 분포 상황은 발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신설되는 학과의 인원을 포함하여 총 모집 인원은 4,784명이었다.

1983년도 신입생 모집시에도 총 모집 인원은 변동이 없었으나, 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부의 인원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건축·토목·기계공학과가 신설되었다. 어문계열로 모집하던 영어중문학과가 학과별 모집으로 바뀌었고, 이과계열은 수학과와 계산통계학과를 1계열로,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를 2계열로 나누어 2개 계열로 모집하게 되었다.

예·체능계를 제외한 인문·자연계의 경우 학력고사 성적 340점(65.4%), 내신성적 180점(34.6%)으로 총점 520점이었으며, 예능계의 경우에는 학력고사 340점(30.1%), 내신성적 340점(30.1%), 실기시험이 450점(39.8%)으로 실기고사의 배정비율이 전년도(82학년도)보다 높아졌다. 체육교육학과와 교육학과는 학력고사 340점(40%), 내신성적 255점(30%), 실기시험 255점(30%), 총점 850점이었다. 특히 1982년도와는 달리 동일계 지원자는 학력고사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했다. 복수지망은 3지망까지 허용하였으며, 1지망자 중에서 졸업 정원의 해당 인원을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1지망 탈락자와 2지망·3지망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였다.

1984년도의 경우에는 화학공학과가 신설되었으며, 의예과와 간호학과는 졸업 정원의 110%를 초과 모집하기로 하였다. 복수 지망은 3지망까지 허용되며 총 입학인원은 4,804명이고, 졸업정



원은 3,720명이었다. 1983학년도와 같이 동일계지원자에게는 학력고사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했다. 복수지망은 3지망까지 허용하였으며, 1지망자 중에서 졸업정원의 해당 인원을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1지망 탈락자와 2지망·3지망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였다. 1984년도 성적 반영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1984학년도 신입생 전형 기준〉

구분	학력고사성적	내신성적	실기고사	계
인문·자연계	340점(65.4%)	180점(34.6%)		520점(100%)
예 능 계	340점(30.1%)	340점(30.1%)	450점(39.8%)	1,130점(100%)
체육교육과	340점(34.7%)	300점(30.6%)	340점(34.7%)	980점(100%)

198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는 8개 단과대학, 65개 학과에서 총 4,241명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금속공학과, 전기공학과, 정치외교학과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1984년도 입학생보다 563명이 감소되었지만, 졸업 정원은 1984년도의 3,720명과 같았다. 이는 졸업 정원의 130%의 인원을 일률적으로 모집하여 운영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졸업 정원의 110~115% 범위에서 모집하도록 개정한데서 기인한다. 모집 단위는 학과별로, 복수 지망은 2지망까지 허용했다. 1지망자 중에서 졸업 정원의 해당 인원을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1지망 탈락자와 2지망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였으며, 동일계 지원자에게는 학력고사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했다. 성적 반영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1985학년도 신입생 전형 기준〉

구분	학력고사성적	내신성적	실기고사	계
일 반 계	340점(65.4%)	180점(34.6%)		520점(100%)
예 능 계	340점(20%)	510점(30%)	850점(50%)	1,700점(100%)
체육교육과	340점(34.7%)	300점(30.6%)	340점(34.7%)	980점(100%)

1986학년도 신입생 모집시에는 2지망까지 허용하였으며, 1지망자 중에서 졸업 정원의 해당인원을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1지망 탈락자와 2지망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였다. 동일계 지원자에게는 학력고사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했다. 그리고 1986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고사가 인문, 자연계(예·체능계 제외) 전학과에 걸쳐 인문·사회·자연계열로 구분, 실시되게



되었는데, 성적 반영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1986학년도 신입생 전형 기준〉

구분	학력고사성적	내신성적	논술 및 실기고사	계
인문·자연계	340점(63.0%)	180점(33.3%)	20점(3.7%)	520점(100%)
예 능 계	340점(20%)	510점(30%)	850점(50%)	1,700점(100%)
체육교육과	340점(34.7%)	300점(30.6%)	340점(34.7%)	980점(100%)

1987학년도의 경우는 입시 전형 요소간의 반영 비율을 조정하였다.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을 40.2~26.9%로 상향 조정하여 1987학년도 내신 등급 간의 점수 격차도 2.0점에서 2.3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논술고사 반영 비율도 3.7%에서 4.1%인 25점으로 조정되었다. 자세한 반영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1987학년도 신입생 전형 기준〉

구분	학력고사성적	내신성적	논술 및 실기고사	계
인문·자연계	340점(55.7%)	245점(40.2%)	25점(4.1%)	610점(100%)
예 능 계	340점(59.6%)	230점(40.4%)	570점(100%)	1,140점(100%)
체육교육과	340점(53.1%)	300점(46.9%)	340점(53.1%)	980점(100%)

1987학년도에는 졸업 정원의 110%(86학년도 115%)를 선발하였는데(사범계, 의예, 약학, 간호 105%), 1지망에서 90%를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1지망 탈락자와 2지망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였다.

1988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천문우주과학과, 사회체육학과, 산업미술학과, 관현악과, 임산공학과, 환경공학과 등 6개 학과가 신설되었으며, 문과대학이 문과대학과 예술대학으로 개편되면서, 10개 단과대학 79개 학과에서 총 3,820명을 선발하였다. 전형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전형 요소별 성적 반영은 인문·자연계열은 학력고사 성적 340점, 고교 내신성적 160점, 예능계열은 학력고사 성적 340점, 고교 내신성적 510점, 실기고사 850점이며, 체육계열(체육교육과, 사회체육학과)은 학력고사 성적 340점, 고교 내신성적 300점, 실기고사 340점으로



반영하였다.

1988년 10월에 대학 정원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1989학년도 입학생 모집 요강이 발표되었는데, 모집 요강에 따르면 83개 학과에 3,845명을 모집하게 되었으며, 1지망에 90%, 나머지 인원은 1지망 탈락자와 2지망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뽑았으며, 인문·자연계열의 경우 학력고사 성적 68%(340점), 내신 성적 32%(160점)를 반영하였다.

법학과는 사법학과와 공법학과로, 미술학과는 회화과와 조소과로 분리되었다. 신문방송학과, 제약학과, 국사학과를 신설하고, 도서관학과를 문헌정보학과로 명칭 변경하였다.

(4) 졸업 정원제

졸업정원제는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과 동시에 대학 입학 기회의 확대 및 면학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졸업 정원의 대폭 증원과 함께 1981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인원을 졸업 정원보다 30% 더 증가시켰으며, 후속 조치로써 각 대학이 기존 교육 시설과 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전일 수업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졸업 정원제 실시에 따른 대학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많은 문제점을 파생시켰다. 즉 졸업 정원제는 대학의 문을 넓히긴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시설면과 교수 충원 문제 등 이러한 제도 변화를 수용할 대학 자체의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 또한 중도 탈락생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었다.

본교에서는 이 제도의 정착과 학생 성적 평가를 위한 교양 과목 평가위원회가 1981년도에 발족되었다. 졸업 정원제에 따른 학칙 변경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81년도에 개정된 학칙에는 4학기말까지 졸업 정원의 18%를 중도 수료시키고, 7학기 등록시 졸업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연 2회, 통산 3회 학사 경고자는 제적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었다.

1982년 8월에는 학사 징계 및 졸업 정원제의 합리적 운영을 심의하였으며, 교수 및 시설확보, 학업 성적 평가제도 개선, 대학 재정 운영, 교수 학습 방법 개선 등을 전담할 「학사개혁위원회」를 신설하였다. 10월에는 졸업 정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4학기말까지 졸업정원의 18%를 중도 수료시키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단지 졸업 정원 초과 인원은 7학기 등록시 졸업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게 하였다.

1983년 2월 개정된 졸업 정원제 관리 규정에 의하면, 정원의 관리는 졸업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학과별로 관리하며, 다만 구제 방법의 일환으로 계열로 모집한 학과 가운데 졸업 정



원에 초과된 학과의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인원을 미달 학과의 미달 인원에 비례하여 충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졸업 정원제 실시 이후 첫 중도 수료자도 생겨났다. 감원 시기는 3차로 하여 매 학년도 말에 실시하는데, 1차는 4학기 이수자 가운데, 2차는 6학기 이수자 가운데, 3차는 8학기 이수자 가운데서 졸업 정원을 초과하는 사람들 중 감원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며, 낙제 과목이 많으면 우선 감원시키고, 감원자에게는 학년 수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졸업 정원 관리 규정은 1984년 2월에 다시 개정되었는데, 당시 시행되던 졸업 정원제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기 졸업제 실시, 유급제 증폭 활용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기 조정에 의해 수업 일수의 변경과 학사 일정에 관한 것들이 일부 조정 변경되었다.

또한 1984년 4월 문교부는 각 대학의 졸업 정원 초과 모집 비율에 대하여 자율화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6월 학력 등위가 졸업 정원 안에 들지 못하는 4학년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학사학위 자격고사」를 대학별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졸업 정원제는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겨졌고, 정원 초과 10% 범위 안에서 4학년에 진급한 수료 대상 학생들도 학사 학위 자격고사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문교부는 대학별 학사 학위 자격고사를 1984학년도 입학생까지만 적용하기로 하였다.

5) 학위 제도

(1) 학위 수여 규정

본교에 대학원이 설치되어 10년이 경과한 1967년 초까지 석사 54명, 박사 7명, 명예박사 6명을 배출하였다. 1961년까지는 1957년도 제정된 학칙에 의하여, 1962년에는 국립 충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1963년 이후는 1963년 7월 31일 훈령 제13호로 제정 공포되어 1964년 2월 1일 및 1965년 4월 20일에 개정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 수여 규정에 의하여 학위가 수여되었다.

학위 수여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대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의 연구에 종사한 자나 연구 실적이 특히 현저한 자에게는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이를 구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문교부는 이러한 박사학위 제도를 강화하고 기존에 실행되던 제도 등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논문이 심사위원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구술 시험과 외국어 시험을 과한다」고 기록하였다. 이 조항은 1965년부터 「외국어 시험은 논문 심사에 앞서 시행하여 외국어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논문 심사를 할 수 없다. 구술시험은 논문이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후에 시행한다'로 개정되었고, 1971년에는 문교부 교육정책심의회 고등교육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사학위 제도의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본교 대학원에서 구제도에 의하여 수여된 박사학위는 연 평균 3명 정도였다. 그러나 박희범 총장은 본교 교수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교수에게 해외 유학을 권장하는 한편, 많은 중진 교수들에게는 구제도에 의한 학위 취득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어학 실력을 증진시키도록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1974년에 11명, 1975년에 42명으로 총 53명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숫자는 본 대학원이 설치된 이래 약 20년간 구제도에 따라 수여한 박사 총수 77명의 65%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1975년 3월 이후부터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해야 되었다.

(2) 학위 수여

이 시기의 졸업생 수는 커다란 변화없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다. 1968년 193명의 학사와 12명의 석사, 5명의 농학박사를 배출하였고, 1969년에는 201명의 학사와 석사 12명, 농학박사 5명을 배출하였다. 1970년에는 학사 210명, 석사 15명, 농학박사 6명이 나왔고, 1971년에는 학사 231명, 석사 13명, 농학박사 3명, 명예박사 1명이 학위를 받았고, 1972년에는 283명의 학사와 9명의 석사, 최초의 경영학 석사 15명, 농학박사 3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어 1973년에는 학사 269명, 석사 20명, 경영학 석사 5명, 최초의 공학박사 2명과 2명의 농학박사, 1명의 명예철학박사가 나왔다. 1974년은 최초로 40명의 의학과 간호학사 26명을 포함 모두 411명의 학사와 석사 20명, 경영학 석사 15명, 공학박사 8명 등 박사 11명과 명예 법학박사 1명을 탄생시켰다.

2. 실험대학의 운영

1) 실험대학 선정과 실시

(1) 실험대학 선정

문교부는 1970년 1월, 교육사상 처음으로 「대학모형 교양교육과정(model curriculum)」을 만들어 교양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어 1972년 6월에는 고등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실험대학의 운영이었다. 실험대학이란 용어는 본래 선도대학(Pilot Institute)을 통칭한 것이었다. 교수진용 및 관리자의 개혁 태세와 능력, 실험 시



설, 도서관의 도서, 교육내용과 방법, 대학 자체의 개선 계획 등을 참고하여 조건과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대학을 선정하여 1973년 3월부터 대학교육의 개혁을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을 말한다.

1973년에 실시한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의 뒤를 이어 1974년 본교가 실험대학으로 선정되어, 당시 27개 학과 중 의예과, 간호학과, 의학과, 체육학과의 4개 학과를 제외한 23개 학과에서 실시되었다. 실험대학 운영 개선의 일환으로 1969년 12월 27일 교양 교육 강화를 위해 신설되었던 「교양과정부」는 1978년 3월 1일자로 폐지되었고, 소속 학생들은 각 대학에 소속시키게 되었다. 「교양과정부」의 폐지에 따라 교양 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 교양 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교과 운영위원회」를 1978년에 설치하였다. 「교양교과 운영위원회」는 교양 교육 과정의 제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양교과의 수업 시간표 작성에 관한 사항, 교양 교과의 교재 선정 및 출판에 관한 사항, 기타 교양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및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대학의 제도

문교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안에 맞추어 본교는 「교육, 연구, 사회 기여」의 능률의 극대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실험대학 운영을 통한 새로운 발전 계획을 세웠고, 1974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였다. 원활한 실시를 위해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실험대학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교무과장 회의와 학·처장 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안을 수립하고 각 대학 교수회의에서 이를 심의 보고하게 하였다. 또한 수정 요구 사항을 다시 연구위원회, 교무과장회에서 심의하여 지침을 확정하여 왔다. 또한 7월 9일 의과대학 강당에서 대학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었는데, 그에 따라 실험대학으로서 실험 실시한 여러 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계열별 신입생 모집 및 전공학과 선택

1973년까지 학과별로 정원에 의해 선발되던 방법을 계열별로 모집하여 1년 동안 교양과정부에서 이수케 하였다. 그 후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참작하여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새로운 제도였다. 전공학과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학생은 1년을 수학한 후에 학과에 배정되었다. 그러나 인적, 물적인 제약 등으로 각 학과별로 대학 학생 정원상의 기준 정원에 배정 상한선을 120%, 하한선을 50%까지로 하였다. 학생에게 전공학과 배정 지원



을 받고 기준 정원의 120%에 미달되는 학과는 전원 1지망에 의하여 배정하였고, 초과되는 학과는 성적순에 의하여 배정하고, 탈락자는 50% 미달 학과에 배정하였다.

② 졸업 학점 이수 및 교과 과정

졸업 학점을 감축 조정하여 교육 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과과정 및 교육 방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가. 졸업 학점 인하

졸업 학점 160학점이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140학점으로 인하되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과제를 부과하여 도서관, 참고서를 이용하여 깊고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교과 과정의 편성 방향

교과 과정의 편성은 법정 교양 과목의 자율화 방안에 의하여 법정 교양 필수 과목은 본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어, 국민윤리, 국사, 영어, 교련, 체육으로 하였다. 교과과정은 종래 노트 위주의 강술과 필기식 강의로부터 모든 수업을 교과서 및 참고서를 쓰는 빠른 속도의 음미식 형태로 전환하고, 재래식 강의를 지양, 예습, 복습, 그리고 숙제를 가미한 연구 과제 제도로 전환하였다.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점의 이수 단위로 1학기 16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였다. 다만 실험, 실습, 체육, 교련 및 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교과목은 32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였다.

다. 교과목의 구성

교과목의 구성은 졸업 학점이 160학점제에서 140학점제로 하향됨에 따라 다음의 교과과정표와 같이 개정하였다. 전공 선택 과목은 인접 학과나 동일계 대학에서 개설하는 과목뿐 아니라 전 교에서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에서 이수하여도 이를 선택 과목으로 인정하되 자기학과 교과과정 표에는 기입하지 않았다.



〈현 행〉

교과 계열	교 양 과 목				전 공 과 목		부전공	교직 과목	합계
	필수	선 택		소계	전공필수	선택			
		제2외국어	기타						
공학	30	3	10	43	46	30	21	(16)	140
농학	33	3	6	42	47~50	27~30	21	(16)	140
인문	33	3	6	42	50	27	21	(16)	140
체육	33	3	6	42	50	48		(16)	140
이학	30	3	14	47	50	22	21	(16)	140
사회	33	3	8	44	50	25	21	(16)	140
의예	31	4	5	40	40	6			86
의학	2			2	159				161
간호	31	3	10	44	108	8		(20)	160

〈개 정〉

교과 계열	교 양 과 목				전 공 과 목			부전공	교직 과목	합계
	필수	선 택		소 계	계열 필수	전공 필수	선택			
		제2외국어	기타							
공학	24	4	14	42	16	40	20	22	(16)	140
농학	24	4	14	42	16	40	20	22	(16)	140
인문	24	4	14	42	16	40	20	22	(16)	140
체육	24	4	14	42	16	40	42		(16)	140
이학	24	4	14	42	16	40	20	22	(16)	140
사회	24	4	14	42	16	40	20	22	(16)	140
의예	22	4	14	40		40	6			86
의학	2			2						160
간호	20	4	18	42					(20)	160

※ 교양 필수 과목은 국어(4), 영어(6), 국사(2), 국민윤리(2), 교련(6), 체육(4)으로 하고 교양 선택 과목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균형있게 과한다.



라. 설강원칙

실험, 실습, 체육 및 교련을 제외한 6학점 및 4학점 과목은 3학점 및 2학점씩 1, 2학기에 걸쳐 설강하고, 3학점 및 2학점 과목은 1학기에 설강하였다. 또한 강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학생들의 자습과 예습의 효과적인 학습 지도를 위하여 3시수 과목은 2일에, 2시수 과목은 1일에 시간표를 배정하였다. 교양 필수 과목은 1학년에 이수하도록 하고, 교양 선택 과목 및 계열 필수 과목은 2학년 2학기 이전에 이수하도록 하며, 전공 및 필수 과목은 매 학기 개설하였고 전공 선택 과목 개설은 학과 당 1학기 6개 과목 이하로 개설하였다. 3, 4학년의 전공 선택 과목은 해당 학과 대학원 학생도 수강할 수 있었으며 수강자 5명 미만의 선택 과목은 폐강하였다.

③ 부전공제

전공 학문간의 상호 연관성이 중요시되어 가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며 다변화하는 사회에 탄력성 있게 대처하고,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게끔 하기 위하여 부전공제를 실시하였다.

계열별에서 학생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임의 학과의 부전공을 위한 필수 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 선택시켜 부전공으로 인정하고, 학적부와 졸업 증서에 기재하여 학문 선택의 길을 넓혀주었다. 단 전체학생과 학과에 개방하지 않고 동일계열 내에서만 실시하였다. 각 학과는 부전공을 필수 과목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직 과정을 부전공으로 인정하였다.

부전공제 교과 과정은 부전공 과목을 어려움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에 시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예비 등록제를 실시하였다. 부전공을 선택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전공 분야의 교과 내용이 익숙해지는 2학년 2학기로 하였고 전공 과목 학점수의 반 이상 이수시킴을 원칙으로 하여 22학점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일계의 공동 필수 과목 중 6학점은 부전공 과목으로 인정하며, 각 학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 필수과목을 16학점 이상 선정 이수시켜 2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인정하였다. 능력별 졸업 제도와 관련시켜 우수 학생에 대하여는 희망에 따라 복수 전공제를 권장하기도 하였다.

(3) 교수 방법 및 내용개선

교수 방법 및 내용개선을 위하여 교수 요목의 작성 및 활용, 조교의 증원, 교양 과목의 교재 편찬, 시청각 교재의 확보 및 센터화, 유급 제도, 평가 제도의 개선, 학점 취득 특별 시험제를 실시하였다.

교수 요목은 학과별로 연구 작성하고 학과장 책임 하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때 과목 간의 중복 여부나 연결성을 검토하고 강의 내용, 참고 문헌, 시험 실시 시기와 각 주별 과제 부과 사항



등을 명시토록 하였다. 그리고 교수 요목은 사전에 발표케 하여 학생이 예비 등록시 활용하도록 하였다.

수업의 철저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험 조교의 증원이 필수적이므로 과제 중심의 강의 과목 3과목당 1명의 조교 배정이 이상적이나 최소한 자연계는 5과목에 1명, 인문 사회계는 10과목에 1명 비율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원생을 실험 조교로 임명, 활용하였다.

본교 학생의 질적 수준과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의 연계성을 참작하고,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양과목 교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우선 국어 및 영어 과목부터 1차적으로 착수하고, 다음 해에 전 교양교재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수업의 과학화를 위한 일환으로 시청각 기재의 종합적인 수준 계획을 작성하게 하고, 교양과정부 내에 시청각센터를 설치하였다.

교양학부 1학년 동안에 일정 수준의 학점 미달자는 재수하는 유급제도는 처음에는 교양과정부 내규로 되어 있다가 후에 법제화되었다.

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해 6등급제로 되어있던 평가 제도를 9등급제로 개정하여 학사 경고 제도와 능력별 졸업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평점은 A+(95-100) A0(90-94) B+(85-89) B0(80-84) C+(75-79) C0(70-74) D+(65-69) D0(60-64) F(0-59)로 9등급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시험은 한 학기당 3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고 평점은 시험 성적 80%, 과제물 20%로써 종합 평가하였다.

신입생으로서 입시 성적 총 순위 2.5% 이내에 드는 자에게는 입학금 납부 종료 후 10일 이내에 영어, 제2외국어(독어, 불어, 중국어 중 택일)의 특별 시험을 실시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학점 취득 특별 시험제를 실시하였다. 이 시험에서 B급 이상의 성적을 얻는 자는 해당 과목을 이수하여 얻은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이수를 면제했었다. 이 제도는 능력별 졸업 제도에 부합되는 것이었고,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 시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 대학 특성화 방안 실시

문교부의 고등교육 개혁방안계획은 1970년에 들어서 논의되어 오다가 1972년에 양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본교는 같은 해 2월 28일 및 29일 양일간에 걸쳐 도서관 회의실에서 지역 대학의 참여에 의한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관련된 지역 대학의 육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대학 계획의 기본 자료로 삼고자 「고등교육의 발전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문교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고등교육 방안을 1972년 6월 27일에 발표하였다. 그 중 「지역 대학 특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역 대학의 중점적 육성을 위해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특성 학과를



중심으로 예산, 시설, 장학금의 중점 지원, 연구비의 우선 배정, 교수 충원 및 연구의 우선 지원, 학생 정원의 중점 증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였다.

1973년 10월 7일에 문교부가 특성화 계획을 1차로 발표하여 전국 18개 대학의 공과계, 농과계, 수산계, 해양계 및 항공계 등 52개과를 특성화 대상 학과로 지정하였다. 이 계획은 1974년부터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본교에서는 축산학과, 농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섬유공학과, 화학공학과 등 5개과를 지정하였다.

이 계획에 의하면 당시 충청남도 지역은 섬유, 금속, 화학 부문을 중점 육성하기로 되었다. 지방대학의 특성화 지침에 따라, 본교는 특성화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오던 중 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공업대학을 공업교육대학으로 특성화시키기로 하였다.

3) 공과대학을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100억불에 이르고 본격적인 중화학 공업 시대로 접어들자 정부는 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기존 공업학교의 증설은 물론, 많은 실업고등학교와 전문학교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종래의 소극적인 교사 양성 방법으로는 일선 공업학교 교사 수요를 따를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우수한 공업고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 본교 공과대학을 공업교육대학으로 개편하여 공업 교사 양성 및 이들의 재교육 전담 대학으로 특성화시키고, 기존 일부 대학의 공업교육과를 1977년 3월부터 폐지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박희범 총장은 본교의 공과대학을 특성화하는데 있어, 1974년 서독 「본」의 경제협력성과 교섭하여 400만 마르크의 무상 대여를 약속받았다. 이 원조는 본교 공과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본교의 특성화 특징은 실험대학 실시와 함께 검토되고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학사 관리·운영의 개선

1) 교양 교육 개선

(1) 교양 교과 과정의 변동

체육 진흥책에 따라 1961년 7월 4일 문교부는 체육 4학점을 8학점으로 강화 배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조치에 따라 본교는 9월 학기부터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양 공통 필수과목의 학점 배정은 국어(4학점), 외국어(4학점), 철학개론(4학점), 문화사(4학점), 자연과학개론(4학점), 체육(8학점)으로 되었다. 그러나 5·16이후 대학생의 군사 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문교부



는 1969년 5월 27일 체육을 10학점으로 인상하되, 한 학생이 체육 4학점, 교련 6학점을 이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맞추어 본교도 학칙을 변경하고 교련을 실시하였다.

1970년 문교부가 발표한 「대학 모형 교양교육 과정」에 의하여 교양 과목은 국어(4), 영어(6), 제2외국어(6), 철학개론(3), 문화사(3), 체육(4), 국민윤리(4), 교련(6, 남자만) 등의 36점과 교양 선택 과목 12학점을 합한 총 48학점 선이었다.

1970년 2학기에는 교련을 6학점으로 끌어올려 종전 1, 2학년까지만 하게 되었던 것을 3학년까지 하도록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학생들에게 반공교육을 받도록 권장하여 1970년 8월에 학칙을 개정하고 충남대학교 훈련 82호로 공포하여 교육 과목에 국민윤리(4학점)를 추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민 주체성의 고양을 위하여 1973년 신학기부터 국사 과목을 교양 필수과목에 삽입하도록 권장하여 교양 과목에 2학점을 추가하였다. 문교부는 실험대학을 통하여 추진 중에 있는 점진적인 전환을 위하여 교양 과목 학점수를 변경하였다. 즉 전공 과목 85학점이 과중하다고 보아 대폭 줄인 72학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신 사회 각 분야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도록 선택 과목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다.

(2) 교육 방법 및 내용

상기한 바와 같이 이제 교양 교육은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강의 시간표는 우선 교양과정부가 작성하여 각 단과대학으로 넘겨졌고, 교양과목이 타 과목에 비해 우선적으로 설강되었다.

1974년도부터 신입생이 계열별로 모집됨에 따라, 과별이 아닌 계열 반으로 바뀌고 신입생은 교양과정부 학생이 되었다. 그동안 교양과정부에서는 외국어 교육, 특히 영어 교육 강화에 노력하였다. 1학년에서만 시행되던 영어를 1969년부터는 2학년에서도 하도록 하였다. 1968년에는 처음으로 외국인이 교양 영어를 가르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1969년에는 휴대식 테이프 레코더 5대를 매입하여 외국어 시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1974년에는 교양과정부에 시청각 교육시설인 어학실습실을 설치하였다. 3월 1일부터 1주일에 3시간 중 1시간은 시청각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학 교육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교양 교육 강화책으로 성적 불량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성적 불량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1971년 6월 19일 계절 강좌 규정을 만들어 7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교양 교육의 강화책의 일환으로 유급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유급제도란 교양학부 1학년 동안에 일정 수준의 학점 미달자는 재수하는 규정으로, 처음에는 교양과정부 내규로 되어 있다



가 후에 법제화되었다.

그동안 외국어 교육의 강화 목적으로 진행되던 교양과정부는 1974년 실험대학 실시 후 박희범 총장의 외국어 교육 강화책으로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 학칙 제40호에 의거 외국어 검정 고시제도로 실시되었다. 출제 범위는 수강 내용 50%, 일반 문제 50%였으며, 계열별로 차등을 두었다.

(3) 기타 과외 교양 교육

영어 등 교양 교육의 강화와 함께 학생들의 수업 외적인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1969년부터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문예, 종교, 과학 등 제 분야에 대한 특별 강좌를 매월 1회 열었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독서열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고전을 읽힌 후 독후감을 제출하게 하여 국어, 국사, 철학개론 등 성적에 따라 각각 10%정도 반영하였으며, 독후감 발표대회를 열어 우수자를 표창하기도 하였다. 우수자들을 더욱 지도하여 전국대학생 자유교양대회에서 1974년 및 1975년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 대학원 교육 개선

대학의 교양 교육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많은 전공 강좌를 대학원 교육으로 넘기려는 추세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대학원 교육은 다소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1968년 이전의 대학원은 원장 1명과 사무직원 1명으로 도서관의 방 한 칸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이었다. 1968년 강진형 총장이 대학원장에 보직되고, 1970년 대학원의 초대 교학과장으로 화학과 박종희 교수가 임명되면서 대학원 행정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1971년 3월 22일 충남대학교 신문사가 주최한 “대학원의 실태와 전망”이란 좌담회에서 강진형 대학원장, 이창갑 교무처장 및 박종희 대학원 교학과장은 3월 1일자로 학칙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교과과정을 대폭 쇄신하겠다’고 말하고, 대학원 교육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후 대학원 교과과정은 몇 차례의 수정 보완을 거듭하여, 종전까지 강좌당 2학점이었던 것을 1974년 실험대학 실시와 더불어 3학점제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학원 운영상 특기할 사항은 1973년 10월 15일부터 대학 교원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원에 외국어 훈련과정을 개설한 것이었다. 과정은 영어, 독어, 불어, 일어 등 4개 외국어로 각 과목은 3개월 과정으로 방학 중과 방학 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수강 자격은 대학원생 및 조교 이상의 교원으로 희망자에 한하되 소정의 강좌료를 내도록 하였다.



1976년 3월에 대학원 교육 개선 방안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본교의 대학원 교육은 정상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종전에 학과별 정원제에서 계열별 정원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의 인력 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1979년 석사학위 과정은 공학계열 7학과, 농학계열 5학과, 인문학계열 4학과, 이학계열 3학과, 사회학계열 3학과, 의학계열 2학과로 총 6계열 202명 정원이었으며, 박사학위 과정은 공학계열 2학과, 농학계열 5학과, 인문학계열 3학과, 이학계열 2학과, 사회학계열 2학과, 의학계열 1학과로 총 6계열에 정원은 103명 이었다.

계열의 세분화와 개편을 거치면서 1989년에는 석사학위 과정에 9계열 52학과 즉, 인문학계열 10학과, 이학계열 8학과, 공학계열 13학과, 농학계열 12학과, 법학계열 2학과, 경상계열 2학과, 의학계열 2학과, 약학계열 1학과, 가정계열 2학과로 정원이 860명으로 증가하였다.

박사학위 과정 역시 8계열 38학과 즉, 인문학계열 8학과, 이학계열 6학과, 공학계열 8학과, 농학계열 10학과, 법학계열 2학과, 경상계열 2학과, 의학계열 1학과, 약학계열 1학과로 총 정원이 384명으로 계열 및 학과 수, 그리고 정원이 대폭 증가되었다.

경영대학원은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전문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 3월 1일에 경영학 석사 과정 및 경영자 과정으로 개원하였다. 그 후 1986년에는 최고 경영자 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지역 사회 상공인들의 전문 경영 능력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교육대학원은 1973년 3월 10일 설립 당시에 10개 전공 내 30개 세부 전공, 정원 200명으로 개원되었는데, 1989년에는 14개 전공 내 36개 세부 전공, 정원 365명으로 발전을 하였다. 본교의 교육대학원은 계절제 강의를 하는 특성상 재학생들은 대전·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취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학생의 주류는 대전·충남 지역의 교사로서 이 지역의 현장교육의 전문성 제고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내 다른 교육대학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입학 경쟁률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행정대학원은 공공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 과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 3월 1일에 행정학 석사과정 모집 정원 40명으로 개원한 이래 1982년에는 관리자 과정을, 1984년에는 최고 관리자 과정을 신설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유관 인사들의 행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보건대학원은 보건의 학문적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 방법으로 교수하고 연구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고 독창력을 함양하며 유능한 보건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3월에 보건관리·환경관리·역학 및 통계학 등 3개의 전공 과정을 가진 석사과정으로 개원하였다.

1970년대에 마련된 안정된 기반 위에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과 증설, 입학 정원의 증원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지역 사회의 전문 인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대학원도 중전의 경영대학원과 교육대학원 교육의 확충 강화는 물론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설치하여 더욱 더 강화하게 되었다.

3) 방송통신대학 위탁 교육

정부는 1972년 3월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3월 9일에 서울대학교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부설토록 하였다. 이는 초급 대학 과정으로 학기동안 심야와 조조에 강의를 하고,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에 서울대학교와 지방 협력 학교의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매 학년 4주(160시간 이내)의 출석 강의를 받아 소정 학점을 이수하면 수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본교와 공주사범대학, 그리고 공주교육대학이 협력 학교로 지정되어 충청남도 지역의 경영학과, 행정학과, 농학과 약 400명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경영학과와 행정학과는 교양과정부에서, 농학과는 농과대학에서 1일 평균 8시간을 수업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 2학기에 가정학과 교육이 공주사범대학에서 이관됨으로써 본교 이과대학에서도 출석 강의를 실시하였다.

4) 교수 임용 제도 개선

정부는 1969년 8월 11일, 이제까지 시행해오던 교수 임용에 관한 심사위원회 규정을 다시 제정하여 대통령령 제4007호를 공포하였다. 이 규정에서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당해 대학의 각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각 대학의 학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대학인사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는 조항을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대학교에 있어서는 교무처장이 되며, 대학에 있어서는 교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인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로 바꾸고, 이전에 없던 별도 항목을 첨가하였다. 이로써 교수회의가 인사 문제에 간여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수의 인사권이 총장과 학장에게 일임된 것이었다.

1970년대 들어오면서 정부는 대학 교원의 계약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이는 구미 각 대학과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던 것이나, 국·공립대학에서는 실시되지 않던 제도였다. 이에 정부는 대학 교원들을 일정 기간마다 재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가 드디어 1975년 7월 23일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대폭 개정하여 대학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두어 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1975년 9월 15일에 교수재임용 심사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 제7809호로 공포하여 각 대학에 시달하였고, 본교에서는 1975년 10월에 박희범 총장이 심사위원을 선정 임명한 가운데 극비리에 심사를 마치게 되었다.

1976년에 교수 재임용제를 시행한 후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하여 교원 임용 규정을 제정 활용한 점과 명예교수제의 도입이었다. 충남대학교 교원 임용 규정은 1981년 3월 20일 훈령 제363호로 충남대학교 교원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인사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본 규정에 따르면,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 모집 또는 소속 대학장의 추천에 의하되 필기 시험(영어), 면접 시험 및 서류 심사로 전형하였다.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 외국에서 2년 이상 연수한 자와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의 경력자 및 학계에 특히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필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용 후보자의 연구 실적 심사는 동일 전공 교내 인사 상위직 2인, 교외인사 1인으로 총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연구 실적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승진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의 내신을 받아 총장이 임명 제청하며,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 기간은 전임강사 → 조교수 2년, 조교수 → 부교수 5년(박사학위소지자는 4년), 부교수 → 교수 7년(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다. 승진 임용 심사 기준은 첫째, 연구 실적 및 전문 영역의 학술 활동, 둘째, 학생의 교수 및 생활 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셋째, 교육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이었다.

그 후 1982년 4월 15일 훈령 제413호로 교원 임용 규정이 개정되어 자격과 임용 방법 등에서 강화되었다. 1982년 4월에 학무회의를 거쳐 통과된 내용에 따르면,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 선정 방법에 있어 공개 모집, 총장의 개별 임용에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첨가했고, 전형 방법에 서류 심사를 첨가하였으며, 신규 임용 후보자의 연구 실적 심사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명예교수 제도는 1987년 4월 명예교수의 자격 및 추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충남대학교 명예 교수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본 규정에 따르면 명예교수의 자격은 본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5년 이상 근무하고 교수 또는 총장으로 퇴직한 자이거나 재직 중 교육·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하였다. 명예교수 추천위원회는 대학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였다. 학장이 명예교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피추천자가 퇴직한 후 3개월 이내에 명예교수 추천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추천한다. 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이며, 처우는 강의와 연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학생(복지)

1. 학생활동의 변화

이 시기의 학생활동은 1968년부터 1970년대까지 충남대학교 학생자치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기에 국내의 정치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역동적이어서 본교학생들도 1971년 「교련강화 반대 성토」, 1974년 10월 시위 등이 있었다. 1975년도에는 학생자치제가 없어지고 학도호국단이 재설치되었고 1980년 5월부터 학생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1984년 학도호국단 제체가 폐지되어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가 부활되어 본격적인 학생활동이 꽃피게 되었다. 1985년 본교 총 동아리연합회가 발족되어 각 동아리의 활동지원과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장학제도도 다양해지면서 후생복지기구 및 시설의 확충이 활발해졌다. 1987년 8월 19일에 본교에서 제1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가 결성되어 해체되기 이전까지 각종 정치일정에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 학생자치제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약 3년간은 본교 학생회가 의욕적으로 여러 분야에 활동을 개시하여 학생자치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학생 자치 활동의 핵은 총학생회로서 1968년 3월 12일 제1학기 예산안을 가결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날 통과된 본 예산안 중 특색 있는 항목은 의과대학 신설을 자축하는 체육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기 위해 체전비와 행사비가 증가됐고, 이미지 쇄신을 위해 「뱃지」를 개정기로 한 것이었다. 당시 총학생회장을 겸하고 있었던 조성근 대의원 의장은 인사를 통해 “짧음과 패기로써 일심 협력하여 새로운 충남대학교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일을 마련하자”고 하여 자치 활동에 대한 의욕을 피력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1968년도의 자치활동은 개교 16주년 기념 보운 축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당시 김영목 총장은 개교 16주년 기념사에서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이라고 하여 새롭고 훌륭한 전통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학생회의 제일 큰 행사중의 하나는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이다. 1968년 6월 20일에 실시한 선거는 전교생의 95%가 참여하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총 투표자 1,078명 중 386표를 얻은 윤석관(철학. 3) 군이 제8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1968년 9월 12일에는 8대 대의원 정기 총회를 속개하고 2학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행사비 예



산 중 60%를 여학생 실습비로 전용하여 역대 학생회 사상 처음으로 여학생을 위해 과감하게 예산을 할애했다는 점이다.

1969년 개교 17주년 기념 제5회 보운축전은 5월 22일 밤부터 시작되었다. 특기할 것은 당해를 「사제의 해」로 정해 교수와 학생 대상의 행사가 준비됐으며, 이제까지 가을에 열렸던 「전국 고교생 백일장대회」와 6월에 있던 「충대문학상」 시상식 등이 개교기념일을 기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1969년 6월 21일 9대 총학생회장으로 송기섭(농학)군이 당선되었다. 개교한지 17년이 지나 청년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기에 학문적인 면에서도 타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계기로 본교 농과대학에서는 「전국 농과대학생 심포지움」 13차 대회를 열어 전국 12개 농과대학에서 55명의 학생대표가 모인 이 대회는 10월 31일 농과대학 강당에서 「농민을 위한 곡가정책」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1970년 3월 27일 1970학년도 제1학기 대의원 정기총회에서는 1학기 예산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날 심의된 예산안에는 예년에 없던 학생회 관공비와 예비비가 책정되었고, 이외의 다른 항목에서도 다소 증액되었다. 그 중 사업비가 예산의 75% 이상을 차지하였고, 1969년 예산에 비해 전년비에서 60%가 증액되었다. 1970년 6월 17일로 제10대 총학생회 정·부회장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선거는 예년에 비해 많은 후보자가 난립했는데,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김가성(철학 3)군이 당선되었다. 문리과대학학생회장은 안대혁(영문)군, 공과대학학생회장은 양대수(화공)군, 법경대학학생회장 윤석철(법학)군, 농과대학학생회장 황인출(축산)군, 의과대학학생회장은 최진택(의학)군이 맡았다. 197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끝낸 각 단과대학과 동문회, 서클 등에서는 신입생 환영회를 열었고, 대학생 자치 활동이 시작되었다. 3월 20일에는 일본 관서대 학생대표단 20여명이 방문해 본교 학생대표단과 좌담을 나누었다. 학생활동은 민간 외교의 일익을 담당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4월 9일 총학생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예산심의를 거쳐 어학 실력을 배양하고, 학생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어학연구소의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4월 10일에는 문리과대학 학생회 주최로 제1회 태극제가 실시됐다.

이때 국내 정세는 요동을 치고 있었는데 본교 학생들은 1971년 「교련강화 반대 성토」대회가 4월 15일과 16일에 법경대학과 문리과대학에서 벌어졌다. 15일 오후 2시 30분경 100여명의 법경대학 학생들은 교련 강화를 반대하는 대회에 나섰으나, 급거 출동한 기동경찰과 대치하다가 다시 교정으로 들어갔다. 교련 강화로 인한 학원 자주성 침해, 학원 사찰 즉각 중지, 서울의 일부 대학 휴교령 철회 등을 외치며 문리과 대학 201강의실에 들어가 농성을 계속 했다. 그러나 이날 밤 11시경 교수들의 만류로 해산했다. 한편 4월 16일에는 문리과대학을 주축으로 15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 교정에 모여 교련 반대 성토 대회를 열고 시위에 나섰다. 이날 학생들은 교



런 반대, 휴강조치 철폐 등을 결의하고 데모에 나섰다. 그러나 이때에도 교수들의 만류로 오후 3시경 해산했다.

학생회 활동의 눈부신 활약상은 3월 26일 회장단이 대전시를 방문하고 최재영 시장 및 최영섭 시 건설국장을 만나 본교의 주변 도로 포장 및 주변 건물의 무허가 난립 단속 등 시정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졌다. 1971년 4월 16일부터는 제1회 공축제가 공과대학학생회 주최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1971년 9월 14일 오전 11시에 교양과정부 대의원들은 교양과정부 옥상에서 단과대학으로부터의 예측을 지양하고, 독립 자치 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성토대회를 가졌으나 30분의 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정상 수업에 임하였다.

1972년 개교 20주년을 맞아, 학생회 주최로 개교 20주년 기념 제8회 보운축제를 성대히 치루었으며 전국 휘호대회, 직장 초청 축구대회 등이 있었다. 한편 도민체전에서는 대학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세계 대학생 학회에 참가한 세계 10개국 24명의 학생대표를 본교로 초청해 우방의 우의를 다졌다. 외국 학생들을 본교 학생들이 집으로 초대하는 ‘Home-Stay’를 실시함으로써 민간 외교의 좋은 전례를 남기기도 했다. 1973년 6월 11일 성년 충남대학교의 약진을 다짐하며 개교 21주년 기념 보운축제가 있었고 6월 20일은 72%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제13대 학생회장단을 선출하였고 총학생회장은 김철환(철학)군이였다. 의과대학 학생들은 1972년 8월 1일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이 개원식에 참석하였는데 1972년은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들과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 실습교육과 교수들의 연구를 위한 대학병원이 마련된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의과대학 학생회도 1대 최진택, 2대 김한호, 3대 송재의, 4대 홍정의군을 학생회장으로 하여 의행제, 사제 간의 운동경기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1974년 전국의 학생 소요는 긴급조치 해제에 따른 구속 학생 석방을 위한 진정 서명에서 시작하여 개헌을 요구, 구국 선언 등의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본교 학생 800여명은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본교 종합운동장에서 개헌 요구, 학원의 자유 보장, 구속 학생 석방을 위한 성토대회를 가진 후, 문리과대학 운동장으로 들어가 시위를 계속했다. 학생들은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후 학생 소요는 본교 중앙도서관에서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철야 단식을 하면서 농성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본교는 10월 15일부터 학생 스스로가 수업정상화 분위기를 조성할 때까지 무기 휴업(의과대학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14일에는 데모 선동 및 수업 진행을 방해한 이유로 6명을 제적시키고 11명을 무기정학 처분했다. 11월 초 본교는 학생들의 시위 행동을 막고 휴강 중인 학교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한 조치로 학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 친권자 한 사람과 부 보증인으로 대전 시내 거주자 1명 등 2명의 연대보증을 하는 서약서의 내용은 “새로운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앞



으로 학칙 준수, 학구 활동 등에만 전념할 것이며 만약 학칙에 위배되거나 불명예스러운 언동을 했을 때 학교 당국의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다. 한편 학칙 53조에는 시위 행동 등을 하면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 재량으로 제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학생 시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친권자가 보증인으로 된 서약서 외, 각 단과대학별로 학생 2명이 연대보증 하겠다는 또 다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좌 처벌 제도를 적용하였다. 동료 학생 2명이 연대 보증하는 서약서를 받고 각 단과대학별로 학장들이 개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서약서는 학부모의 반발이 있자 받지 않기로 하고, 친권자 등이 보증인으로 된 서약서 1통과 지도교수의 확인서를 받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후 본교는 서약서를 받고 각 단과대학 별로 개강에 들어갔다.

대전시 대흥동에는 의과대학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함께 있었고 의과대학은 의학과와 간호학과가 있었다. 1971년 가을에는 의과대학의 축제인 의행제가 처음 시작되어 의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단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국가고시를 봐야 하는 의과대학의 학생은 1974년 2월 11일 발표된 간호원 국가고시에서 본교 간호학과 졸업생 26명 전원이 합격한데 이어 2월 28일에 발표된 의사국가고시에서도 의학과 학생 40명이 100% 합격하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제1기의 학생들의 학문적인 실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다. 오랫동안 충청남도 도민의 숙원으로 1967년도에 설립되어 신설 당시부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커운 의과대학이 확고한 체제를 닦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1974년 2월 16일 의학과와 간호학과 졸업생 66명(의학과 4학년대표 금동인, 간호학과 4학년대표 백영의)은 2월 16일 송주호 학생처장과 의과대학 교직원 및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기념으로 모교에 「히포크라테스 흉상」 제막식을 가졌으며, 당일 오후에는 사은회를, 22일에는 환송회를 갖고 사제와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었다. 히포크라테스 흉상은 1985년 의과대학 이전과 함께 훼손되어 1986년에 충대의대 제1회 졸업생(강대영외 39명)이 새로 경비를 부담하고 충남대학교 조소과의 남철교수에게 의뢰하여 새로 제작하여 의과대학에 세우고 의학과 학생들의 소명 의식을 기리고 있다. 1975년은 의과대학 2기 졸업생으로 의학과 학생 46명(의학과 4학년 대표 백태현)과 간호학과 학생 33명(간호학과 4학년대표 김정분)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이팅게일상을 민성래 교수(현 성신여대교수, 당시 흥대 조소과 출신)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후 모교에 기증하였다. 이 동상도 이전하면서 훼손이 되어 간호학과 동창회에서 충남대학교 조소과의 남철교수에게 의뢰하여 1987년 5월 25일 나이팅게일상 제막식을 하고 간호학과 학생들의 소명 의식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 1975년 3월에는 의학과 동창회(초대 의학과 동창회장: 강대영 교수)와 간호학과 동창회(초대 간호학과 동창회장: 백영의)로 나누어져서 각 전공별로 동문회를



이끌어나가기로 하였다.

2) 학도호국단 및 학생활동

1975년 4월 30일 월남의 적화 이후 1975년 5월 13일 15시를 기하여 대통령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었다. 정부는 1975년 6월 7일 대통령령 제7645호로 학도호국단 설치령을 공포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학생활동은 학도호국단의 편제로 개편이 되었고 학도호국단의 모든 간부는 임명제로 바뀌고 말았다. 학도호국단의 설치령에 의하면 문교부에 중앙 학도호국단을 두게 되었다. 이로써 학도호국단은 1949년 4월에 창설되었다가, 4·19직후인 1960년 5월에 해체되었고, 다시 15년 뒤인 1975년 6월에 부활된 셈이었다.

본교의 학도호국단 발단식은 1975년 6월 27일 오전 10시 본교 종합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발단식에는 단장인 박희범 총장을 비롯하여 교내·외 기관장과 전 교직원이 참석하였다. 식순에 따라 진행하였고 학도호국단원을 대표하여 오성근(토목,3) 사단장이 “배우며 지키는 호국학도의 사명을 다 할 것”을 맹세하였다. 그리고 학생들과 동창회원들이 모금한 11만 4천원을 방위 성금으로 전달했다. 발단 당시 본교 학도호국단은 7개 연대, 27개 대대, 73개 중대로 편성되었고, 당시 단원수는 3,500여명이었다. 또한 부서를 분담하여 국가 안보에 관한 정신 교육 강화, 면학분위기 진작, 군사훈련실시, 새마을 운동 참여, 각종 봉사 활동 참여, 전시 하 지역 방위 분담, 구호 사업 전개, 파괴 시설의 복구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제1회 학도호국단 발단식은 1975년 11월 14일 오전 10시 본교 종합운동장에서 실시되었다. 박희범 총장을 비롯한 교내·외 인사와 4학년생을 제외한 본교 단원들의 질서정연한 시범을 보여 호국학도로서의 자세를 보여 주었다. 이날의 행동 강령은, 배움과 훈련에 전념하여 내일의 실력있는 지도자가 되며, 멸공호국에 앞장서서 민족의 시련을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역군이 되며 민족사의 전통을 이어받아 겨레의 중흥을 이룩하고 자주와 긍지를 이 땅에 심는다는 것 등 3개 항이었다. 이 검열로 본교의 학도호국단 조직 및 운영 실태는 종합적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76년 2대 학도호국단 사단장은 이태연(농학), 1977년 3대 학도호국단 사단장은 육근억(물리), 1978년 4대 사단장은 최용순(행정), 1979년 제5대 사단장은 이장효(영문)이었다. 한편 의과대학 진료 봉사서클은 충남의 무의촌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 발견, 예방 진단 및 환경위생 개선, 계몽 등을 펼쳤다.

1978년은 의과대학 창립 10주년의 행사로 의과대학 학도호국단이 주최하여 의학전시회를 의대실습실, 강의실에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개최하여 지역사회에 의과대학 홍보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사회의 호응은 대단히 컸다. 이때 서클대항 체육대회, 의행축제, 시민건강강좌, 음악제 등도 함께 개최되었고 성황리에 마쳐 의과대학의 기개를 지역사회에 보여주었다.



유신체제가 붕괴되자 1980년 민주화의 봄이 시작되고, 학도호국단 체제 하에서 위축되었던 학생운동도 학원 내의 자율적 분위기로 새로운 활개를 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0년 5월 1일부터 계엄포고 10호가 발표된 17일까지 본교에서는 연일 학생 시위가 계속되었다. 계엄령 해제와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외치며 본교 학생 5천여 명이 연일 시위에 참가하였다. 약 16일간의 계속된 시위와 철야농성, 대전역까지의 가두 행진 등 힘찬 학생들의 시위는 5월 17일 자정을 기하여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학내에 진입한 무장 군인들에 의해 충남대학교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1980년 5월 18일 전라도 광주에서 광주민중항쟁이 터지게 되면서 학생운동은 더욱 정치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1981년은 충남대학교 역사상 한 기점으로 대덕캠퍼스로 대학본부의 이전에 따라 농과대, 의과대,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부속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었다. 이 와중에도 학생들은 군사독재타도, 반외세 척결, 민중을 주체로 한 통일논의 등으로 학생운동을 진행하였고 빈번한 학사일정의 차질이 지속되었다. 1981년 6월 14일에 대흥동에 있는 의과대학중간호학과만 도서관 건물이 있었던 문화동 보은캠퍼스로 이전하였다. 학생들은 대흥동과 문화동 캠퍼스를 오가면서 수업을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1982년 개교 30주년 기념식에서 서명원 총장은 ‘우리는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도약의 주인공은 우리다’라고 하며 ‘새로운 학풍을 정립하고 충남대학교가 도민의 대학에서 세계속의 대학이 되자’고 하였다. 학생회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학생들은 하계봉사활동에 29개반 900여명이 참가신청을 하여 공부와 봉사를 함께 하는 의식있는 대학생상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6월 5일 학생회장 선거를 하여 새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1982년은 충남대학교뿐 아니라 학생활동에 관한 많은 자료를 담은 충남대학교 30년사와 충대신문 30년간을 모은 충대의 발자취(충대신문사 편)가 발간된 해이기도 하다.

1983년 9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임명이 있었고 11월에는 10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선거가 있었다. 9월에는 문과대 학도호국단 여학생부에서 밝고 명랑한 캠퍼스조성의 일환으로 학내 학생회관 우정의 집 등을 청소하였다.

3) 총학생회 부활 및 학생운동 참여

5공화국 출범 이후 전두환 대통령은 재야, 학생운동에 대해 강온양면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학원에 정·사복 경찰을 투입시켜 학생 시위를 진압하면서 유화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갔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84년 총학생회의 부활이었다. 그동안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자치활동과 학생운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온 학도호국단 체제가



1984년 폐지되고 학생 자치기구인 총학생회가 부활되어 본격적인 학생운동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84년에는 제적생 복교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학원 자율화가 취해지면서 학생운동은 학원 자율화 추진위원회의 결성과 총학생회의 부활로 전국적인 연합체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1985년 학생회가 형식적으로나마 합법화되는 조건하에 전국적 단위로 학생운동의 통일과 조직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투쟁력을 배가하려는 목표로 '전학련'을 결성했으나 전학련은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지도부만의 형식적인 결합에 지나지 않았다. 대덕캠퍼스에서 총학생회가 전국적인 학생운동직임에 따르고 있던 와중에도 의과대학 학생회는 학생 실습지인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의과대학의 이전에 따른 혼란한 시기에도 보운축제와 국가고시 준비에 전념하였고 사제간의 보은과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 1985년말 환경문제연구회를 통해 의대학생운동조직이 탄생하고 뚜렷한 학생운동의 방향은 없었으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생회가 탄생되었다.

이미 1985년 하반기부터 잠재적으로 분리되고 있었던 반미중심의 운동과 반파쇼 중심의 학생운동은 1986년 상반기에 더욱 분명하게 이론적으로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발족식에서 1,525명의 학생이 연행되어 그 중 1,290명이 구속되고, 연말에는 금강산땀 사건 날조로 반공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정권의 물리적 탄압이 강화되게 되었다.

1987년은 학생들이 본연의 학문탐구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회 활동이 시작되는 해였다. 5월 15일 법과대 학생회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은혜제를 개최하였고 5월 16일은 여학생 기숙사인 은행사를 일반학생들에게 공개하는 은행사 오픈하우스 행사가 있었다. 씨클은 탈출연구반, 영어회화반(영어용변대회개최)합창단, PTP 창립 5주년 행사가 있었다. 경제학과에서는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왜곡된 대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문연구기관으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학생논문현상모집을 하고 발표회를 갖기로 했다. 시상은 총학생회, 경상대학 학생회, 경제학과 동창회에서 후원하기로 하였다(충대신문, 608호). 5월 19일에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학내민주복지 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한종구 총부학생회장(경제학과)이 맡아서 학내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학내의 언론, 출판과 서클, 후생복지 문제를 척결해나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학내복지문제에 관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등록금 분할납부를 건의하여 2학기에는 등록금 분할납부제가 실시되었다. 개교 35주년 기념행사인 백마대동제가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덕캠퍼스와 보운캠퍼스에서 각각 성대하게 열렸다.



1988년 6월 1일 6·10 남북청년학생회담 성사를 위해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의장단 회의가 충남대학교에서 열렸고 11월 15일 20대 정·부학생장 선출이 있었다. 충대신문 627호를 보면 개교 36주년을 맞이하여 살아있는 역사 충대 36년이 실려있는데 전쟁 중에서 지방민의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충남대학교의 역사에는 때로 펜을 내려놓고 모순의 시대에 과감히 뛰어든 학생들의 노력과 업적들이 충남대학교의 발전에 초석이 되었다고 하였다. 의과대학은 1987년에 농촌봉사활동과 통일운동을 하였고 1988년에는 의과대학 학생회 주도로 실시한 농촌계몽활동이 시작되었다.

4) 학생관련 간행물

1971년은 많은 학술지의 발간과 함께 각종 봉사단의 낙후된 지역 사회에서의 하계 봉사라든가 학생회 자체를 투시해 보는 「학생회 내일의 좌표를 위한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장차 학생자치 활동의 활력소가 되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진을 말해주고 있다.

1971년 농과대학에서는 춘계 최범열 박사 송수 기념호로 계간 농과대학 학보 「대지」 12호를 발간하기도 했다. 1971년 문리과 대학에서는 문리과대학 교지 「상원」 제5집 원고 모집을 실시해 9월 중으로 발간할 예정임을 전교생에게 알려 점차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1971년 공과대학 학생회에서는 「천근」 창간호 원고를 모집하였고, 1971년 교지 「보운」 창간호가 7월 10일 간행되었다. 국판 32페이지로 선을 보인 「보운」 창간호는 「사회개발과 대학의 역할」이란 특집과 교수 학생의 논문, 문예 작품 및 화보 등을 수록하였다. 1971년 2학기 11대 학생 회장단 출범과 동시에 교양학부 「교양」 편집위원회는 교수, 선배, 교양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1973년이 되자 그 동안 단과대학 학보와 교지 「보운」이 따로 편집되던 것을 통합하게 되었다. 「보운」 제2집은 여러 사정으로 발간되지 못했고, 1973년 2월 20일자로 단과대학 학술지를 통합해 종합 교지로 뒤늦게 선을 보였다. 의과대학에서는 제6연대의 행편집실에서 1979년 의행지가 창간되었고 이때 연대장은 의학과 성인환이었으며 의학과와 간호학과 학생들이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5) 씨클과 학회를 통한 학생활동

대학생활에서 진리 탐구와 학생의 씨클 활동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학문을 실천하여 완성하는 전인교육이 바로 이상적인 대학 생활인데 대학생의 씨클 활동은 인격 도야에도 커다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알찬 대학 생활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된다. 곧 씨클활동은 대학 낭만의 산실이자, 제2캠퍼스라고 할 수 있다.



1968년부터 1989년 상반기까지의 학생 서클 활동, 학술 활동 등은 상당히 활발하였는데, 현황과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클 현황과 그 방향

1968년에는 본교 서클 등록수가 10여 개에 불과하던 것이 1975년에는 72개로 증가하였다. 확장기에 과외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으며, 서클의 활동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1968년 이전에 창립되어 활동을 해온 서클로는 「보운문학회」(1962), 「항명회」(1963), 「녹향회」(1964), 「대학불교연합회」(1964), 「씨알모임」(1964), 「4H 연구회」(1964), 「가톨릭학생회」(1966), 「은파회」(1966), 「유네스코학생회」(1966), 「대학생연합선유회」(1967) 등 10여개 였다. 이 시기에 창립된 서클을 연도별로 보면 1968년(「태권도부」, 「방송부」, 「축구부」), 1968년(「The Angles」, 「지개들」), 1970년(「씨네마크럽」, 「공우회」, 「들벗모임」, 「무지개」, 「보운극회」), 1971년(「농촌문화연구회」, 「런닝클라우드」, 「DIALOG」, 「R.C.Y」, 「사자회」, 「기독교학생회」, 「충대연합산악회」, 「원두막」, 「햇들회」), 1972년(「Nadder Club」, 「베틀회」, 「Slide Scale Club」, 「합기도」, 「청법회」), 1973년(「한들」, 「String Harmony」, 「고전음악감상회」, 「그리미」, 「연자회」, 「A B」(개미와별), 「교양독서회」, 「독일어연구회」, 「대학생선교회」, 「독서동우회」, 「보운기원」, 「한마루」), 1975년(「영화감상회」, 「심령과학회」, 「성지단」, 「중국어회화동인회」, 「보운문학회」, 「청우회」, 「M.P.A」, 「대전 레오크럽」, 「I.L.B」, 「덩쿨들」, 「의암회」, 「수레들」, 「의진회」, 「C B Scorp」, 「충대 Y」, 「뉘시회」, 「PTP」), 그 외 「경영동우회」, 「소라회」, 「ORION」, 「충대문학회」, 「충대서예연수회」, 「홍사단 충남아카데미」, 「ENGLISH I.V.Y」, 「주춧돌」, 「충대수석회」, 「이젤스」, 「충대육체미부」, 「충대의과대학테니스클럽」, 「록우회」, 「구나회」, 「무도회」, 「Alpha & Omega」, 「문리과대학합창단」, 「보운합창단」 등이 이 시기에 창립되었다.

1971년 11월 6일 서클 지도교수 회의의 결정과 일부 개정된 학칙에 의거하여 서클 재정비를 위해 재등록을 받았다. 12월말까지 재등록받아 문교부에 보고할 서클의 대상 범위는 학칙 제53조에 있는 바와 같이, 종교 단체 및 순수한 학술 연구 활동 또는 학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1972년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각 서클 등록을 실시하였는데, 학칙이 인정하는 학술, 종교, 봉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총 30개 서클이 생활지도연구소에 등록을 마쳤다. 이때 등록된 서클은 대개 기존 서클들이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서클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2학년 등록된 서클은 「카톨릭학생회」, 「경영동우회」, 「공우회」, 「대학생연합선유회」, 「레더크럽」, 「들벗모임」, 「디 앵글스」, 「The English IVY」, 「록향회」, 「루까회」, 「무지개」, 「베틀회」, 「사격



회], 「소라회」, 「씨알모임」, 「CRC」, 「원두막회」, 「영어회화서클」, 「ORION」, 「은파회」, 「지게들」, 「충농4H연구회」, 「충대기독교학생회」, 「충대유네스코학생회」, 「합기도」, 「햇들회」, 「항명회」, 「홍사단충남대아카데미」 등이 있다

한편, 1972년 11월 28일 본교 제122호에 의하여 10조로 된 학생 서클 운영 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같은 해 12월부터 적용되는 규정 내용을 보면, 체육단체, 종교단체, 또는 학술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한하여 조직할 수 있고, 구성은 반드시 지도교수를 1명 이상 추대해야하며, 회원은 본교 학생 10명 이었다. 모든 행사는 지도교수 책임 하에 시행하되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집행하도록 하였다. 행사 집행 후에는 3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생활지도 연구소에 제출해야 하였고 신규 등록 서클은 서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1974학년도에는 종래 가입된 33개 서클의 재등록과 신규 12개 서클이 추가되어 45개 학생 서클이 등록되었다. 1975년도에는 비교적 많은 서클들이 등록하였다. 그간 활동했던 62개 서클 중 8개 서클이 탈락된 반면, 18개 서클이 새로 창립되어 총 72개 서클이 활동하게 되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과외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과외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975년 5월 2일 본교 교양과정부 대강당에서 우수 서클 시상식이 박희범 총장과 교무·학생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고 최우수상은 「교양독서회」, 우수상은 「경영동우회」, 「유네스코 학생회」 등 2개 서클이 받았다.

충남대학교 신문사에서서는 1969년 3월에 본교 10개의 서클 대표자가 참석하는 「학내서클 현황보고」라는 제목으로 좌담회를 마련하였다. 좌담회에서 참가자들도 각 소속 서클의 소개와 서클 활동의 목적, 책임, 침체요인 등에 대하여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각 서클 대표자들은 과외 활동이 학문적 연구의 실천 과정이어야 하며, 자각과 사회 참여로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서클에서 소외의식은 성의 부족이며, 회원간의 융화문제는 모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서클의 침체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집회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충남대학교 전체서클이 모일 수 있는 집회장소를 마련하여, 대화를 통한 서클간의 유대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의과대학의 초창기 서클은 주로 봉사서클이 많았으며 설립시기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덩쿨들: 1975년 4월 8일 무의촌진료봉사단으로 창설, 루까회: 1972년 5월 가톨릭친목도모, 의료봉사,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창설, 의진회: 1974년 11월 11일에 농촌의료봉사단으로 창설, YMCA의료봉사회: 1975년 4월 충남대학교 YMCA로 설립 1978년 의료봉사회와 영농봉사회를 분리하여 학도호국단에 정식등록이 됨, 청의회: 1973년 6월 18일 농어촌 주민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창



설, 서예부: 1971년 의과대학 서예연수회로 시작, 미술부: 1971년 토요일스케치, 이젤스, 그리미 등이 통합되어 의대미술부로 탄생하였다. 산악회는 1970년 창설된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통합서클이며 필내음 문학동인회와 고전음악감상회는 1974년 4월, ILB (I like baseball)는 1973년에 창립되었다. 고전기타합주단은 1976년 4월에, 정우회는 1968년 의과대학 설립시부터 시작되었고 교수학생이 함께 참석하였다. 수석회는 1975년 10월에 발족하였으나 1978년 3월에 충남대학교 수석회와 통합되었다.

(2) 서클활동

본교의 각 서클은 확장기에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 봉사활동이 대표적 활동이었다. 1968년 3월 14일 「농과대학 4H연구회」는 농촌진흥원에서 제11회 충청남도 4-H구락부 경진대회를 개최하다. 기관장 인사, 본교 교직원, 각 부 4-H대표, 시민, 학생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1971년도의 활동은 4월 4일 「The Angles」의 대둔산 촬영대회가 5월 개교기념 제2회 회원 사진전을 대비하여 열렸고, 본교 「유네스코 학생회」는 4월 17일, 18일에 제4회 Fellow Ship Conference(우정의 모임)를 시내 남부연회에서 개최하여 “대학과 학생”이라는 주제로 회원 간의 친목도모, 인격 수양, 학술 토론 등을 실시하였다. 5월 23일 「한국유네스코 학생회」 주최로 제3회 새물결 등반대회가 서울 북악산에서 열렸다. 전국 20여개 대학 250여명이 참가한 중에서 본교 「유네스코학생회」에서는 최세영(섬유 2), 민경숙(국문 2) 등 7명이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았다. 1972년 3월 17일 본교 총 학생회 주최로 총학생회 회의실에서 서클상호간의 우의돈독과 개교 20주년을 맞아 서클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17개 서클 회장단회의가 열렸다. 1972년 4월 9일에 총장기 쟁탈 제1회 서클 대항 연합 체육대회가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는데 우승은 「기독교학생회」에서 준우승은 「유네스코학생회(KUSA)」와 「선유회」가 각각 차지했다.

1972년에는 하계 근로, 의료 봉사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학생 봉사단이 7월 12일 결단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9개 단체 총 300여명이 각각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1974학년도에는 문교부가 주관하는 전국 하계연합 봉사활동이 열렸고, 본교에서는 11개 단체 304명이 참가했다. 영농 지도, 청소년 교육, 노력 봉사를 중점으로 실시하는 하계 봉사활동은 7월 15일부터 실시되었다. 본교의 1975학년도 하계 봉사활동에는 학도호국단 새마을부 산하 7개 반으로 편성된 265명의 의과대학 의료봉사 3개반 12명의 진료진과 48명의 학생 등 총 10개반 325명이 참가했다. 그리고 교내 정화 운동도 벌였는데, 봉사 단원들은 가족계획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계몽과 노력봉사를 하였다.



한편 의과대학 학생들은 전공을 살려 봉사서클을 결성하고 무의촌 진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교수, 학생, 대학병원 의사 간호사가 한 마음으로 뭉쳐 그 시대에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도와주었다. 1976년에는 의과대학생들은 YMCA 의료봉사와 영농봉사를 함께 진행하였는데 1976년 1차로 당진군 대호지면에서 1976년 7월 25일~31일까지 영농·의료봉사가 있었고, 2차를 충남 공주군 계룡면에서 1977년 1월 5일~8일, 3차 역시 충남 공주군 계룡면에서 1977년 7월 25일~28일(영농, 의료봉사)와 당진군 대호지면에서 1977년 7월 28일~31일, 4차는 충남 공주군 계룡면에서 1978년 1월 5일~7일, 5차는 충남 공주군 이인면에서 1978년 7월 25일~29일(영농, 의료봉사), 충남 공주군 탄천면에 나가서 실시한 의료봉사집계결과를 보면 일반진료 2,409명, 치과진료 643명, 기생충검사 1,187명, 피내반응검사 990명, 계몽교육(이유식, 기생충교육, 구강위생, 성교육, 가족계획) 등이 있었다.

(3) 학술 활동

확장기 학생들의 학술 활동은 각종 학술세미나와 모의재판, 그리고 학술 강연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1968년 10월 10일에는 제12회 전국 농과대학 연합회 및 심포지엄(서울 시립대학교 농과대학 주관)이 전국 5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심포지엄에서 본교가 종합우수상을 차지했고, 농림부장관이 주는 발표 최우수상을 김기수(본교 농토 3)군이 획득하였다. 1968년 11월 16일에는 법경대학 법률학회가 주최하는 민사 모의재판이 법경대학 201강의실에서 열렸다. 총장 등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던 이날의 재판 내용은, 사실혼 부당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민사재판이었다.

1970년도에는 제2회 독서 발표회, 제3회 대통령기 쟁탈 자유교양독서회 참가, 제4회 법률, 경영세미나 등이 열렸다. 11월 20일에는 학생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를 통한 지성의 함양에 목적을 둔 제2회 독서 발표회가 부속도서관에서 열렸다.

1971년도에는 제1회 교양독서발표회, 백제문화학술강연회, 제6회 모의재판 등이 개최되었다. 9월 23일에는 백제연구소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백제문화학술강연회가 교수와 7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열렸다. 12월 4일에는 법경대학 법률대회가 주최하는 제6회 모의재판이 시내 새한예식원에서 교수, 학생, 일반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1972학년도에는 제20회 한국축산학회 학술발표대회, 호서사학회 연구발표, 전국자유교양고전읽기대회 참가 등이 있었다. 5월 6일에는 농과대학에서 주관하고 한국축산학회가 주최하는 전국축산학회 학술발표대회가 본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영양사료분야」, 「번



식, 「육종·가공 기타 분야」, 「가축 영양 및 기타분야」 등 3분야로 나누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9월 15일에는 법경대학 201호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생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법경대학 여학생부가 주최한 「8·3 긴급조치와 한국경제」라는 논제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1973년 11월 24일에는 서울청소년회의소가 주최하는 제1회 전국대학생 학술토론회가 한국 무역협회 강당에서 열렸는데, 이석훈(농학 2)군이 「농어촌 소득증대와 현대화 방안」을 발표하여 우수상을 받았다. 1974년도에는 농촌 순회 계몽과 법률상담, 전국 자유 교양대회 등에 참가하여 우승 등 각종 상을 수상하였다. 「경영동우회」에서는 「경우논집」을 발간했으며, 「씨알모임」에서는 1969년 12월 「씨알」 제2집 4×6배판을 발간하였다.

6) 학생지도체제

〈지도교수제도 확립〉

본교에서는 1974년 10월 14일에 학생 데모 사건이 발생하여 같은 10월 15일부터 무기 휴교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1974년 11월 20일에 개강 때까지 각 학과, 학년별로 분담 지도교수를 정하여 학생 면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하여 학생들을 설득하도록 방침을 세웠는데, 이것이 본교의 경우 분담 지도교수제의 시초이다.

1975년 2월 28일 대통령령 제7566호에 의하여 국립대학 설치령이 개정 발표되면서 학생처에 상담지도관실을 두게 되었고, 1975년 1학기부터 전국 각 대학에 일률적으로 분담 교수제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교수는 학생을 교수하는 의무 외에 학생 지도의 의무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지도교수는 담당 학생의 학업, 개인 신상, 과외 활동 등 학생 생활 전반에 걸쳐 분담 학생을 지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분담 지도교수는 매월 1회 이상 분담 학생들을 개별 면담 및 집단 지도를 한 후 면담 사실을 학생생활지도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본교의 경우 1974년 10월 14일 데모 사건이 있는 이후 별다른 학생 소요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교수제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학생 소요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지도교수 상담제 운영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학도호국단이 창단된 1975년 2학기부터 분담 지도교수제가 강화되었고, 그것이 대학의 하나의 상식으로 널리 통하게 되었다.

7) 학생 군사 교육

1969년도부터 교련 교육이 정규 학과목으로 설정되었다. 4학년 학생과 ROTC 수강자, 여학생을 제외한 학생 전원이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 시책에 따라 대학 1, 2, 3 학년에게 매



주 2시간씩 학기 당 1학점씩 6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본교에서는 1969년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학생 교련 합동 검열에서 전국 우수 학교로 수상되었다. 배우면서 국가 방위에 자진 참여한다는 자세를 확인하며, 단체 훈련을 통하여 이룩된 협동심과 단체정신 규율과 질서 있는 생활의 일상생활화, 책임감 등 정신 교육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는 검열에는 문교부장관이 지명한 장학관 및 군장성 등이 심사관으로 참가했다.

1970년 12월 15일 문교부 교련 방침 시달에 따르면, 지금까지 ROTC와 교련 군사훈련을 일원화하고 교련 교육 대상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전체 남학생으로 하고 일반 대학생은 4학년 1학기까지, 의치계 대학생은 예과 1,2학년 및 대학 2학년 1학기까지 받도록 되었다. 외국인 학생, 신체장애 학생, 예비역 및 현역 위탁생은 제외키로 했고, 예비역 사병은 일반 교육만 실시하고 예비군 훈련 및 집체 교육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훈련은 총·학장의 위임을 받은 현역 및 예비역이 맡기로 했으며, 훈련 시간은 1주에 3시간씩 총 교육 시간을 711시간으로 하고 일반 교육 315시간, 집체 교육을 396시간으로 정하였다.

문교부의 교련 교육 강화 방침에 따라 학생 군사 교육 실시령이 발표되었고 시행 규칙이 마련되었다. 교련이 학과목으로 채택되고 학점 평가도 이와 같이 까다로우 많은 반발과 시정의 요구가 있었다. 특히 대학의 본질대로 순수 상아탑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요구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각종 측정 및 검열 실시에 전국 대학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등 초기 교련 군사교육 강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시책에도 어느 정도 동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5년 6월 학도호국단 설치령의 공표와 함께 문교부에서는 대학생의 전력화를 위한 시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시달하였다.

- ① 대학생의 시국관 확립
- ② 지도 교수제를 통한 학생 지도 체제 강화
- ③ 대학생의 집단 수련 활동 강화
- ④ 봉사 활동 확대

이상의 정부 방침에 의해 본교 학생 군사 교육단에서는 군사 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군사 교육 이수 후 일반 군사 교육 이수자는 군복무기간의 단축같은 특전이 있었고 예비역 무관 후보생은 징집연기, 군사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 피복, 장비를 국가에서 지급, 소정의 고시에 합격하면 예비역 소위로 임관, 현역으로 2년간 복무, 지원에 의해 장기 복무도 할 수 있었으며 장기 복무 시 해외 유학 및 대학원 진학 가능이라는 특전이 있었다.



〈장학 제도〉

예비역 무관 후보생(ROTC) 지원자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입관 후 장기 복무를 원하는 자에 우선 지급되었고 다음과 같은 2종류의 지급 방법이 있었다. 2년제 장학생: ROTC 입단과 동시에 3학년부터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 3년제 장학생: 2학년부터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8) 학생 병영 훈련

대학생의 전력 강화로 국가 방어력을 증대하고 안보의식 강화 및 전시동원 체제를 확립하여, 심신 단련 및 지도적 인격 도야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 병영 집체 훈련이 1976년 7월 1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7개조로 나누어 10일간씩 일반 학생 집체 훈련장인 조치원과 충북 증평에 있는 예비 사단에서 실시되었다.

훈련 대상은 일반 군사 교육을 받는 1학년 전원과 1학년 2학기 교련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2·3·4학년 및 1학년 2학기에 복학한 학생 전원이었다. 병영 집체 교육은 10박 11일로 80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7개조로 나누어 7월 1일부터 입영하게 되었으며 훈련기간 중 성적우수자는 포상을 받았다.

교육 평가에 있어서 평가 비율은 이론 및 실기 60%, 내무 생활 40%로 되어 있었다. 교육 시간 1시간 결석 시는 실습 내무 생활 점수의 14분의 1이 감점되며, 1백점을 만점으로 할 때 60점 미만자는 불합격으로 유급되었다. 학교의 당해 학기 군사 교육 점수는 병영 집체 교육이 60%, 학교 교육이 40%를 차지하였다. 피교육자는 학교의 M1 소총을 개인화기로 휴대해야 했으며, 교련복 등 필요한 복장은 개인이 준비해야 했다.

입영 예정자는 학교에서 1차 신체검사를 받았고, 입영 부대에서 2차 신체검사를 받은 건강한 자만 입영하게 되었는데, 입영 기간 중 재해자는 무관 후보생 신분에서 준하여 보상금 지급 및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학생 일선 지구 병영 훈련〉

대학생 일선 병영 훈련의 목적은 학생 군사 교육 실행 개정령(대통령령 10182호)에 의거 대학생들의 안보 의식과 올바른 시국관을 확립하고, 전방 지구 일선 병영에서의 군사 교육을 하려는데 있었다. 실제 대상은 2학년 전학생이었으며, 1981년 7월 13일부터 2박 3일간 실행되었다. 1982년도부터는 5박 6일로 훈련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2. 학생 장학

본교의 장학 제도는 1963년 6월 15일 공포 시행된 「충남대학교 장학위원회 규정」과 동 20일에 공포된 「학비감면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시기에 따라 세율 인상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점과 시행상의 폐단을 실정에 맞게 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정부의 학생 장학 계획과 본교의 장학금 확대 사업 추진 계획으로 장학 제도는 꾸준히 확대 발전을 거듭하면서 수혜 대상 및 지급액의 증가를 가져왔다. 장학 제도의 확충과 수혜증가는 대학의 질적 향상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중요한 몫을 차지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구 의욕을 북돋우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1) 보운장학회

충남대학교에는 본교 자체 내의 장학회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1968년 4월 22일에 본교의 대표적인 장학제도라 할 수 있는 「보운장학회」가 발족하여 본교 학생 및 교직원과 동창회원들의 오랜 바람이 실현되었다.

보문산의 푸른 정기를 이어받자는 뜻으로의 ‘〈寶〉’자와 학생들에게 청운의 뜻을 품게 하자는 의미로서의 ‘〈雲〉’자를 택한 것에서 보듯이, 「보운장학회」의 발족은 본교의 발전은 물론 장학 제도 확충 사업에 일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보운장학회」는 초기에 충청은행 회사금으로 1968년 4월부터 1969년 3월까지 월 2만원씩 적립하였다. 1969년 4월부터 1970년 8월까지 잔여 76만원을 분할 적금하여 총 1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9월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보운장학회」는 1970년 기금 112만원의 임의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1971년 이후 동문, 교수들까지 장학 기금 조성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로써 본교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교내·외에 홍보하면서 모금 사업 추진에 완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도민들까지도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1975년 11월 5일 장학 기금 조성 위원회의 규정이 통과되어 기금조성 위원회가 발족되어 장학기금 모금이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내적으로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심화와 외적으로는 세계로 뻗어가는 충남대학교를 과시하게 되었다.

1970년 말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장학기금 모금운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1975년 10월의 장학기금은 졸업생 및 외부 인사 기탁금과 잡수입 등으로 구성된 일반 장학금과, 충청은행 회사금으로 구성된 보운장학기금, 그리고 재미 한인 재단 기탁금 등 모두 935만 4천여원에 달하였다. 이로써 연말까지 1천만원 확보가 무난하였다.



본교 장학기금 조성 위원회에서는 「보운장학회」의 장학기금을 1975년부터 1979년까지 5년에 걸쳐 1억원을 모집할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보운장학회의 재단 법인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보운장학회」는 명실공히 본교의 대표적인 장학 제도로 정착·발전하게 되었다. 보운장학회는 1978년 7월 7일 충남대학교 장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각종 장학금 지급

보운장학회의 발족과 더불어 활기를 띠기 시작한 장학 제도 확장을 위한 모금 사업은 각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상당히 확대되었고, 장학금 수혜자 및 지급액도 확대되었다.

1968년도 1·2학기를 통하여 장학금 수혜 대상 인원은 총 709명으로 지급액은 3,954,700여원이다. 그런데 1971년도에는 989명에게 8,549,600원을 지급하였다. 1974년 이후 기금의 다양화와 학생 수의 증원으로 수혜 대상 인원 및 지급액은 배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본교에서 지급한 각종 장학금은 다음과 같다.

① 충무 장학금 ② 대여 장학금 ③ 5·16 장학금 ④ 삼성 장학금 ⑤ 한국 장학 재단 장학금 ⑥ 석천 장학금 ⑦ 해성 장학금 ⑧ 신진 장학금 ⑨ 재미 한인 재단 장학금 ⑩ 아폴로 장학금 ⑪ 산학 협동 재단 장학금 ⑫ 동창회 장학금(공과대학, 농과대학, 문리과대학 동창회) ⑬ 영농 정착 장학금, ⑭ 농공 장학금,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많은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⑮ 기타 장학금으로는 김규태 장학금, 금강 장학금, 과학기술처 장학금, 학훈단 장학금, 김성우 장학금, 문화재 관리국 장학금, 보령 장학금, 운정 장학금, 신탁은행 장학금, 대학원 장학금, 충청북도 도비 장학금, 매현 장학금, 그 밖의 장학금으로는 대전 상업고등학교 동창회 장학금, 경리 을중 장학생, 평산신씨 장학생, 태평양 장학 문화재단 장학생, 로타리 장학생, 새한 장학생, 진로 장학생, 영동군비 장학생, 교복 장학생, 정태규 동문 장학생, 원호 장학생, 브이하이 장학생, 삼보 장학생, 김재현 장학생, 체신 장학생, 국민생명보험 장학생 등이 있었다. 장학 제도는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었다.

5·16 장학금 수혜 졸업자로 조직된 「상청회」 충남지회(지회장: 장충근 동문)가 자체 기금을 확보하여 후진들에게 배움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학 제도 등도 개설할 목적으로 장학회를 발족하기도 하였다. 1973년 공과대학 후기 졸업생들은 본교의 「장학금 1억원 모으기」운동에 호응하여 기금을 희사하였다. 농과대학 농산가공과 동문회에서도 50만원의 자체 기금을 마련하여 본교 장학제도 확충사업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법경대학 동창회에서는 「법경대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1974년 10월 15일부터 1백만원을 목표로 모금 운동에 들어



갔다. 1983년도 2학기 장학금은 14억 5천여만원으로 총 6,332명으로 42%가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여러 대학 동창회에서도 이 시기에 장학금 모금을 시작하였다. 의과대학은 1984년부터 장학금 모금을 하면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간호대학 동창회에서도 1989년부터 장학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였다.

3. 후생 복지

1) 학생생활지도연구소

1969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생활지도연구소가 1968년 8월 14일자 충남대학교 훈령 제62호에 의해 그 설치가 법제화되었다. 1969년 4월 10일 법경대학 김용무 교수가 초대소장에 임명되면서 실제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학생 지도, 상담, 연구, 보도를 담당하였고 1973년 10월 8일자 충대신문을 보면 “상담실에 비친 충대인의 실태”에 경제면과 학업면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 학생생활지도연구소는 충남대학교 학생들의 각종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중요한 업무는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능검사, 자아개념 검사, 불안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등을 병용하여 상담을 통한 도움을 주고 취업에 관련된 상담에는 여러 자격여건에 맞는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여 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취업에 도움을 주었다. 1972년 학생 생활 연구지 제1집을 창간하였다. 그 후 1974년 8월 학생지도 연구소의 기구가 개편되었다. 종전의 연구부와 지도부로 운영되어 오던 것이 연구부, 지도부, 직업 보도부, 여학생 지도부로 개편되었으며, 각 단과대학에 새로이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어 담당 지도 위원이 임명되었다.

1975년 6월 9일에는 학생생활지도연구소 규정이 공포되었다. 같은 해 5월 15일자로 소급 시행되는 동 규정은 국립대 설치령 제9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연구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또한 동 연구소의 자료 조사, 직업 지도, 여학생 연구부를 두고, 학생들의 윤리관 확립 및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산학 협동 체제 확립을 위한 직업 지도 방안 등 제 연구와 전문적인 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이를 수행키 위해 각 자문기관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다. 그 후 1975년 9월 15일 새마을운동연구부가, 9월 1일 학처장 회의에서 생활연구소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직무 내용에 새마을 운동 심화에 대한 내용을 첨가하였다. 3조 3항을 보면 “새마을운동연구부는 면학할 수 있는 환경의 개선, 새마을 운동에의 참여 의식 고취 및 농어촌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생활지도연구소에서는 「학생생활지도」라는 책자 발간과 학사 교양시리즈를 간행하였다. 1970



년 5월 11일에는 「취업 및 진학 안내」를 국판으로 발간하여 학생들의 취업 안내를 목적으로 96개 국내 은행 및 언론 기관, 국영 기업체 및 사설 기업체 등의 고시 과목 및 채용 자격 등을 명시해 놓았다. 1973년 12월 15일에는 1968년 설치 후 5주년을 맞아 「학생생활지도 연구」 제2집을 발간해 학생 지도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학생 서클 활동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 「대학생과 서클 활동」이란 내용의 특집을 꾸미기도 하였다.

직업 지도를 주제로 편집한 학생지도 연구 제3집(1975. 5. 12) 500부를 발행하여 교수 및 각과 직원들에게 배부하였다. 한편 1975년 9월 8일에는 학생 교양시리즈 제2권 「학습 방법 및 논문 작성 요령」을 발간하였고, 1975년 10월 27일에는 학생 교양 시리즈 제3권 「직업 안내」가 총 88면으로 발행되어 2, 3, 4학년 전원에게 배부되었다.

학생생활지도연구소는 대학의 교육적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봉사기관으로 학생들이 보다 바람직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상담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궁극적으로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단련하며,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었다. 따라서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돕는 것이 아니었고, 정상적이고 적응이 잘되는 학생에게도 그들의 능력과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학생생활지도연구소의 카운슬링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접수실에 와서 상담 조교와 상담에 대한 방법 절차 등을 상의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이해가 가면 소정 양식에 상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상담 조교의 협력을 받는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카운슬러의 도움으로 문제 해결의 경험을 갖는 것은 후에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

2) 상담지도관제 신설

학생자치기구의 운영과 과외활동 및 상담 취업 지도 상벌 및 학생생활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상담지도관제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해 신설됐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학생처)에 보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처에 학생과 후생과 및 상담지도관을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상담지도관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2) 학생과는 학생의 병사, 체육, 동원, 훈련, 통학, 신분 및 학생회관 관리 및 기타 처 내의 다른 과 및 상담지도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3) 후생과는 학생의 보건, 후생, 장학금, 급여, 기숙사, 기타 학생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4) 상담지도관은 학생의 행사 자치기구의 운영과 과외 활동, 개별 집단 지도, 상담, 취업 지도, 상별 및 학생생활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상과 같은 설치 근거안에 따라 상담지도관제가 실시되면서 지나치게 서클이나 학생활동에 개입하여 일정부분 활동을 위축시킨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틀이 잡혀가면서 조직적인 활동을 통제하고 직업 보도, 각종 통계 자료의 제작 등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면도 있었다.

3) 학생회관 신설

대덕 캠퍼스에 공업교육대학과 문리과대학, 그리고 이과대학이 이전을 마친 1979년 9월 20일, 학생 활동의 요람이자 후생 복지의 일익을 담당할 학생회관의 준공식이 있었고, 동년 9월 28일 학무회의에서 충남대학교소비조합 정관 심의가 있었다. 준공 후 5개월만인 80년 3월 10일 제1학생회관 개관식을 하였다. 7억 6천 여 만원을 투자하여 완공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연건평 1,71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된 현대식 건물이었다.

후생관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79. 9. 28 학무회의에서 충남대학교소비조합 정관 심의
- 1980. 3. 10 제1학생회관 개관
- 1981. 5. 16 우정의집 개관
- 1982. 5. 28 백마의집 개관
- 1983. 1. 12 상록의집 개관
- 1984. 9. 15 백마의집 폐쇄
- 1984. 9. 15 제2학생회관 개관
- 1989. 2. 20 의과대학 의행관 개관

건물의 모양을 특색 있게 하기 위하여 아치식 건물 양식을 도입하였고, 중앙의 전시실을 겸한 로비에는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옥상에 별도 채광 장치를 하였다. 학생회관의 제반 시설은 다음과 같다.



- 지하 - 서점, 우체국, 이발소
- 1층 - 학생 식당, 교직원 식당, 매점, 교수 휴게실, 충남대학교 소비 조합실, 상임이사실, 주방
- 2층 - 전시실, 음악 감상실, 여학생 휴게실, 세미나실, 학생생활연구소, 보건진료소
- 3층 - 학생 단체실, 회의실, 바둑실, 복사실, 학도호국단 사무실, 총학생회장실, 배선실, 관리실
- 옥상 - 관현악단실, 채광 장치

캠퍼스가 시내와 격리되었고, 아직 대학촌의 설립이 어려운 실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던 학생들에게 학생회관의 건립으로 보다 편리함을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규모나 시설에서 볼 때, 대덕캠퍼스에서 강의를 받고 있는 8천여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4백석 규모의 학생 식당 역시 6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협소함을 느끼게 했다. 나머지 대학이 이전을 완료하고 지금과 같은 추세로 매년 신입생이 증가한다고 볼 때, 제2, 제3의 학생회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였다.

4) 학생 의료 공제회

1976년 8월 23일 이래 1년간 계속 실시되어 오던 학생 의료 보험 규정이 전면 폐지되고 1977년 12월 1일자로 새로운 학생 의료 공제회 규정이 설정되었다. 본교생들의 의료 공제 혜택을 통해 학생들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경제적 편의를 통해 면학에 정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적절한 의료비를 지급하고 학생의 보건 향상이나 대학 생활의 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설치된 학생 의료 공제회는 1979년도까지 1,264만원의 기금으로 총 149명에게 3,058,500원을 지급하였다. 세부 사항을 보면 공상 진료 7명에 526,200원, 일반 진료 104명에 2,204,340원 및 치과 진료 38명에 327,980원이 지급되었다.

의료 공제회 의료비의 기준은, 의료비 지급액의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급하였고, 치과 공상 진료시에는 의료비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었다. 일반 진료의 의료비 지급 시 10만원 미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50%를 지급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적용 지급하되, 의료비 지급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치과 진료의 의료비 지급은 5만원 미만의 의료비에 대하여 30%를 적용하되, 의료비 지급 총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5) 학생 금고

1976년 8월 23일 학생 의료 공제회 규정안과 같이 확정 발표된 학생 금고 규정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1976년 이후 학생 금고의 운영 자금 현황을 보면 1976년부터 본교생 입학금에 포함되어 조성된 기금 1,101만 5,500원과 여기서 얻은 대출·예금 이자 96만 3,763원을 포함하여 총 1,100만 9,263원으로 학생들에게 용자 혜택을 주었다. 1976년부터 1978년도까지 학생 금고의 대출 및 상환 내역을 살펴보면, 8년간 총 1,072명에게 536만원을 대출하였다. 상환 인원은 702명에 351만원이고, 91명에 45만 5천원이 미수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금고제는 자금 사정과 학생들의 상환 실태 부진의 이유로 1980년 7월 18일자로 폐지되었다.

6) 언어교육원

충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국제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1978년 어학연구소를 개소하였다. 1980년에 대덕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제1언어실습실이 준공되고 1980년에 제2언어실습실이 준공되었다. 1981년에 언어훈련원으로 개편되어 학생들의 어학능력을 위한 다양한 언어실습실이 마련되었다. 1981년 제3언어실습실, 제4언어실습실이 준공되고 1987년에는 50석의 Video Library 및 Sound Library가 준공되었다.

제3절 연구(연구현황, 연구소, 산학협력)

1. 연구 활동의 성장

1) 연구 활동의 다양화

대학에서 전공학과의 신설은 학문 분야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었다. 왜냐하면 해당 분야의 권위있는 학자들이 자리를 잡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에서 학문 연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확장기에 들어서면서 학부와 대학원에서 증과 현상이 두드러져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학부의 경우, 문리과대학의 독어독문학과, 사회학과, 의예과, 생물학과, 가정학과, 체육학과,



공과대학의 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금속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산업기계공학과, 공업교육학과, 농과대학의 원예학과, 농산가공학과, 임학과, 법경대학의 행정학과, 경제학과, 의과대학의 간호학과 등 무려 18개 학과가 신설되면서 학문적으로 실질적인 확장기를 맞이했고, 각 분야의 연구 활동에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학과마다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국내·외 학술 활동의 본거지를 마련하였고, 성실한 강의를 통하여 각 분야의 신진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대학원의 경우, 증과 현상은 각 분야의 학술 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다. 교과 과정, 강의 내용 자체가 학문적으로 심화되었음은 물론, 강의 담당 교수가 본교의 중진 교수 이외에 학계 권위를 가진 외래 강사로 보완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문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박사과정에는 학문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가 많아 교수와 학생 간에 학술 연구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확장기에 신설된 학과는 석사과정에 경영학과, 행정학과, 의학과, 간호학과였으며, 박사과정에 국어국문학과, 화학과, 법학과, 화학공학과, 섬유공학과, 의학과였다. 각 과정별, 학과별로 고도의 이론과 기술을 강의·연습하고, 교수와 학생 간의 협동으로 학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석·박사과정을 망라하여 우수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1968년~1975년 사이에 석사과정에서 발표된 논문을 계열별로 집계해 보면, 문학계 27편, 이학계 15편, 공학계 20편, 농학계 38편, 법학계 5편, 경영학계 1편, 의학계 20편 등 총 126편의 논문이 간행되었다. 이 논문들은 각 계열별로 학계에 새로운 공헌을 하였거니와, 그것이 각 집필자들의 학문적 기반과 학계 진출의 디딤돌이 되었다. 논문 집필자들은 일부 전문연구소나 교육 일선에 취업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학계로 나아가 대학 강의에 임하였다.

박사과정에서 같은 기간에 발표·간행된 논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정규 과정을 밟는 학위 논문과 소위 구제 박사 학위 논문이다. 이 논문들은 각자가 필생의 연구 업적을 총결산한 것으로 학계에 공인을 받아 세상에 공표됨으로써 학계에 이바지한 바가 지대했다.

그 동안 제출된 정규 박사 학위 논문은 농업계에서만 11편으로, 편중·영세성을 면치 못한 실정이었다. 그것은 타 계열의 박사과정 설치가 늦었던 탓도 있지만, 정규 과정의 박사를 배출하는 데에 있어 지나친 규제를 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내에 구제 박사 학위 논문은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도 풍성한 질·양을 유지하고 있었다.

논문은 주로 본교 교수들이 연구·강의하는 가운데에 쌓아 올린 학문적 업적을 집대성한 것으로



로서, 본교 학술연구사에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논문을 분야별로 집계해 보면, 문학과 7편, 철학계 5편, 이학계 4편, 공학계 17편, 농학계 24편, 법학계 5편, 의학계 9편 등 총 71편이었다.

또한 1970년대 말, 1979년은 문화동 보운캠퍼스에서 유성 대덕캠퍼스로 공과대학부터 이전을 시작한 첫 해이다.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제외한 대학과 도서관, 학생회관과 대학본부 등 교육과 연구에 기초가 되는 시설만을 옮기는 데도 수년이 걸렸다.

이전을 시작한 후 10년이 되는 1988년까지 구성원 모두는 주변 조경은 물론, 강의실, 연구실, 도서관 그리고 학생회관 등의 내부 정비와 정리에 힘을 쏟았다. 우선 연구실, 강의실 및 도서관의 내부가 정리되고 연구소들이 활동을 재개하자, 새로운 장에서 교수들의 연구 의욕은 고취되었다.

2) 연구비 지원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말까지 문교부에서는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고양하고 연구하는 학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교수들에게 학술연구 조성비를 지급하여 왔다. 자연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계의 교원 중에서 소수 인원을 선정하여 공동 연구와 개인 연구로 나누어 연구비를 배정하였다. 연구 주제는 크게 일반 학술 방면과 문교부 정책 과제, 그리고 공과대학 특성화 문제 및 교류교수 과제 등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졌다.

1968년 이래로, 문교부의 학술연구 조성비 이외에 우수한 기관의 학술연구 기금이나 유력한 문화재단의 학술연구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예컨대, 과학기술처 연구보조비와 본교기성회 연구 조성비, 아세아재단 연구비, 산학협동재단 학술연구비, 성곡문화재단 연구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학술재단의 연구보조비는 문교부의 그것을 보완하는 입장이었지만, 각기 지향하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던 터이므로, 특수한 연구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말하자면, 학술재단 측의 기준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함으로써 연구비 지급과 그 성과 사이에 별다른 차질이 없었던 것이다. 학술재단 측에서는 그 방면의 연구 업적이 현저하거나 연구 성과가 기대되는 학자·교수를 지목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썼다. 따라서 선정된 연구자는 소수이지만 각자가 긍지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었고, 성과를 성실히 보고함으로써 상당한 업적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주제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1년 이내에 그 연구보고 논문을 인쇄·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수들의 학술 연구를 촉진해 온 것만은 사실이다. 연도별로 연구비 지급 현황과 교수 개인별 연구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비 지급현황〉

연도 대학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문리과대학	800,000	850,000	1,000,000	3,400,000	4,200,000	4,700,000	4,040,000	4,110,000
공과대학	720,000	500,000	1,750,000	1,200,000	2,400,000	2,400,000	1,900,000	1,510,000
농과대학	850,000	3,000,000	2,000,000	1,300,000	2,800,000	2,400,000	2,500,000	1,410,000
법경대학	600,000	400,000	240,000	800,000	1,600,000	1,000,000	860,000	1,400,000
의과대학	0	0	0	1,200,000	1,600,000	2,300,000	2,500,000	2,170,000
계	2,970,000	4,750,000	4,990,000	7,900,000	12,600,000	12,800,000	11,800,000	10,600,000

〈교수 개인별(1968~1975) 연구통계〉

구분	연도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철학		1			1		1		
교육학		1				1			
문학					4	5	4	3	1
사학			1		1	1	2	2	3
법학						5	1	1	1
행정학			1	1	1		1	1	
정치학						1			2
경영학		1					2		3
수리학				1		1	1	1	2
물리학					1		1	1	2
화학		2		1	3	4	1		1
농학		3	5	4	4	5	6	5	2
농기계학									1
축산학								1	1
공학		3	2	2	4	6	4	3	4
체육학								1	1
식품가공학									1
의학					1	5	3	5	5
건축학						1			
계		11	9	9	20	35	27	24	28

한편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비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져 대개 학년 초에 단독 혹은 공동으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비를 신청하면, 자원에서는 이를 취합한 후 과제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고, 소정의 심사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였다.



당시의 연구비 재원은 주로 교육부의 학술 연구 조성비, 한국과학재단 연구비, 그리고 특정 연구 및 공업 기술 연구비 정도였는데,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비의 재원〉

구분	재원
학술연구조성비	일반 과제, 자유공모 과제, 유전공학 연구과제, 기초과학 연구과제 지역개발 연구과제, 신소재 연구과제, 신진교수 연구과제
한국과학재단	기초 연구과제, 목적기초 연구과제
특정연구공업기술	특정연구 개발과제, 공업기술 연구과제, 대체에너지 개발
기 타	삼천리재단, 산학협동재단, 한일시멘트공업, 대우중공업, 화학연구소 럭키엔지니어링, 환경과학, 동방제약, 대우재단

한편, 1988년도 본교 교수들이 수령한 연구비의 재원별, 1인당 수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70년대 말의 본교 연구비 대비 약 100배 가량 증가된 연구비로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1988년도 학술연구비 수혜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재원수	참여교수	연구비	1인당 수혜액
학술연구조성비	7	64	483,500	7,555
한국과학재단	2	41	318,000	7,756
특정연구 및 공업기술	3	9	349,722	38,858
기 타	9	12	81,970	6,831
합 계	21	126	1,233,192	9,787

80년대에 교수들의 연구 활동 결과 논문의 질과 양에서 많은 부분에서 높은 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재직 교수 1인당 논문이 1편이 넘는 성과를 이 기간에 달성하였다. 80년대 말 10개 단과대학 70개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는 총 557명이었고, 이 중 충남대학교에서 발간된 “연구 업적(1979~1989)”에 실적을 등록한 교수는 517명이었다.

이 기간 동안 계열별 교수 1인당 연평균 발표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다.



〈계열별 교수당 연평균 발표 논문 (1979. 1. 1 ~ 1988. 12. 31)〉

계 열	인문	자연	경상	공학	농학	법학	약학	의학	가정	예술
논문(편)	1.24	1.31	0.81	1.46	1.94	0.83	1.89	1.98	0.86	2.34

다음 자료는 1979년 초부터 1988년 말까지 10년 동안, “연구업적”에 등록된 517명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계열별로 집계한 것이다.

〈계열별 교수 연구 실적 집계 현황 (1979. 1. 1 ~ 1988. 12. 31)〉

계 열	학과수	교수수	논 문	저 서	연 구 보 고	학 술 발 표	특 허	창 기 작 타
인 문	13	94	1,164	253	20	30		3
자 연	12	87	1,139	79	104	130	3	
경 상	4	35	284	29	14	14		
공 학	15	94	1,373	101	183	381	5	
농 학	13	68	1,319	84	107	139		
법 학	3	23	191	29	3	3		
약 학	1	8	151	8	9	3	7	
의 학	2	76	1,506	6	2	12		
가 정	3	16	137	1	4	5	1	
예 술	4	16	23	8				374
합 계	70	517	7,287	598	446	717	16	377

3) 대외 학술 활동

(1) 국내 학술 활동

확장기로 접어들면서, 교수들의 교외 학술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각과 교수들은 전공에 따라 전국적인 학회에 입회·참가하여 타 대학 교수들과 함께 학문 연구 및 학술 교류에 박차를 가하였다.

70년대 당시 전국적으로 국어국문학회, 영어영문학회, 독어독문학회, 불어불문학회, 사학회, 철학회, 사회학회와 법학회, 행정학회, 경영학회, 그리고 수학회, 물리학회, 화학회, 생물학회, 가정학회, 체육학회, 건축공학회, 섬유공학회, 화학공학회, 전자공학회, 토목공학회, 전기공학회, 그리고 농학회, 축산학회, 농공학회, 농산가공학회, 원예학회, 임학회 등 본교에 설치된 모든 학과와 관련된 대규모의 학술연구 단체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학회에서 중견 회원으로 활약하면서 직접 연구 발표를 하거나, 학술 연구지에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큰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학술 활동보다 개인적이고도 실질적인 교외 학술 활동은 교류 교수에 보임되는 일이었다. 교류 교수 제도는 대학원에 교수를 교환하여 연구·교수하도록 마련한 학술연구 장려의 방편이었다. 본교에서는 제반 조건에 알맞은 교수 몇 분이 서울 지역의 대학에 파견됨으로써 연구와 강의를 계속하였다. 제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1973년부터인데 파견 기간은 1학기, 연구비는 50만원이었다. 1974년도에는 문리과대학의 도수희, 1975년에는 동 대학의 최종석 교수와 최근문 교수가 서울대에 파견되었다.

79년 말부터 이주를 시작한 충남대학교는 충분한 공간 확보가 이루어져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실험실의 내부 정비에 이어, 옮겨온 실험 기구들을 보수·정리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자연계는 특히 보운캠퍼스에서 인수하고도 공간이 없어 펴놓지 못했던 IBRD 기기들이 유성캠퍼스로 이전하고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렇듯 강의실, 실험실이 정상화되자, 대학 혹은 계열에서는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구소의 활동을 보강하거나 새로운 연구소들을 개설하였다.

유성 캠퍼스로 이주 후 본교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지리적 혜택으로, 교수들은 분야별로 단지 내 관련 연구소 연구요원들과 정보 교류는 물론, 공동 연구를 활발히 시도할 수 있었다. 단지 내 정부 출연 연구소, 민간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 기관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어 국내 연구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대덕연구단지 소재 기관 현황〉

구 분	기 관 명
공 공 기 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생명공학연구소, 연구개발정보센터, 천문대,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원자력환경기술원,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국방과학연구소, 국립중앙과학관, 대전지방기상청, 수자원연구소, 한국조폐공사기술연구소, 국제특허연수원, 전력연구원, 대전엑스포기념재단, 정보통신연구관리단
민 간 기 업 체 연구소	대림산업대덕연구소, LG화학기술연구원, 쌍용중앙연구소, 한화그룹종합연구소, 호남석유화학(주)대덕연구소, 한국원전연료(주), 데이콤종합연구소, 대덕대학, 삼양그룹중앙연구소, 사단법인한국선급, 유공대덕기술원, 삼양화학종합연구소, 태광산업중앙연구소, 동부기술원, 한국타이어중앙연구소 등



(2) 해외 연구 활동

확장기로 접어들어 국내 학술 활동이 본격화되자 안정된 학술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서, 본교 교수들은 해외 연구 활동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적 추세이며 국내 대학의 주된 경향이었다. 또한 당시 본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연구 활동의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국제성을 띤 학문 분야를 비롯하여 뜻있는 교수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독일·프랑스 등의 구주와 일본·중국 등지의 동양권 나라를 대상으로 유학 및 장기 학술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단기간으로 학술 연수 및 학술회의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전공에 따른 교수들의 다양한 해외진출 비용은 국가(문교부)의 보조이거나 외국의 장학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비용을 자담하는 경우에는 장기 학술 연구에 있어서는 난점이 많았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반하여 본교에서는 휴직을 받아 급료가 절반 이상으로 삭감되어 이중적인 경제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휴직기간이 길어져 승진 기회도 놓치는 불운이 따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희생을 무릅쓰고 학문연구에 전념하여 학위를 받거나 커다란 학문적 성과를 내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상당액의 국비나 자비를 들여 단기간의 해외 연수와 학술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 학문적 소득이나 학술 자료의 수집에서 그다지 큰 성과를 올리기가 어려웠다는 반성문이 나돌기도 했다. 이 시기 교수들의 해외 연구 활동을 유학 과정·단기연구 및 학술회의 참석별로 개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외 연구 활동별	대 학 별	인 원
유 학	문리과대학	8
	공 과 대 학	2
	농 과 대 학	1
	의 과 대 학	2
장기 연구	문리과대학	6
	공 과 대 학	3
	농 과 대 학	1
	법 경 대 학	4
	의 과 대 학	1
단기 연구	문리과대학	3
	공 과 대 학	3
	농 과 대 학	2
	법 경 대 학	2
	의 과 대 학	4



해외 연구 활동별	대 학 별	인 원
학회 참석	문리과대학	6
	농 과 대 학	3
	의 과 대 학	1
계		52

70년대 해외파견 교수에 대한 지원문제와 승진문제를 개선하여 80년에는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교수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다. 해외연수 목적은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교수들은 정기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새 시대적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학문적인 감각을 개발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본교에서는 교수들의 장단기 해외 연수와 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시행하였다. (해외자매 결연대학 참조)

장기 연수는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되는 연구비는 교수당 평균 500만원이었다. 또, 단기 연수는 2~3주로, 지원되는 연구비는 평균 30만원이었다. 80년대말 5년간 교수들의 장·단기 해외 연수 실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고, 70년대말 대비 2배 이상의 교수를 해외에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의 노력이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85 ~ 1989, 5년간 교수 해외 연수 현황〉

대 학	장 기 해 외 연 수(명)						단 기 해 외 연 수(명)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문 과 대 학	3	4	9	5	4	25	11	12	17	25	13	78
자연과학대학	6	7	6	5	4	28	9	17	12	33	18	89
경 상 대 학	1	1		2		4	7	2	5	3	4	21
공 과 대 학	5	3	7	5	7	27	14	27	22	29	35	127
농 과 대 학	2	4	2	3	3	14	16	15	12	20	19	82
법 과 대 학	1			1	1	3	5	3	11	10	2	31
약 학 대 학	1	2	1	1	1	6	2	2	2	6	1	13
의 과 대 학	10	6	4	7	8	35	18	17	8	38	24	105
가 정 대 학			1	1	2	4			3	2		5
예 술 대 학					2	2					3	3
계	29	27	30	30	32	148	82	95	92	166	119	554



2. 연구소의 발전과 교수의 대외 학술 활동

1)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 성과 (1970년대)

본교의 확장기에 이르러, 교내의 각 연구소가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독자적 면모를 갖추어 제 구실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 새로운 연구소도 개설되어 의욕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학술 연구의 중심체가 되었다.

문리과대학의 유일한 연구소였던 동서문화연구소가 인문과학연구소(1974)로 개편되었다. 백제연구소(1971) 역시 본격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자연과학연구소(1974)가 새로운 체재로 개설되었다. 법경대학의 사회과학연구소(1974)와 공과대학의 공업기술개발연구소(1974), 농과대학의 농업기술연구소(1974), 의과대학의 지역사회의학연구소(1974) 등이 각기 특색을 가지고 신설되었으며, 특수한 목적을 지닌 통일문제연구소(1974)와 학생생활연구소(1968) 등이 대학 본부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각 연구소는 학술 연구의 계열화를 체계적으로 정착시켰고,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1)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소는 교수 겸직의 소장과 간사 각 1명, 그리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인문계 교수 모두를 연구원으로 구성하였다. 동서문화연구소로부터 인문과학연구소로 정식 발족한 이래 역대 소장 및 간사의 열성과 연구 교수들의 협력으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

교수들에게 각종 연구비를 적극적으로 주선·배정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보좌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 성과를 연구발표회에서 공개함으로써, 교수·학생들의 학술 연구에 이바지하는 바가 컸다.

이러한 연구소의 가장 큰 업적은 각 교수들의 연구 논문을 검토·평가하는 점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기적인 연구발표회 32회와 초청강좌 40회를 주최하였음은 물론, 인문과학논문집을 8권이나(통권 19호 간행) 간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인문과학논문집은 1968년도 이래 출공 본교 논문집(종합)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일부로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1974년도 인문과학연구소의 발족과 함께 인문과학논문집 제1권 제1호를 간행함으로써 명실 공히 독립 논문집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1968년도 종합논문집 제7집의 분책 체재로부터 1975년도 인문과학논문집(제Ⅱ권 제7호)에 이르기까지 13회에 걸쳐 4×6 배판으로 간행된 논문들은 어학계 22권, 문학계 36권 등 모두 119편이었다.



(2)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는 소장과 간사 직제 아래, 사회과학계 교수 모두를 연구원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소가 발족된 이래, 사회과학연구소는 역대 소장 및 간사의 열성과 교수들의 협력으로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다.

문교부를 비롯하여 학술연구 재단에서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를 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해 줌으로써 교수들의 연구 활동이 크게 조장되었다. 그러면서 연구 성과는 공개 학술연구발표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연구소의 가장 큰 업적은 각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검토·평가하여 논문집으로 발간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정기적인 몇 차례의 연구발표회 및 초청 강좌를 주최하였음은 물론, 논문집을 4권이나 간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사회과학논문집은 1968년 이래 줄곧 본교 논문집(종합)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일부로 자리를 지켜오다가 1974년도 연구소의 정식 발족과 함께 사회과학논문집 제1권 제1호를 간행함으로써 독립 논문집의 체재를 갖추게 되었다. 1968년도 종합논문집(제7집)의 분책 체재로부터 1975년도 사회과학논문집(제II권 제2호)에 이르기까지 10차에 걸쳐 4×6배판으로 간행된 논문들은 법률·행정학계 51편, 경영·경제학계 33편 등 모두 84편의 노작들이었다.

1972년 법경대학에서는 당해 대학 교수들의 연구 업적을 집성하여 『법경논집』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법경논집』은 여러 회를 거듭하지 못하고 사회과학연구소의 논문집에 학통을 이어주고 말았다. 비록 논문집이 회갑기념 논문집으로 머물고 말았지만, 처음으로 시도된 사회과학 계통의 학문적 논문집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었다. 단지 『법경논집』에 수록된 논문으로는 법학계 7편, 경영학계 5편이 수록되었다.

(3) 자연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는 인문과학연구소와 함께 본교의 양대 학맥을 이룬 기초과학 연구의 요람이다. 본 연구소는 발족 이래로 역대 소장 및 간사의 봉사와 기초과학계 교수 전원의 성실한 연구로써 학문적 성과를 높이 올렸다.

각급 연구보조 기관이나 학술연구 재단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합리적으로 분배·보조하여 교수들의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IDD/IBRD 차관을 통하여 최신형 실험 기기를 갖추고, 국내외 권위 있는 학자들을 초빙하여 특별 강좌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적 학문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간의 학문적 업적은 기초연구 발표회와 초청 특강으로도 나타났지만, 4권 간행된 자연과학논문집으로 집약되었다.



자연과학논문집도 다른 연구소의 경우처럼, 본교 논문집 자연과학분야의 기초과학 부문으로 간행되어 오다가 1974년도, 자연과학연구소의 발족과 함께 독립 논문집 제1권 1호를 간행하게 되었다. 1968년도 종합논문집(제7집)의 분책 체제로부터 1975년도 자연과학논문집(제Ⅱ권 2호)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4×6배판으로 간행된 논문들은 모두 81편인데, 그 세부 논문들로는 수학기계 25편, 물리학기계 26편, 화학기계 25편, 생물학기계 1편, 체육학기계 3편, 가정학기계 1편 등이었다.

여기서, 수학·물리·화학계의 논문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학문의 성질이나 중요성에도 관계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타 계열에 비하여 학과의 전통이 깊은데다가 공동 연구가 원만하게 이뤄진 덕분이라 하겠다.

(4) 공업기술개발연구소

공과대학 특성화에 따라, 공업교육대학이 부설되어 공업 교육 연구 분야를 추가하게 되었다.

문교부 당국의 특별한 지원을 받고, 서독을 중심으로 한 구주지역국가와 이론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연구소의 업적은 날로 높아갔다. 연구 성과를 연구발표회에서 공개함으로써 공업 기술 개발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쳤다. 현대의 첨단을 차지하는 실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다, 해외 공과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유학·연수한 교수들과 외국인 교수들이 최신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그 이론과 기술을 본격적으로 정예화해 왔다.

이러한 연구 개발의 성과는 몇 차례의 연구발표회와 특별 강연 등으로도 드러났지만, 4권이 나 간행된 공업기술연구소의 논문집으로 집성되었다고 보인다.

공학기계 논문들은 충남대학교 논문집 자연과학 분야의 응용과학 부문으로 수록되어 오다가, 1974년도의 공업기술개발연구소의 발족과 함께 논문집 1권 1호를 간행함으로써 독립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1968년도 종합논문집(제7집)의 분책 체제로부터 1975년도 공업기술개발논문집(제Ⅱ권 2호)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4×6배판으로 간행된 논문들은 모두 89편이다. 수록된 논문들은 건축공학기계 15편, 화학공학기계 24편, 섬유공학기계 25편, 토목공학기계 7편, 전기전자학기계 4편, 기계학기계 13편, 금속공학기계 1편 등으로 분류된다.

논문은 주제의 성질과 연구자들의 협동심에 힘입어 공동 연구로 이룩된 것이 많았다. 이점은 산학협동과 관계하여 연구 주제의 대형화에 따른 효과적인 연구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공동 연구에 따르는 문제점도 있었다.

(5) 백제연구소

백제연구소는 충남대학교가 백제권에 위치한 운명적 상관성으로 인하여 백제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담하여 연구해 내겠다는 결의로써 설립된 학문중심의 연구기관이다. 연구소가 새로



은 체제로 본격적인 출범을 하고 문교부의 법정연구소로 승격·확장되면서 주목할 만한 사업을 펼쳐나갔다.

교수 겸직의 소장과 3개부의 부장으로 조직되었고, 교내의 국문학, 동양철학, 국사, 동양사 등을 전공하는 교수 중에서 백제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자는 모두 연구원으로 포함시켰다. 나아가 국내의 백제 관계 전문 학자나 일본, 중국 등지의 백제 문제 연구가를 특별 연구원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라 하겠다.

한편, 백제연구소에서는 학술지 사업의 일환으로 「백제연구」와 같은 정기간행물이나 「백제연구총서」 등의 비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백제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모든 간행물은 백제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공개강좌나 국내·국외 학술회의 등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게재하고, 백제사와 관련된 이슈와 최신 자료를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학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백제연구」는 1970년 10월에 창간호를 낸 이래로 매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까지 총 55집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백제연구에는 역사와 고고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음악·건축·불교·가사·어학·설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양질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2007년에는 학술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으며, 2012년에 발표된 KCI인용지수에서 역사학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6) 농업기술연구소

농과대학 교수들의 연구 분위기는 일찍부터 하나의 전통을 이루고 있었다. 본 연구소가 발족하면서, 각과 교수들의 학술 연구는 이곳으로 집결되었다. 역대 소장 및 간사의 헌신적 노력과 각 교수들의 적극적인 협동 연구로써, 연구소의 업적은 산학협동의 시대적 과업을 충실히 대행하였다.

연구소는 농업 부국을 내세운 정책과제 연구비와 특수 분야 연구비 등 각종 연구보조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교수들의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연구 성과를 각종 세미나와 연구발표회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학계에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다. 더 나아가 농학 전반에 걸친 이론 정립과 기술 개발에서 공헌한 바가 컸던 것이다. 각종 시설을 점차적으로 현대화하고 각 교수들이 해외 농과 대학과 유관연구소에서 유학·연수함으로써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체득하게 되었으며, 이런 학술적 전통과 연구 분위기 속에서 상당수의 학자들이 속속 배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소의 학통위에서 연구·개발된 업적은 많은 연구 발표회와 특수연구회에서 도 부각되었지만, 무엇보다도 4권이나 간행된 농업기술연구논문집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농학계 논문들은 그 동안 본교 논문집 자연과학 분야의 응용과학 부문으로 수록되어 오다가



1974년도 농업기술연구소가 출범하면서 비로소 제1권 1호의 독립 논문집으로 간행되었다. 논문들은 1968년도 종합논문집(제7집)으로부터 1975년도 농업기술연구논문집(제II권 2호)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4×6배판으로 간행되었다. 논문은 모두 97편에 달했는데, 농학계 20편, 원예학계 11편, 축산학계 34편, 농공학계 14편, 식품가공학계 17편, 농업경제학계 1편 등으로 정리된다.

논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통해서 협동 연구의 전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축대가 굳고 체계가 잡힌 공동연구 체제가 체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대형화된 연구 주제를 잘 소화시키고 있다. 농업 이론의 정밀화와 농업 구조의 확대·다양화로 말미암아 공동 연구가 요망되었고, 연구팀의 조직적인 팀워크가 성패를 가름하는 요건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와 같은 공동 연구의 체계 속에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공동 연구에서는 연구에 바친 노력의 질량과 성과의 분배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논문들은 공동연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지역사회의학연구소

연구소가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서울과 지방의 의학자나 임상의학에 각별한 주목을 받았고, 이 지방 각계 인사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역대 소장과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모든 교수들이 연구에 전념한 나머지 획기적인 성과를 이룸으로써 의학계를 놀라게 했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 전반에 대하여 관여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의학의 연구를 표방한 것은 특색이다.

연구 성과의 전문분야를 배려한 세미나와 연구발표회 등을 통하여 적극 공개함으로써 의학계에 큰 자극을 주었다. 대형화 내지 정밀화된 의료 시설을 바탕으로 국내의 특별 연수를 마친 전문 교수들과 수련의들이 임상에서 부딪치는 특수 사례를 분석·종합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나아가 정확한 치료술을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많은 연구발표회와 연구토론회를 거쳐 요지가 학계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4권이나 간행된 정기논문집에 수록·공표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논문은 본교 논문집의 자연과학 분야에서 의학 부문으로 수록되어 오다가, 1974년도 이 연구소의 정식발족과 함께 의과대학잡지(제I권 1호)로 독립·간행되었다.

1968년도 종합논문집으로부터 1975년도 의과대학잡지(제II권 2호)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모두 48편이나 발표되었다. 대체로 기초의학, 임상의학, 예방의학, 간호학 등의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에서도 교수들의 전공이 기초와 임상으로 나누어져 있어 논문의 성격이 분명하지만, 학문에서의 기초와 임상의 구별에서는 애매한 점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상교수들이



기초 부문의 논문을 적잖이 써내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편의에 따라 기초 전공 교수들의 논문과 임상적 내지 실험적 논문들은 임상 부문으로 취급하였다. 이처럼 잠정적인 분류를 전제할 때에, 기초의학계 25편, 임상의학계 15편, 예방의학 및 간호학계 8편 등으로 구분된다.

(8) 대학원 연구 활동

1967년 3월, 대학원에서는 석·박사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자치회(명칭: 원우회)를 구성하고 학술 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술 활동 중에서도 대학원 논문집을 간행한 것은 크게 주목할 일이었다. 논문집은 3집으로 끝을 맺었으나, 학습 전통을 대학원 논문집으로 넘겨준 점은 중시될 만한 일이었다. 논문집은 3집에 걸쳐 모두 34편의 논문이 문학계 3편, 철학계 6편, 사학계 3편, 법학계 9편, 수학계 2편, 농업경제학계 2편, 식품가공학계 2편, 축산계 3편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2) 연구소의 확장과 편의시설의 설립 (1980년대)

(1) 연구소의 업무

80년대 들어 대학별 혹은 계열별로 설치되어 있는 연구소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하여 소속 대학 혹은 소속 계열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 연구비 신청의 안내 및 신청서 종합
- 연구비 지원 및 관리
- 연구 과제에 대한 중간 보고서 점검 및 종합
- 연구 과제에 대한 최종 보고서 점검 및 종합
- 연구 관계 협약
- 학술 활동 위원회 운영
- 학술 발표회 개최
- 논문 심사 및 정기적 학술지 발간
- 기타 교수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구소의 현황

70년대 설립된 연구소 이외에 7개의 연구소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대학 부설연구소는 문과대학 소속 백제연구소와 공과대학 소속 공업교육연구소를 제외하고, 10개 단과대학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므로 총 12개이다. 여기에 본부 소속 연구소 10개를 합하면 총 22개가 된다. 이후 2010년대까지 연구소 활동은 활발해지며 자세한 연구소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중흥 도약기에서 다루겠다.

〈연구소의 소속 및 설치 연도〉

연 구 소	설치연월	소 속 대 학	소 속 전 공
학생생활연구소	1968. 8	충남대학교	학업, 서클, 진로
백제연구소	1971. 9	문과대학	어학, 문학, 사학, 철학, 사회학, 교육학
통일문제연구소	1972. 3	충남대학교	철학, 사회과학 계열
미국학연구소	1975. 12	충남대학교	언어·문학, 문화·철학
지역개발 연구소	1977. 2	충남대학교	농학계열, 공학계열
공업교육연구소	1978. 2	공과대학	화공, 섬유, 건축, 토목,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어학연구소	1978. 3	충남대학교	영·독·불·중·일어 혼련, 언어학 연구
경영경제연구소	1979. 3	경상대학	경영, 경제, 회계, 무역
농업과학연구소	1979. 7	농과대학	농학, 원예, 축산, 농공, 임학, 식품가공, 농기계
법률행정연구소	1979. 7	법과대학	법학, 행정학, 정치학
인문과학연구소	1979. 7	문과대학	역사, 지리, 고고학, 종교, 철학, 민속 문화
지역사회의학연구소	1979. 7	의과대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보건·간호
교육발전연구소	1979. 7	충남대학교	교육학, 사범계 대학 및 학과
기초과학연구소	1979. 7	충남대학교	순수 및 응용과학 전 분야
환경문제연구소	1981. 6	충남대학교	자연과학계열
체육과학연구소	1982. 10	충남대학교	체육·보건
의약품개발연구소	1985. 5	약학대학	약학
산업기술연구소	1986. 2	공과대학	화공, 섬유, 건축, 토목,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물공학연구소	1986. 2	충남대학교	생물, 의학, 수의학, 농학계열
생활과학연구소	1987. 9	가정대학	가정, 의류, 식품영양
예술문화연구소	1988. 8	예술대학	미술, 음악
자연과학연구소	1988. 12	자연과학대학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3) 연구 편의 시설

① 도서관

80년대 들어 늘어난 재원을 통하여 연구 편의시설을 속속 설립하게 된다. 그 중 도서관은 유성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공간 및 장서가 현저하게 증가하여 교수들의 연구 및 학생들의 학습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도서관의 장서는 교수와 연구에 필수적이므로 그 보유량은 곧 대학 평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당시, 도서관의 본관 및 분관이 보유하고 있던 단행본의 권수와 연속간행물의 종수를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1988년도, 도서관 장서 보유현황〉

구 분	기 준	단 행 본 (권)				확 보 율 (%)
		동 서	양 서	고 서	합 계	
단 행 본	578,556	197,407	111,064	17,357	325,828	56.3%
보유비		60.6%	34.1%	5.3%	100%	

구 분	기 준	연 속 간 행 물 (종)						합 계	확보율 (%)
		구 입 분			수 속 중				
		국 내	국 외	소 계	국 내	국 외	소 계		
연속간행물	1,150	334	1,368	1,702	1,513	127	1,640	3,342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행본의 확보율은 56.3%이었지만, 연속 간행물은 수속 중인 것이 있어 확보율을 기록하지 않았다.

② 전자계산소

전자계산소는 컴퓨터 활동을 통해 학술 정보의 저장 및 교류와 연구 결과의 종합 정리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당시의 전자계산소 기자재 보유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도, 전자계산소 기자재 보유 현황〉

구 분	위 치	수 량	비 고
M / 1000 터 미 널	학생실험실	56	한영혼영
	교수 터미널실	3	한영혼영
	대학원 터미널실	3	한영혼영
	전자계산소	23	업 무 용



구 분	위 치	수 량	비 고
퍼스널컴퓨터	학생실험실	45	16bit XT
	교수 터미널실	2	16bit XT
	대학원 터미널실	2	16bit XT
	전자계산소	18	업 무 용
	기 타	2	
프린터	학생실험실	6	80col(3), 136col(3)
	교수 터미널실	1	136col
	대학원 터미널실	1	136col
	전자계산소	12	80col(1), 136col(11)
	기 타	3	

제4절 환경(시설)

1. 문화동 캠퍼스의 시설 확충

1) 교사의 신·증축과 이전

(1) 문리과대학

문리과대학 이과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기초 실험실이 새로이 단장되어 개관을 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동일 건물 내에 제반 실험실을 집약시키기 위하여 문리과대학의 후편 정원에 건평 650평의 2층 건물을 세우는 계획이었는데, 이 기초 실험실 공사는 1968년 7월 19일에 시작되었으며, 1971년에 이르러 완공을 보게 되었다. 이과계 학생들에게 실험 혜택을 제공해 주는 이 기초 실험실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430만 원이었다.

그리고 1970년 7월 20일에는 문리과대학의 Lab 시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총 시설비 150만 원을 들인 이 공사는 만 8개월의 기간을 거쳐 1971년 3월 23일에 준공을 보아 개관하였는데, 문리과대학의 312 강의실에 설치된 이곳에는 현대식 부쓰 30석을 비롯하여 교탁, 방음장치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2) 농과대학

강의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과대학은 1975년 10월 1일에 증축 공사를 착공하였다.



총 공사비 2,000만 원이 소요된 이 증축 공사는 1975년 12월에 준공되었다. 이 증축 공사를 통하여 당시 2층이던 농과대학의 건물에 1층을 더 올려 7개의 강의실을 증축하였는데, 그 중에는 계열 필수 과목의 수강생이 많아질 것에 대비하여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개의 강의실도 갖추고 있었다. 이 증축 공사로 인해 그동안 강의실의 부족으로 수업에 지장을 받아오던 농과대학은 강의실 부족 곤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3) 공과대학

공과대학의 실험실과 강의실의 신·증축 공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1967년 12월 27일에는 199만 7,000원을 들여 기초 공사만 해놓은 화공학과 실습 공장을 601만 615원의 공사비를 들여, 1968년 10월 10일에 1층의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리고 1970년 12월 19일에는 총 공사비 34만 6,800원을 들여, 화공학과 실습 공장에 대한 49.69평의 증축 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1964년에 준공한 공과대학 본관 건물의 증축 공사도 이루어진 바, 1971년 8월 11일에는 옥상 옆의 기존 2층 건물을 455만 3796원의 공사비를 들여 80여 평을 증축하였으며, 1974년 8월 24일에는 건평 23.56평에 연건평 47.112평을 증축하였다. 그리고 섬유학과 부속 공장의 신축 공사도 완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1975년 10월 27일에는 공과대학 1호관이 준공을 보았다. 이 건물은 경제개발 특별사업과 AID 차관으로 1975년 5월 20일에 시공되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총 7,634만 1,278원이었다.

이 공과대학 1호관 건물은 3층 규모의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건평은 219평이었으며, 연건평은 656평이었다. 그리고 공과대학 1호관은 실험실과 기구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이 공과대학 1호관 건물의 각 층별 실험실 및 기구실을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과대학 1호관의 1층에는 섬유물리 실험실, 섬유화학 실험실, 염색 실험실, 편조 실험실, 주조 야금실, 실험금속 재료실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1호관의 2층에는 화공과 기계실을 비롯하여 기초 전자 실험실, 열유체 실험실, 전력 실험실 등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3층에는 공교과 기계실, 측량 기기실, 토질 실험실, 기계 실험실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22평 규모를 지닌 식당과 4.80평 규모를 지닌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1974년 10월 6일과 1975년 12월 10일에 각각 신축되었는데, 이들 부대시설의 공사에는 각각 92만원과 82만 9,484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었다.

한편 공과대학의 실험기구의 도입은 대일청구권 자금에 의하여 거의 대부분 완료되어 가고 있었다. 약 48,000불(한화 1,500만 원)이 배정된 기구 도입은 1969년 12월 25일에 36,000불



상당의 물품이 인수되었고, 1970년 1월에 13,000불 어치의 물품(기재)도 완전히 도입되었다. 주요 품목은 건축과의 재료만능 시험기(일화 420만 엔), 화공과의 고속 사진기(일화 140만 엔), 섬유과의 사반 시험기(일화 190만 엔) 등이었다. 그리고 1969년과 1970년에 도입된 실험 기구들은 시가로 약 3,000만 엔 가량 되는 것이었으며, 이로써 공과대학의 실험 설비가 한층 충실해지게 되었다.

또한 1968년 12월 28일에는 공과대학의 교문이 건립되었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38만원이었다. 이 공과대학 교문은 세 개의 백색 기둥이 하늘로 쭉 뻗고 있어 공과대학의 약진상을 잘 보여 주고 있었다.

(4) 교양과정부

1971년에 교양과정부가 종합 연구소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 종합연구소 건물은 1967년 10월 9일에 농과대학 앞의 실습지에서 착공되었고, 그 해 12월에는 1차 공사로 지하 1층, 지상 1층의 공사가 완료된 바 있었다. 이 공사는 그 후에도 지속되어 1971년에는 5층의 건물로 된 종합연구소가 마침내 완공을 보게 되었으며, 1970년에서 1971년도에는 종합연구소 내에 800여석의 좌석을 갖춘 대강당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남대학교의 모든 연구소와 연구실이 이 종합연구소의 건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교양과정부가 신설되고 학생의 증원으로 인하여 강의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연구소와 강의실이 병존하다가 마침내 교양과정부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75년 6월 16일에는 교양과정부 학생들의 휴식을 위한 시설로 교양과정부 건물 앞의 가로수 밑에 20여개의 콘크리트조의 벤치가 설치되었다.

또한 교양과정부에는 1974년 11월에 과제도서실이 설치되었다. 이 과제도서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대학 교재는 물론 각종 참고서가 비치되어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간이 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5) 대학원

1974년 9월 1일에 대학원이 문리과대학 본관 동편의 강의실로 이전하였다. 이전하기 전에는 교양과정부 강의실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과계 학생들이 문리과대학에서 강의를 받는 등의 불편이 있었는데, 대학원이 이전함으로써 이과계 학생들도 교양과정부에서 강의를 받게 되었다. 문리과대학으로 이전한 대학원과 경영대학원은 1층에 세미나실과 사무실을 배치하였고, 강의실은 문리과대학과 같이 2층을 사용하였다.



2) 의과대학의 신축과 부속병원의 개원

(1) 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은 1967년 11월 25일에 정식 설립 인가를 얻게 되었고, 같은 해 11월 30일에 의과대학 설치가 공포되면서 이듬해 3월에는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의과대학의 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은 문리과대학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의과대학 교사의 신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1969년 9월 22일에 대전시 대흥동에서 의과대학의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지하 1층에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인 이 의과대학 건물의 공정은 5단계로 진행되었다.

의과대학 교사의 신축을 위한 제1차 공사는 1969년 9월 22일에 기공되어 같은 해 12월 30일에 낙성되었다. 그리고 이 제1차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2,865만 817원이었으며, 준공된 면적은 건평 118.73평에 연건평 365.25평이었다.

의과대학 교사 신축의 제2차 공사는 1970년 8월 5일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19일에 준공되었다. 여기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1,820만 900원이었고, 준공 면적은 건평 31.56평에 연건평은 309.64평이었다.

그리고 제3차 공사는 1971년 9월 10일에 착공되었고, 같은 해 12월 19일에 준공을 보았다. 이 공사를 통한 준공 면적은 248.71평이었으며, 총 공사비는 1,867만 9,560원이 소요되었다.

또한 제4차 공사는 1972년 9월 14일에 착공되었는데, 1,312만 334원의 공사비를 들여 1972년 12월 30일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준공된 면적은 건평이 181.65평이었고, 연건평은 299.98평이었다.

그리고 제5차 공사는 1973년 9월 14일에 착공하였다. 이 제5차 공사는 1974년 4월 15일에 완공을 보았는데, 완공된 면적은 1,281.01평이었으며, 총 공사비는 13만 9,025원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의과대학의 교사가 공사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인 1974년 4월 18일에 드디어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 의과대학 신축 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1억 7천 43만 원이었는데, 지하 1층과 지상 7층(연건평 2,504.59평)으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다.

이 건물의 시설로는 해부 실습실과 시체 보관실(지하실)을 비롯하여 각 사무실(서무, 교무, 학생과)과 도서관(7층) 및 강당 등이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은 연구실과 강의실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1층과 2층의 일부는 부속병원에 대여하여 외래 진료실과 소아과 병실, 그리고 건강 관리과와 정신과 병실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1973년 1월 13일에는 의과대학에 충남대학교 도서관 의과대학 분실이 설치되었다. 그 후 1975년 3월 1일에는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분관으로 승격되었고, 그에 따라 교수 관람실과



학생 관람실에 정기 간행물실, 단행본실, 자료 정리실, 분관장실이 증설되었으며, 비치된 도서의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

1975년 의과대학 분관에는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인수해 온 도서 1,186권과 도립의료원에서 인수한 도서 370권에 제본 도서 437권을 합하여 총 1,993권을 비치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 도서비로 매입한 외국 잡지 68권과 각 학회 및 대학에서 기증한 국내 잡지 36권 등의 학술잡지를 소장하고 있었다.

의과대학 분관의 도서관 시설을 살펴보면, 학생 관람실에 관람대(15대), 의자(90개), 캐비닛(1개)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교수 관람실에는 관람대(3대)를 비롯하여 의자(16개), 잡지서가(4대), 목록카드 박스(2개), 신문가(2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서고에는 서가(8대)와 책장(2개) 등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 후 1985년 12월 31일에는 대흥동에 있던 의과대학이 보운캠퍼스로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는 의행회관(학생회관)이 신축되어 학생 자치활동과 학생 복지의 시설을 마련하게 되었다.

(2) 부속병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의료원의 시설을 이양 받아 1972년 7월에 개원하게 되었다. 이양 당시에는 10개 진료과 밖에 안되는 규모였는데, 순환기과를 폐지하고 내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안과, 정신신경과, 치과 등을 신설하였다.

이양 당시 병실의 수는 1인실이 20실(20bed), 2인용이 5실(10bed), 3인용이 1실, 4인용이 1실, 5인용이 1실, 그리고 6인용이 15실(90bed)로 총 43실(132bed)이었다. 그 후 1974년 초에 이르러 병실을 개조하였는데, 1등실(1인용)이 13실(13bed), 2등실(2인용)이 1실(2bed), 3등실(혼용)이 20실(117bed)이었다. 그리고 1975년 초에는 특등실(1인용) 1실(1bed), 1특실 18실(18bed), 2등실 22실(44bed), 3등실 5실(20bed) 등을 증설하여 병실의 수는 총 80실(215bed)로 늘어났게 되었다.

예산 관계로 건물의 증축은 제2병동에서 제6병동을 연결하는 복도와 의과대학 교사에서 병원 본관을 연결하는 복도 각각 8.78평과 11.75평 등 도합 20.53평을 증축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존 건물 및 시설이 노후하였기 때문에 보수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73년에는 옥상 방수 공사(5. 22, 6. 23)를 비롯하여 보일러 화실 보수 공사(6. 5), 원내 도장 공사(8. 18), 본관 및 병동 수선 공사(12. 23)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4년 동안에는 간호원 기숙사의 칸막이 공사(3. 25), 연결 복도 신축 및 칸막이 공사(4. 4), 의과대학 1층의 칸



막이 공사(8. 13), 본관 칸막이 및 로비의 확장 공사(12. 11), 연결 복도 공사(7. 3)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1975년에는 임상교수 연구실의 칸막이 공사(4. 2, 5. 1)를 비롯하여 6병동 수선 공사(6. 14), 피부과 칸막이 지붕 수선 공사(7. 14), 합동 취사장 및 기타 수선 공사(8. 8), 본관 진료과 도장 공사(12. 23) 등이 이루어진 바 있었다.

1975년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건물은 외래 진료소(384.99평), 병동(1,209.18평), 마약수용소(52.18평), 관리실(562.88평) 등을 갖추고 있었으며, 총 합계 2,209.23평이었다. 그리고 부속병원의 병상수는 215bed였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의 면적이나 병상의 수는 의과대학 설치 기준(기본 건물 면적 2400평 이상, 병상 수 300bed 이상)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부족한 건물 면적은 의과대학 건물 중의 일부(240.38평)를 임대하여 외래 진료소로 사용하였다.

그 후 1980년 7월 25일에는 충남대학교 대학병원의 신축을 위한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1984년 10월 15일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이전·개원하게 되었다. 신축된 이 부속병원의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 옥탑 2층의 규모를 지닌 초현대식 종합병원으로 최신 기자재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지상 1층의 연면적은 6,578.92㎡이었으며, 여기에는 원무과, 주사실, 방사선과, 핵의학과, 각과 외래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연면적이 5,615.40㎡인 2층에는 각과 외래, 조직 병리과, 임상 병리과, 각종 검사실 등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연면적이 3,243.60㎡인 3층에는 수술실을 비롯하여 중앙 공급실, 중환자실, 마취과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4층에서부터 7층까지는 각 병동 간호사실과 입원실을 비롯하여 의국, 당직실 등이 위치하였다. 한편 연면적이 756.33㎡인 옥탑 1층에는 공조기실과 창고 등이 자리를 잡았고, 연면적이 576.00㎡인 옥탑 2층에는 승강기 기계실, 물 탱크실, 창고 등이 설치되었다. 또한 부속병원 건물의 지하 1층의 연면적은 6,433.00㎡으로, 여기에는 기계실, 전기실, 약국, 의무기록실, 식당, 창고 등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연면적이 145.220㎡인 중층에는 방재실이 위치하고 있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병상수는 일반 병동이 315병상, 산부인과 병동이 44병상, 소아과 병동이 48병상, 정신신경과 병동이 34병상, ICU, CCU 병동이 18병상, 신생아실이 28병상, 구급실이 12병상 등 총 499병상이었다. 그리고 1984년 6월 20일에는 신경과와 성형외과가 신설되어 진료과가 20개로 증설되었으며, 1985년에는 치료방사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가 증설됨으로써 진료과가 23개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84년 10월 10일에는 본관의 냉·난방 및 급수, 급탕 전기 등을 공급하는 파워플랜트가 신축·완공을 보았다. 이 파워플랜트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다. 신축



된 파워플랜트 건물의 지상 1층의 연면적은 1,296㎡이며, 이곳에는 보일러, 냉동기, 소각로실, 수전실, 목공실 등을 갖추었다. 그리고 이 건물의 2층의 연면적은 198㎡이며, 여기에는 사무실이 위치하였다. 또한 파워플랜트 건물의 지하 1층의 연면적은 162㎡이며, 이곳에는 발전기실이 자리하였다.

한편 1984년 1월 30일에는 영안실이 완공되었다. 완공을 본 이 영안실은 지하 1층에 연면적이 414㎡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완공을 본 영안실의 지하 1층에는 빈소를 비롯하여 접객실, 보관실 등이 위치하였다.

그 후 기숙사 신축 공사가 1985년 12월 28일에 착공하였다. 이 기숙사 신축 공사는 1986년 9월 11일까지 부지 정리 및 골조 공사를 하였으며, 1986년 12월 26일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신축된 이 기숙사는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로 된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건물인데, 이 기숙사의 총 공사비는 988,780천원이 소요되었다. 이 기숙사는 2인 1실로 된 117실의 룸을 갖추고 있었다.

3) 부속 시설의 신축

(1) 총장 공관

총장 공관은 1968년 3월 24일에 기공하여 같은 해 5월 21일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 공관은 문리과대학 내에 위치한 태극 정원의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총장 공관은 364평의 대지에 2층의 건물로 지어졌다. 이 총장 공관의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회사금 500만 원과 기성회비 80만 원 등 600여만 원이 소요되었다.

(2) 대강당

1970년 5월에 종합 연구소 건물의 옆의 200여 평의 대지에 중강당 혹은 대강당으로 혼용할 수 있는 강당 건물이 착공되었다. 이 건물은 600~7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으로서, 총 예산은 2000여만 원이 소요되었다. 이 대강당 건물은 8개월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70년 12월에 완공되었다. 이 강당 건물은 교양 과정부로 사용하던 건물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고정 의자가 배치되었으며, 무대 시설을 비롯하여 영사실 및 방음 장치 등을 갖추고 있었다.

(3) 체육 시설

1974년 초에 체육 시설 개선책의 일환으로 총 25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종합 운동장에 새로운 트랙과 배수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종합 운동장과 대학원 사이에 위치한 야구



장 백네트가 1974년 4월 26일에 착공하여 1974년 5월 초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1974년 4월 초에는 핸드볼 1조, 철제 축구 골대 1조, 이동식 농구대 1조 등을 구입하여 체육 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1974년 6월에는 의과대학의 테니스 코트(1조), 공과대학의 테니스 코트(1조), 농과대학의 테니스 코트 철강, 문리과대학의 테니스 백판 등을 설치하여 단과 대학의 체육 시설을 보강·확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75년 6월 16일에는 공과대학에 새로운 테니스 코트가 개장되기도 하였다.

1975년 2월 18일부터 현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정지 작업에 들어간 충남대학교의 종합 운동장 공사는 제3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국립대학교 체육대회에 대비하여 1974년에 공사가 시작되어 1975년에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로써 이 운동장은 각종 경기를 할 수 있는 종합 운동장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동장의 주위 환경도 말끔하게 정비되었다.

(4) 농과대학 부속 가축병원

1968년 11월 25일에 이르러 농과대학 현 위치에 연건평 75평의 규모를 갖춘 가축병원이 신축되어 이전하게 되었다. 이 가축병원의 내부 시설에는 진료실과 수술실을 비롯하여 수술 준비실과 약국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농과대학 부속 가축병원은 이전과 동시에 외래 진료는 중지하였고, 부속 동물 사육장과 우유 처리장의 진료,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학생 실습과 연구에 이용되었다.

(5) 농과대학 부속 연습림

농과대학의 입학과 학생들의 학습과 실습을 위한 연습림이 조성되었다. 이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부속 연습림은 충남대학교의 후면을 둘러싸고 있는 보문산 기슭의 임야(131,800평)와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일대의 임야(778,480평)로 이루어졌다.

(6) 의과대학 기숙사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뒤쪽에 위치한 3층 건물(연 건평 352.76평)을 의과대학 간호학과 기숙사로 사용하였다. 이 기숙사는 ‘백행사(白杏舍)’라고 불렀는데, 1층에는 8실의 숙사와 1실의 관리인실이 있었고, 2층에는 10실의 숙사와 식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3층에는 14실의 숙사를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의과대학 간호학과 기숙사는 모두 43실의 숙사를 갖추고 있었다. 의과대학 간호학과 기숙사의 숙사 1실의 면적은 4.24평이었으며, 욕실과 부엌 그리고 거실 및 옷장 등을 갖추고 있었다.

그 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신축 이전에 따라, 1985년 12월 20일에는 전공의 및 간호사 기숙사의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신축 공사는 1986년 12월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신축된 기숙사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규모로 이루어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연건평은 3,781㎡이었다. 이 기숙사는 2인 1실인 117개의 룸을 갖추고 있었는데, 총 공사비로 988,780천 원이 소요되었다.

4) 캠퍼스 이름 짓기와 총대로의 포장

(1) 캠퍼스 이름 짓기

30여 만 평의 문화동 캠퍼스에 있는 가로와 언덕 및 연못 등에 의미가 있는 이름을 붙이자는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충남대학교 신문사는 1969년 가을에 학내에 있는 거리와 언덕 그리고 연못 등에 ‘이름 짓기’를 전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남대학교 신문사에서는 200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69년 9월 5일에는 편집회의를 열고, 대상의 선정과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캠페인의 취지는 첫째 낭만과 정서 문화의 일면을 위하고, 둘째 학교에 대한 애착과 애교심을 구심점으로 삼고, 셋째 선배들이 물려준 전통에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것이다.

대상 장소는 첫째 도서관 건물이 서 있는 언덕, 둘째 종합 운동장의 본부, 셋째 농과대학 교문 앞의 곧은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펼쳐진 길, 넷째 총장 공관 앞에서 공과대학 앞까지의 도로, 다섯째 본부 앞에서 법경대학 앞까지의 거리, 여섯째 농과대학 뒤의 저수지, 일곱째 실내 체육관 뒤 반달 모양의 언덕 등이었다.

대상 장소에 대한 이름 모집과 결정 방법은 첫째 응모 자격은 본교 재학생이거나 교수 또는 동문이어야 하며, 둘째 응모 방법은 이름과 설명서를 제출(200자 원고지 3매 내외)하여야 하며, 셋째 결정 방법은 심사위원회(심사위원은 교수, 동문, 재학생의 단과 대학 대표자로 구성)를 거쳐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충남대학교 신문사에서 주관한 캠퍼스 이름 짓기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확정되었는데, 책정된 이름은 아래와 같았다.

- 총대로 : 총장 공관 앞에서 공과대학 앞까지의 도로



- 우정의 길 : 본부 옆길에서 법경대학에 이르는 길
- 풍요의 길 : 농과대학 앞의 곧은 길
- 보운의 언덕 : 도서관 건물이 서 있는 언덕
- 청운대 : 종합 운동장과 본부 일대

(2) 충대로 포장

1975년 5월 20일에 문리과대학에서 교양 과정부로 진입하는 길인 충대로(忠大路)의 포장 공사가 착공되어 50여 일 동안의 작업 끝에 1975년 7월 9일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 충대로의 포장은 1975년 초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 순시 때에 박희범 총장의 건의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충대로의 전장은 720m이었으며, 총 포장 면적은 32ha였는데, 이 충대로의 포장에 소요된 총 경비는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인 500만 원과 대전시비 550만 원 등 1,050만 원이었다.

2. 대덕 캠퍼스의 시설 신축

1) 교사의 신축과 이전

(1) 문과대학

대덕 캠퍼스로 두 번째로 이전한 대학은 문과대학으로, 1979년 8월 11일에 이전을 완료하였다. 문과대학에는 제1호관, 제2호관, 제3호관이 신축되었다.

문과대학의 제1호관과 제3호관은 동시에 발주,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1978년 9월 7일에 신축 공사가 착공되었고 1979년 8월 20일에 이르러 완공을 보게 되었다. 문과대학 제1호관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규모로 된 라멘조 건물로, 건평은 5,164㎡이다. 이 제1호관의 건물에는 강의실(21실)과 연구실(49실)을 비롯하여 기타 지원실(27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문과대학 제3호관은 건평이 총 1,411㎡였는데,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규모로 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이다. 이 제3호관은 통합 강의실(7실)로 이루어진 순 강의실동의 건물이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로 지어진 문과대학 제2호관은 1979년 6월 1일에 착공하여 1981년 5월 18일에 완공을 보았다. 문과대학 제2호관의 건평은 7,442㎡이었다. 이 제2호관의 신축에는 총 공사비가 10억 5,800여 만 원이 들었는데, 이 제2호관의 건물에는 강의실(55실)과 연구실(33실)을 비롯하여 기타 지원실(25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2) 이과대학

이과대학이 1979년 12월 1일 3차로 대덕 캠퍼스로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과대학은 제1호관과 제2호관의 2개의 건물로 설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제1호관과 제2호관의 총 공사비는 24억 6,200여만 원이었다.

이과대학의 제1호관은 1978년 9월 29일에 착공하여 1979년 12월 9일에 완공을 보았다. 이 제1호관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규모로 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로, 건평은 8,564㎡이었다. 이 제1호관 건물에는 강의실 및 실험실(41실), 연구실(26실)을 비롯하여 기타 지원실(8실)을 갖추고 있었다.

1981년 11월 8일에 준공을 본 이과대학 제2호관은 지상 1층에 지상 4층의 규모로 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건평 12,214㎡)로 지어졌는데, 그중의 일부(건평 6,810㎡) 건물은 이과대학 제1호관과 동시에 발주 시공되었으며, 나머지(건평 6,204㎡) 건물은 1981년 1월 23일에 착공하였다. 이 제2호관에는 강의실 및 실험 실습실(48실), 연구실(44실), 행정 및 지원실(37실) 등이 갖추어졌다.

(3) 경상대학·법과대학

1981년 7월 23일에 경상대학과 법과대학의 이전이 완료되었다. 이전 기본 추진 계획상 제2호관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상대학과 법과대학은 사회관 1동에 양 대학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었다.

사회관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의 규모로 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의 건물(건평 9,928㎡)로, 1980년 6월 25일에 착공하여 1981년 5월 22일에 준공을 보았다. 신축 당시에 경상대학에서는 강의실을 23실, 연구실을 40실, 지원실을 30실 사용하였다. 그리고 법과대학에서는 강의실을 8실, 연구실을 22실 그리고 지원실을 8실 사용하였다. 이 사회관의 신축 공사에는 총 24억 6,200여 만 원이 들어갔다.

(4) 공업교육대학

1978년 8월 공업교육대학이 가장 먼저 대덕 캠퍼스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었는데, 공업교육대학에는 제1호관과 제2호관 그리고 공장동이 신축되었다.

대덕 캠퍼스 내에 건립된 공업교육대학의 제1호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의 건물로, 건평은 총 19,152㎡였다. 이 제1호관 건물은 1977년 9월 24일에 착공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78년 7월 31일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이 제1호관의 신축 공사에



소요된 총 공사비는 14억 5,300만 원이었다. 이 공업교육대학 제1호관 건물에는 강의실 및 실험 실습실(78실)과 연구실(63실)을 비롯하여 기타 지원실(29실)을 갖추고 있었다.

공업교육대학의 제2호관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의 건물(총 계획 건평 24,851㎡)이다. 공업교육대학 제2호관은 1980년 6월 25일에 착공하여 1981년 12월 말에 준공을 보게 되었다. 이 공사에 소요된 경비는 총 22억 1,900만 원이었다. 이 제2호관은 강의실 및 실험실(50실)과 연구실(57실)을 비롯하여 기타 지원실(16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7년 11월 2일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인 1978년 7월 7일에 완공을 본 공장동은 지하 1층에 지상 1층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의 건물(건평 5,046㎡)이었다. 이 공장동의 건물은 총 공사비 4억 8800만 원을 들여 지어졌다. 그런데 이 공장동 건물에는 기계 공작실, 판금 용접실 등 기계 및 금속 계통 실습 및 실험실(16실)과 연구실(21실) 등이 위치하였다.

(5) 농과대학

농과대학은 농장과 목장 등 상당한 면적의 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적격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농과대학의 이전 사업은 다른 대학에 비하여 늦게 착수되어 제1호관의 설계를 완성하였고, 1982년 초부터 시공하도록 발주하였다. 농과대학의 신축 건물의 건평은 12,661㎡이었으며, 총 공사비는 28억 3,6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이 신축 건물에는 강의실 및 실험실(49실)과 연구실(26실)을 비롯하여 지원실(29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2) 부속 시설의 신축과 이전

(1) 대학본부

본 이전 계획의 수립 당시에 2,697㎡의 건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었던 대학본부의 건물은 도서관 건물에 포함시켜 설계되어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학생 정원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수용상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입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서 대학본부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학본부의 사무실을 공업교육대학의 제2호관에 임시로 마련하여 사용하였으며, 1981년 8월 22일에 대학 본부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대학본부는 정문에서 도서관에 이르는 도로의 우측 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학본부로 진입하는 공간에는 잔디 광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대학본부 건물의 정면에는 13개의 열주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열주들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을 암시하고 있어 충남대학교에서의 대학본부의 역할과 위치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대학본부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의 규모로 된 건물로, 연면적은 4,163㎡이었으며 긴 장방형



의 형태를 하고 있다. 대학본부의 건물은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하여 중복도식의 각 사무실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대학본부의 4개 부처인 교무 연구처, 기획 정보처, 학생 지원처, 사무국의 각 사무실들이 배치하고 있었다.

대학본부 건물의 1층에는 학생 지원처와 교무 연구처 관련 사무실들이 배치되었으며, 2층에는 총장실을 비롯하여 회의실, 각 처장실, 사무국 관련 사무실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3층에는 사무국과 기획 정보처 관련 사무실들, 소회의실, 상황실, 충남대학교 사료관 등이 위치하였다. 또한 대학 본부의 지하 1층에는 건물의 관리를 위한 창고, 기계실, 전기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2) 부속 도서관

1982년 5월에 충남대학교 부속 도서관이 대덕 캠퍼스의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하여 개관하였다. 초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부속 도서관의 신축 공사는 1979년 12월 21일에 착공하였는데, 이 도서관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이다. 이 부속 도서관은 대덕 캠퍼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 단과 대학으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1987년에는 농과대학 본관 건물에 농과대학 분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3) 체육관

1983년에 체육관이 신축되었다. 이 체육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의 규모로 된 현대식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의 건물로, 규모는 1,108평이었다. 신축된 체육관 건물은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갖추고 있었다. 이 건물은 주경기장이 있는 주동 부분과 체조실이 있는 별동 부분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두 개의 건물군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지붕의 형태면이나 외부에 기둥을 두어 슬라브를 지지하도록 동일하게 처리한 면에서 동질적 이미지를 보여 준다.

체육관의 주경기장 플로어는 국제 핸드볼 경기장 규격으로 되어 있으며, 동 측면에는 체조실과 무용실을 갖추고, 코너부에는 샤워실과 화장실 그리고 급수 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이 체육관은 강의실과 교수 연구실을 비롯하여 기구실 등의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체육관 건물의 지상 1층에는 중앙에 농구,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종합 경기장이 마련되었고, 동측부에는 무용실과 체조실을 함께 두었다. 체육관의 2층에는 체육학과 강의실을 비롯하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체육 활동과 강의 시에 소음이 차단되도록 방음벽 시설을 갖추었다. 그리고 체육관 건물의 3층에는 교수 연구실



(7실)이 자리를 잡았으며, 경기장의 천정 중앙에는 환기를 할 수 있는 대형 팬 시설을 갖추었다. 한편 주경기장의 지붕 옥상에는 2.7m 높이의 ‘원반 던지는 사람’의 조각상을 설치하였다. 또한 이 체육관 건물의 지하 1층에는 변전실과 기계실 및 역도실 등을 갖추었다.

3) 복지 및 기타 시설의 준공

(1) 학생회관

제1학생회관이 1979년 9월 20일에 준공되어 1980년 3월 10일에 개관식을 가졌다. 이 제1학생회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의 규모를 지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연건평은 1,710평이며 총 7억 6000여만 원이 투자되었다. 이 제1학생회관은 건물의 모양을 특색 있게 하기 위하여 아치식의 건물 양식을 도입하여 지어졌으며, 전시실을 겸한 로비에는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옥상에 따로 채광 장치를 하였다.

제1학생회관의 지상 1층에는 학생 식당과 교직원 식당, 주방을 비롯하여 매점, 교수 휴게실, 총대 소비 조합실, 상임 이사실 등이 위치하였고, 2층에는 음악 감상실, 여학생 휴게실, 세미나실, 학생생활 연구소, 보건진료소 등이 자리를 하였다. 그리고 제1학생회관의 3층에는 학생 단체실을 비롯하여 회의실, 바둑실, 복사실, 학도 호국단 사무실, 총학생회장실, 배선실, 관리실 등이 위치하였으며, 4층에는 관현악단실, 채광 장치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1학생회관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서점과 우체국, 이발소 등이 위치하였다.

그 후 학생 수의 증가와 학생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2학생회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이 제2학생회관의 지상 1층에는 학생 식당과 교직원 식당이 자리하였고, 2층에는 보건진료소를 비롯하여 매점, 휴게실 등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이 건물의 3층에는 동아리실이 위치하였다.

(2) 백마상

충남대학교 동창회에서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금한 8,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충남대학교의 상징 동물인 백마를 형상 조각한 백마 동상을 건립하였다.

백마는 충남대학교의 교시인 창, 개발, 봉사 정신의 이념적인 표상으로서 지성과 야망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 충남대학교의 정신의 비전을 잘 상징해 주고 있다 하겠는데, 이러한 백마상의 건립은 충남대학교의 상징 동물을 형상 조각하여 전통화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재학생과 졸업생 동문 간의 단합과 결속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1982년 1월에 구성된 개교 30주년 기념사업회 작품심사 위원회는 백마상을 조각할 작가로 박병희 선생(조각가)을 선임하고 제작하도록 하였다. 백마상 가운데 작가가 실제 담당할 부분은 동으로 제작되는 상단의 백마상과 좌우의 인상(人像), 전면의 부조(浮彫)였고, 조대는 회색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백마상의 규모는 기단(基壇)에서 마상(馬像)까지의 전체 높이가 9.2m에 이른다.

백마상은 암·수 두 마리로 되어 있는데, 이는 충남대학교가 남녀 공학이므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조화로운 캠퍼스 생활과 번영을 위한 동반자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말이 딛고 있는 지반에 나초를 심은 것은 충남대학교가 개교한 달인 5월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먹이의 풍부함 즉 충남대학교의 모든 것이 충족해 짐을 의미한다.

또한 좌우의 인상 가운데 우측상은 수레바퀴를 굴림으로써 단결과 협동을 상징하고 있는데, 바퀴살을 11개로 만든 이유는 백마상이 건립되던 당시의 7개의 단과 대학과 4개의 대학을 상징한 것이었다. 그리고 좌측상은 희망의 성취를 위한 비전을 의미한다. 한편 전면 부조의 군상은 중앙의 사람들이 지구를 떠받침으로써 인류를 이끌어 나가고, 월계수를 든 동조자들이 뒤에서 따라 주며 앞에서는 이 모든 은혜로움을 터득하고 받아들이는 형상을 하고 있다.

(3) 충남대학교 정문

1989년 2월 23일에 정문이 완공되어 준공식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앞서 1980년 11월 8일에는 대덕 캠퍼스 서문의 준공식이 있었다.

(4) 백제탑

백제탑이 1982년 2월 15일에 착공하여, 1982년 5월 20일에 건립되었다. 이 석탑은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재현한 것으로, 화강암을 사용하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똑같은 크기로 건립되었다. 본교의 이전 건설을 맡고 있던 동산토건에서 30주년을 맞는 충남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뜻있는 사업으로 부속 도서관 앞에 분수 시설을 만들고,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재현 건립하기로 한 것이다. 이 공사는 건설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분수는 사각 형태의 2단 구조로, 아래는 25×25m, 위는 25×10m의 크기이다.

(5) 학군단

학군단 건물이 1979년 12월 18일에 완공되어 1980년 4월 16일에 이전하였다. 학생군사훈련 및 ROTC 후보생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학군단 건물은 1979년 9월 1일에 착공하였으며, 투입된 공사비는 1억 4천 5백여만 원이었다. 이 학군단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된 철근 콘크



리트 라멘조로, 건평은 1,040㎡이다.

(6) 외국인 교수 아파트

외국인 교수 아파트가 1978년 8월 12일에 착공하여, 1978년 12월 26일에 준공되었다. 이 아파트는 충남대학교에 초빙할 외국인 교수를 위한 전용 숙소인데, 이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의 벽돌조 개와 지붕으로 지어졌다. 이 외국인 교수 아파트는 14 세대 입주 규모의 건물이며, 건평은 1,076㎡이다. 이 아파트 공사에 소요된 총 건축비는 1억 2천 6백여 만 원이었다.

(7) 중앙 기계실

중앙 기계실 건물이 1978년 12월 10일에 완공을 보았다. 난방 및 자가 발전을 위해 지어진 이 중앙 기계실은 1978년 8월 12일에 착공하였는데,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이다. 이 중앙 기계실은 건평이 1,221㎡이며, 총 공사비로는 1억 6천 6백여만 원이 소요되었다.

4) 조경 사업과 캠퍼스 가로명 확정

(1) 교목·교화의 선정과 조경 사업

충남대학교의 교목과 교화를 선정하기 위한 캠페인이 1978년에는 거교적으로 전개되었다. 충남대학교의 교목과 교화를 선정하는 것은 새로 이전하게 되는 대덕 캠퍼스의 조경 사업과 관련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충남대학교의 교목과 교화에 대한 선정의 기준은 첫째 충남대학교를 가장 잘 상징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새 캠퍼스의 풍토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와 꽃이어야 하며, 셋째 성장과 번식이 잘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넷째 품위 있고 아름다운 꽃이나 나무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앙케이트를 조사하여 여론을 종합한 결과 교목으로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히마라야 시타 중에서 택일하기로 하였고, 교화로는 개나리, 철쭉, 사루비아 중에서 택일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9년 1월에 은행나무를 충남대학교의 교목으로 선정하여 학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다음 이것을 총장 명의로 공포하였다. 이로써 은행나무가 충남대학교의 교목으로 선정되었는데, 이 은행나무는 대덕 캠퍼스의 도로변을 따라 계획성 있게 식재되어 가로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화도 역시 1978년 교목과 교화 선정 캠페인에 의해 철쭉꽃으로 결정되었다.

충남대학교 조경 사업의 기본 방향은 자연 환경의 보존, 고유미와 향토색의 강조, 통일성과



다양성의 조성, 인간화된 환경 조성, 시각적 질감이 미적이고 수세(樹勢)가 강한 조건 소재로의 조성, 경계 및 공급 유지 관리가 용이한 수종으로의 조성, 본교 보유 수목의 최대한 활용 등이었다.

충남대학교의 식생 분포 상태는 적송(赤松)이 주 수종을 이루고 있고, 조림 식생으로 리기다 소나무와 오리나무가 분포되어 있으며, 자연 식생으로는 참나무와 잡목의 일부가 군락 식생하고 있어 산림 환경이 양호한 편이었다.

충남대학교의 조경 사업의 기본 계획의 개요를 보면, 캠퍼스의 외부 환경에서는 도시의 공간과 달리 정제 공간과 도로의 명확한 구분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어떤 공간은 상반되는 기능까지 갖도록 계획되었다.

그리고 외부 장식물의 계획을 보면 그 종류가 다양하여 경관 조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하였다. 휴식 기능물로는 벤치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었고, 설비 기능물로는 휴지통, 식수대, 외 등 등, 그리고 환경 조정 기능물로는 녹음수, 분수, 연못, 조각, 게시판, 표식, 파고라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었다.

이러한 조경 사업의 기본 방향과 기본 계획에 따라서 각 지역별 식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캠퍼스의 현관격인 정문과 후문은 이용자에게 유쾌한 진입로가 되도록 조성되었으며, 동시에 계절적인 변화와 경관성을 높여주도록 교목인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목백합, 향나무, 철쭉류, 목련, 잣나무 등을 식재하여 잔디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리고 캠퍼스 내의 가로수는 전체적인 풍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계절에 따른 색채가 강할 뿐만 아니라 공해와 병충해에 강한 은행나무, 느티나무, 목백합, 벚꽃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강의실 주변의 조경은 여름에는 낙엽수와 꽃을, 겨울에는 적당량의 햇빛과 상록수를 조화시켜 건물이 수목과 시각적으로 안정성을 갖도록 조성하였다. 이를 위해 향나무, 목련, 섬잣나무, 왜향, 백일홍, 라일락, 산수유, 불도화, 철쭉류, 옥향, 주목, 해당화, 사철, 회양목 등을 식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강의실과 인접해 있는 내정 주변에는 잔디를 조성하고 향나무, 해당화, 단풍, 벽오동, 모감주 등을 식재하도록 하였다.

또한 캠퍼스 내의 실외 활동 공간인 광장 주변에는 질감이 좋고 공해가 없는 단풍, 향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목백합, 히말라야시다, 살편백, 섬잣나무, 백일홍, 목련,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광장의 공간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캠퍼스의 중심지인 중앙 녹지 공간에는 중심부의 송림군과 자연 경관을 연결시켜 캠퍼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종의 실외 시설물과 영탑지 그리고 분수 등을 지형에 맞게 시설하였다. 아울러 낙엽수와 상록수 및 화목류 등을 환경 요소에 적합하게 식재하였다.



한편 산림으로 둘러 쌓여 있는 도서관 주변에는 철쭉, 향나무, 주목, 단풍, 섬잣나무, 백일홍, 모감주, 벽오동, 은행나무, 사철, 자귀나무, 무궁화, 회양목, 해당화, 자작나무, 진달래, 매화, 불도화 등을 식재하도록 하였다.

(2) 캠퍼스 가로명

대덕 캠퍼스로의 이전 사업이 완료된 다음, 충남대학교 신문사에서는 ‘캠퍼스에 예쁜 이름들’이라는 기치 아래 캠퍼스 내의 주요 가로에 대한 ‘가로 명명’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의 대상이 된 가로는 충남대학교를 대표하는 가로라고 할 수 있는 5개의 중심 가로였는데 정문에서 도서관, 도서관에서 서문, 도서관에서 농학관, 영탑지에서 서문, 남부 테니스코트에서 인문대학까지의 가로였다.

이들 5개의 가로명은 공모된 여러 개의 이름 중에서 1,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통해 결정되었다. 그 결과로 결정된 5개의 가로명은 ‘한빛의 길’, ‘온슬기 길’, ‘아리랑 고개’, ‘예서린 길’, ‘꽃망울재’였다.

정문에서부터 도서관에 이르는 길의 이름은 ‘한빛의 길’로 결정되었다. 이 길은 충남대학교에서 가장 넓은 길이며, 도서관과 유성의 중심 도로를 연결하는 일직선의 가로로써 충남대학교의 동맥이라고 할만하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의 양 옆에는 충남대학교의 교목인 은행나무가 서 있으며, 충남대학교의 상징인 백마상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로는 충남대학교의 중심 가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길이라 하겠다. ‘한빛의 길’이라는 가로명을 제안한 송재일(국문학과 졸)씨는 “본교의 중심 가로는 전 충남대학교인의 예지, 슬기, 진리의 빛으로 상징되어야 하므로 그 명칭을 한(큰)빛의 길로 하였다”라고 하여 그 가로명의 제안 의도를 밝힌 바 있다.

도서관에서 서문에 이르는 길의 이름은 ‘온슬기 길’로 결정되었는데, 이 가로명은 당시 한글 운동 학생회에서 제안한 것이었다. ‘온슬기 길’이라는 명칭에서 ‘온’은 ‘백’이라는 수를 나타내는 옛말로, 그 수는 가장 완벽함을 의미한다. 또한 ‘슬기’라는 말은 지식보다는 지혜라는 말에 더 가까운 용어로, 사리를 판단하는 옳은 분별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도서관에서 서문에 이르는 길은 ‘온슬기 길’로 명명되었다.

충남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농학관에 이르는 길은 평균 경사가 74%에 달하는 고갯길이다. 이 길에 대한 이름은 이재수(기술교 졸)씨가 제안한 ‘아리랑 고개’로 결정되었다. 제안자는 “도서관에서 농학관으로 넘어가는 길은 길이라기보다는 고개를 연상시킨다. 옛날 한적한 고개를 넘어가는 한 선비를 떠올리며 그 예스러움과 운치를 닮아 ‘아리랑 고개’로 명명하였다”라고 제안 의



도를 밝힌 바 있다.

영탑지에서 서문에 이르는 길의 이름은 ‘예서린 길’로 결정되었다. 이 ‘예서린 길’이란 가로명은 송재일(국문학과 졸)씨가 제안하였는데, “서문에서 영탑지로 향하다 보면, 영탑지 앞의 옛 향기가 스며 있는 5층탑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이 길을 지나다 보면, 문학과 철학이 있는 문과대학을 지나게 되는데, 이곳은 ‘예술’과 ‘에스러움’이 서려 있는 곳이다”라고 그 제안 의도를 밝힌 바 있다.

남부 테니스 코트에서 인문대학에 이르는 길의 이름은 ‘꽃망울재’로 결정되었다. 이 길은 평균 경사가 9%인 언덕길인데, 이 길은 봄에 철쭉꽃이 피는 아름다운 길이다. 이 길의 이름인 ‘꽃망울재’는 정연안(전자공학과 졸)씨가 제안하였는데, 제안자는 “이 길에는 봄이면 길 양편으로 자지리지게 핀 철쭉꽃과 꽃망울들이 제법 운치 있게 자리하고 있다. ‘꽃망울’은 아름다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정의 상징이기도 하며, ‘재’는 고개란 뜻의 순수한 우리말로 꽃망울재라는 이름이, 이 길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진다. 또한 미술학과 별관이 있는 곳과 인접한 길로, ‘꽃망울재’라는 이름이 더욱 잘 조화되리라 생각 되어진다”라고 그 제안 의도를 밝혔다.

제5절 행정(재무)

1. 대학 기구의 확장

1) 교양과정부 법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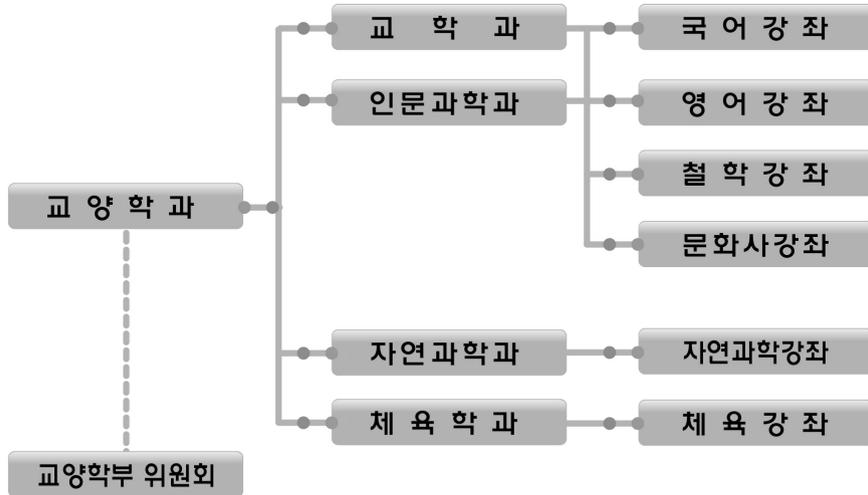
(1) 기구의 확장

1968년 1월 1일자로 강진형 총장이 경질됨에 따라 후임에 김영묵 박사가 취임하면서, 후속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교양학부장에는 송병학 교수(영문과)가 임명되었다. 송병학 교수는 교양과정부의 제도화에 힘썼다.

같은 해 2월 15일에 교양학부 규정을 개정하여 충남대학교 훈령 제56호로 공포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종전의 자연과학과 체육반이 체육학과로 승격되고 새로이 교양과가 신설되었다. 개정된 기구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교양학부 기구표〉



교양학부가 개편되어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해나가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다. 예산의 확보, 교과 과정의 강화, 교양학부 교수의 확보, 교양 교육 방법 및 내용의 개선 등이 주요 과제였다. 2학기에 들어서 다소 예산이 확보되고, 각 대학에 소속되어 있던 체육 교수들이 교양학부로 파견되어 교양학부에 통합되었다. 이후 1학년 전체 학생의 체육 강의가 종합운동장 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과도기였던 만큼 학생들은 각 단과대학에서 수업을 받았으며 교양과목 전담 교수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공간이 마련되지 못했다. 지도·감독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했고, 시간표가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 감독 또는 시험 관리 등 대부분의 사무 절차를 단과대학에 의뢰해야 했다.

예를 들면 체육 교수의 근무처는 교양학부였으나, 출근부는 단과대학에 그대로 있었다. 당시 김봉주 교수는 충남대학교 신문(1968. 10. 30) 「교양학부 현황」에 대한 기고문에서 “교양학부 출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교양학부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례가 있어서 각 부처의 공문이 단과대학으로만 나가는가 하면 교양 과목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나 교수 현황 보고서를 (교양학부에 내지 않고) 단과대학에 제출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교양학부 사무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토로한 바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던 1969년 학기초에 김영목 총장은 교양학부 강화책으로 다음 같은 단안을 내렸다.



- ① 각 단과대학에서 수강해 오던 교양학부 소관 강좌 및 사무실은 문리과대학 별관에서 실시하며, 교양학부 소관의 수강 신청시 반드시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한다.
- ② 과목도 약간 변경되어 외국어과(영어, 제2외국어), 인문사회학과(국어, 문학개론, 철학, 문화사), 자연과학과, 체육과, 교련과를 교양학부 소관으로 옮긴다.
- ③ 종래의 교양 필수였던 영어를 2학년까지 연장하여 매 학기 2시간 1학점씩 취득하게 하고 독어도 문과계는 한 학기에 4시간, 2학년 이과계는 2시간 1학점으로 변경케 한다.

이러한 김영목 총장의 단안으로 교실 7개, 사무실 1개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문리과대학 별관인 문화동 캠퍼스 구 목조건물에 터전을 잡을 수 있었다. 따라서 각 단과대학 1학년 학생은 수업을 받기 위하여 이곳으로 옮겨와야만 했다. 당시 수강 인원은 40명 내외로, 대개 2개 학과의 학생이 한 반에 편성되어 수업을 받았다.

1969년 말 종합연구소 및 대강당이 본부와 농과대학 사이에 신축되었다. 송병학 부장은 각 단과대학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 건물을 교양학부가 사용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문리과대학 교사에서 전격적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다.

(2) 교양과정부의 출범

초창기부터 논의되어 오던 교양학부의 법제화문제가 문교부로부터 승인이 있는 1970년 3월 신학기부터 교양과정부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 초대 교양과정부장에는 송병학 교수가 유임되었다. 이리하여 교양학부가 법적 뒷받침을 받아 명실상부한 독립 기관이 되어 하나의 단과대학처럼 운영될 수 있었다.

1970년도 신입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새로 건축된 대강당(좌석770석)에서 가질 수 있었다. 교학 방침, 학교 행정 안내, 수강 신청 방법, 교양과정부 법정 해설, 대학 생활, 특히 외국 의 대학 생활 등이 상세하게 소개되었다.

이때 교학과가 비로소 교무과, 학생과로 분리되고 서무과도 신설되었다. 각 단과대학 소속이던 교양 과목 전담 교수들도 교양과정부 소속 교수로 발령하였다.

1972년 1월 17일 전임 송병학 교수가 물리나고 신용태 교수가 교양과정부로 부임하였다. 교무과장 김봉주 교수는 유임되고 학생과장은 이철의 교수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1973년 2월 8일 박희범 총장이 부임하면서 교양과정부 교수도 각 단과대학의 전공 과목을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같은 해 3월 정덕기 교수가 교무과장에 임명되었고, 1973년 11월 6일 박상용 교수가 교양



과정부장으로 임명되었다. 1974년 2월 1일자로 교양과정부 교수(교직과, 국민윤리 및 제2의 국어과 교수 외)가 문리과대학 교수로 겸임, 발령되었다. 이들은 1976년 2월 22일자로 문리과대학 교수로 흡수되었으며, 당시의 교무과장은 신성철, 학생과장은 서해길 교수였다.

2) 각 대학(원)의 증과·증설

(1) 대학

1968년은 전 충남대학교인의 숙원이었던 의과대학이 신설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명실공히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각 대학의 증과와 증원도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8년부터 1975년까지 총 15개학과가 증과 되었고, 학생수도 430에서 1170명으로 증원되었다.

연도별로 증원수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8년도〉

문교부는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이공계 학과에 중점을 두었다. 종전에 49대 51의 인문계 대 이공계와의 비율을 47대 53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본교에서도 이공계는 30명이, 인문계는 15명이 증원되었다.

〈1969년도〉

본교에서는 기계, 전기, 금속공학, 임산학, 생물학과의 증원과 가정학과의 신설을 문교부에 상신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및 섬유공학과가 약간 증원되는데 그쳤다.

〈1970년도〉

문교부는 1970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총 1,445명을 증원키로 발표했다. 증원 내용을 보면 사범계 대학과 이공계 대학의 정원을 증점적으로 증원하고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국가 목표에 맞도록 조정하고 지방 국립대학에 집중 증원하여 전체 80%를 배정했다.

이에 본교에서는 공업교육학과와 의과대학 간호학과가 신설되는 등 95명이 증원되었다.

〈1971년도〉

문리과대학으로부터 법경대학이 분리 된 이후 행정학과 신설을 추진해오던 중 드디어 정원 20명으로 행정학과가 설치되었고, 공과대학 토목공학과(30명)가 신설될 수 있었다.



〈1972년도〉

문교부는 현재 가장 부족한 사범계에 중점을 두어 증원의 85%인 2015명을 배정했으며, 국가 정책상 필요한 분야인 전자계, 제2외국어, 국제행정 등의 분야에 400여명을 증원했다. 증원된 인원도 지방 대학이 전체의 53%를 차지에 지방 대학 육성 의욕을 엿볼 수 있다.

이 당시 본교의 신설학과는 없고, 농학, 축산학, 법학, 행정학과만 각각 10명씩 증원되고 사학, 철학과가 각각 5명씩 증원되어 총 70명이 증원될 수 있었다.

〈1973년도〉

문교부는 지방 대학의 육성과 민족 주체성 확립, 국민 체력 향상을 위해 국사 교육과 체육 교육을 확충한다는 이유로 학생 정원을 늘렸다.

본교에서는 체육학과, 산업기계공학과, 원예학과 등이 신설되었고, 원래 증원 요청한 것은 230명이었으나 농공학과, 농산제조과, 사학과 등이 증원되어 120명만이 증원되었다.

〈1974년도〉

문교부의 고등교육 개선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실험대학이 금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의과대학 및 문리과대학 체육학과와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다. 1974학년도에 대폭적인 학과의 신설과 증원이 있었으나, 이때 공과대학 정밀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금속공학과, 농과대학 농산가공과 등이 신설되었다. 산업기계학과, 농산제조학과는 폐과되었으며 화학공학과, 공업교육학과, 축산학과, 농공학과 등이 증원되어 총 증원수는 160여명이 되었다.

〈1975년도〉

문교부의 지방 대학 특성화 및 지역 산업과의 관련학과 중시, 여성 교육의 중요성 인식 등의 방침 하에 입학 정원이 증원되었다. 특히 문교부 지방 대학의 특성화 방안으로 본교를 대덕 연구단지과 관련하여 지역산업관련학과의 개편 및 정원을 증원했으며 기존 대학의 인력 수급상 부족 분야인 학과와 여성 교육 관련학과를 신설 또는 증원했다. 이에 따라 중공업 과학분야인 전기공학, 임학, 생물학과 등에 130명, 대학특수성 분야인 경제학, 사회학 등에 70명, 여성 분야의 가정학과 등이 신설되었다. 정밀기계학, 전기공학, 공업교육학 등 정부 인력 수급을 위해 권장된 학과로 본교에서는 지난 7월 전기공학, 임학, 생물, 경제, 사회학, 가정학, 약학, 교육학부(국민윤리, 한문, 일어, 무용, 지리), 무역학과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약학, 교육학부, 무역학과를 제외한 학과가 신설되었고 230명이 증원되었다.



(2) 대학원

대학원 학생 정원도 1965학년도에 66명이었던 것이 1968학년도에는 130명으로 배가되었다. 1970학년도에 경영대학원(학생 정원 50명)이 야간부로 신설되어 지역 사회의 경영자 및 중견 경영인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1975학년도에는 교육대학원이 계절학기 대학원으로 개설되어 2개의 전문대학원이 신설되었다.

1972년에 경영학과와 의학과 의 석사학위 과정이 증과 되었고, 박사학위 과정은 1971년에 화학공학과, 73년에 국어국문학과, 74년에 법학과, 섬유공학과, 의학과, 화학과가 증과되었다. 이 기간에 기존 학과의 일부증원도 있었다.

대학의 학과 개칭에 따라 대학원도 1974년에 농업토목학과가 농공학과로, 1976년에는 농산제조학과가 식품가공학과로 변경되었다.

3) 의과대학 신설

1967년 11월 25일에 정식 설립인가를 얻게 된 의과대학은, 1968학년도부터 의예과 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애의 구현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꿈이 현실로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의과대학 건물이 따로 설립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의예과는 문리과 대학에서 강의를 받아야 했다. 의과대학 캠퍼스와 부속 병원 건립은 의과대학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다.

학장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던 의과대학은 1969년 6월 4일에야 윤봉헌 박사가 초대 학장에 취임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해 9월 17일 대흥동에 의과대학 신축·기공식이 있었다. 다음 해 2월 26일 제1기 의학과 개강식을 가짐으로써 명실상부한 의과대학의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의 시설로는 실습이 불가능하여 2학기부터 실습이 시작되었고, 기재의 불충분과 적시 공급이 안 되어 그마저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였으며 그 결과 제1회 졸업생이 국가고시에 100% 합격하는 개가를 올릴 수 있었다.

1971년에는 제1회 「의행제」를 시작하였고, 이듬해엔 의과대학 합창부가 창립되어 보운제 때 합창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시설도 보완되어 갔다. 1972년 5월 22일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개원되었고, 윤봉헌 학장이 초대 부속병원장에 취임하였다. 1974년 6월 18일 대흥동의 의과대학 캠퍼스가 준공됨으로써 이제 의과대학은 발전을 향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4) 대학원 신설

(1) 경영대학원

196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에 따라 고도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의 전문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국 각 대학에 전문대학원을 개설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자는 논의가 분분하였다. 특히 60년대의 경제 발전은 사회 어느 부문보다 전문적인 인재가 필요하게 되어 각 대학에 경영대학원을 개설하게 되었다.

본교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적응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를 양성하고 경영학 전반에 걸친 심오한 이론을 연구하여 경영자에게 충분한 자질을 함양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대학원의 신설을 문교당국에 건의하였다. 본교의 요청에 따라 문교부의 허락이 떨어지면서 1970년 3월 설치될 수 있었다. 새로 인가된 경영대학원에 설치된 학과는 경영학과 하나였다. 석사과정에 학생 정원 50명에 입학 정원 25명이었고, 강좌는 야간 강좌로 개설되었다.

경영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학사학위 소지자거나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과정 수료자, 기타 교육법 시행령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었다.

경영대학원에는 연구생 제도를 두어 지역사회 중견 경영인들의 전문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1년의 이수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수학 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과정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였다.

경영학과 석사 과정은 생산관리, 재무관리, 시장관리의 4개 전공이 개설되었다. 이 과정의 수업 연한은 2년이고 재학 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학점은 최저 30학점을 취득하여야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고, 논문 심사와 구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동 대학원은 교수 외에 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1명의 주임교수를 두고, 6명의 교수로 구성되었다. 동 대학원의 대학원 위원회에서는 입학, 진학 및 과정의 수료 인정, 수업 특수강좌 운영, 학위심사, 예규의 제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하였다.

동 대학원은 1970년 3월 25일 첫 입학시험을 통해 석사과정 22명과 연구생 과정 48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4월 17일 오후 6시 도서관 열람실에서 본교 김영목 총장과 내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과 첫 입학식을 거행하였다.

초대 대학원 원장에는 1970년 8월 19일자로 법경대학 권문택 교수가 임명되었다.



(2) 교육대학원

중부 지방의 종합대학교로서 본교의 면모는 날로 쇄신되어 명실상부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우수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사범대학이 없어 교원 양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교원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 기관도 설치되지 않아 교원 교육을 위한 교육 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망되었다. 이에 1974년 5월 29일 교육대학원 설치를 문교부에 건의하였다. 교육 행정 전문 외에 18개의 전공과정과 학생 정원 280명(야간 80명, 계절 200명)의 교육대학원을 설립, 신청하였고, 그 결과 1975년 3월 10일(문서번호 대학 1040) 계절제 교육대학원의 인가를 얻어 개원할 수 있었다.

교육대학원은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교육학 및 각 전공 분야의 학문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자의 자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계절제 특수대학원으로 처음 제정된 학칙에서 본 대학원의 수업 연한을 2년(재학 연한 3년)으로 하였으며, 이 기간에 3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석사학위 논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문이 통과된 자에게는 교육학 석사의 학위증을 수여하였다. 또 학생들의 학업진작을 위해 공개 강좌를 개설하고 연구생, 외국인 특별생 등에 대한 제도를 두기도 하였다.

교육대학원 기구는 원장과 그 밑에 교학과를 두어 행정실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각 전공 별로 전공주임 교수를 두도록 하였다.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대학원 교수로 구성되는 대학원위원회는 ① 학생의 입학, 퇴학, 과정수료, ② 학과와 전공의 설폐 및 학생 정원, ③ 수업 계획, ④ 공개 강좌, 진학 ⑤ 학위 또는 대학원에 관한 제 규칙의 제정, ⑥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였다.

초대 원장에는 조용진 교수가 임명되었고 1975년 4월 12일 교양과정부 202강의실에서 86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첫 입학식을 가질 수 있었다.

2. 교학행정의 강화와 재정의 변화

1) 교학행정과 기구의 확충

1978년 본교는 교무처(교무처, 학적과, 수업과), 학생처(학생과, 후생과, 상담지도관), 사무국(총무과, 경리과), 건설본부(기획담당관, 행정담당관, 공사담당관) 등의 2처 1국 1본부의 직제를 가지고 있었다. 1978년 8월에는 건설본부의 직제가 축소되어 기획담당관이 폐지되었다. 아울러 1981년 2월 28일 국립학교설치령이 개정되어 사무국에 시설과가 공식기구로 설치됨에 따라 본교의 대덕캠퍼스 이전 사업을 총괄하였던 건설본부는 해체되어 교학기구는 2처 1국의 직제를



갖게 되었다. 1980년 4월 개정 학칙에 따라 학생처의 상담지도실이 폐지되었고, 같은 해 5월에는 학생수 증가와 장학금제도의 개선에 따른 장학담당관제도가 학생처에 신설되었다. 1984년에는 지방 학생들의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기숙사가 설치되었고, 1985년에는 국제교류의 증진을 위해 교제교육부를 설치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본교는 5개 단과대학, 39개 학과에서 1988년 3월에는 10개 단과대학, 79개 학과로 대폭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2) 재정규모의 변화

대학의 재정 규모 변화로부터 대학의 발전 속도와 성장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중요하다. 이러한 통계는 예산·결산서를 바탕으로 얻어질 수 있는데, 「충남대학교 통계연보」를 보면 본교의 재정 규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전체적인 재정 규모의 변화는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이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몇 가지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1년 175억 790만 6천원에서 1988년에는 258억 3175만 7천원으로 1.5배 가량 증가되었으며, 1981년부터 1988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5.97%이다.

둘째, 일반 회계와 기성 회계의 세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83%, 27.41%로 기성 회계 세출의 증가율이 일반 회계 세출의 증가율을 훨씬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증가율의 차이는 구성비의 변화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1년에는 일반 회계와 기성 회계의 구성비가 각각 75.4%와 24.6%이었으나, 1988년의 구성비는 각각 55.2%와 44.8%로 일반 회계의 비중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단위 : 천원, %)

구분 연도	일반 회계			기성 회계			합 계	
	금 액	구성비	증가율	금 액	구성비	증가율	금 액	증가율
1981	13,198,100	75.4		4,309,806	24.6		17,507,906	
1982	13,393,150	66.7	1.5	6,696,558	33.3	55.4	20,089,307	14.7
1983	12,676,809	60.7	-5.3	8,211,498	39.3	22.6	20,888,307	4.0
1984	10,359,744	53.5	-18.3	8,997,840	46.5	9.6	19,357,584	-7.3
1985	9,645,206	49.7	-6.9	9,745,747	50.3	8.3	19,390,953	0.2
1986	10,978,261	50.9	13.8	10,585,752	49.1	8.6	21,564,013	11.2
1987	12,405,340	54.2	13.0	10,480,184	45.8	-1.0	22,885,524	6.1
1988	14,263,980	55.2	15.0	11,567,777	44.8	10.4	25,831,757	12.9